

연구보고서 2009-12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현재 청년층의 구직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파생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취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구직활동을 단념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었으며, 경제침체 여파로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러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관련 부처의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취약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 실태를 살펴보고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 향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 과제들이 관련 부처(서)의 정책 결정과 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나아가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기본연구 2009-24번으로 진행되었으며, 변숙영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이수경 박사, 이종범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관련자료 수집과 면담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관련 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에 유용한 방안을 제공하고, 나아가 본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내용 · 4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취약청소년의 특성

제1절 취약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 15

1.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 15
2. 취약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 16

제2절 취약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 · 45

1. 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 · 45
2. 취약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 · 54

제3절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 66

1. 직업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개념 · 66
2.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실태 · 78

ii 목차

제4절 시사점 · 129

제3장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제1절 국내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 135

1. 노동부 · 135
2. 교육과학기술부 · 163
3. 보건복지가족부 · 175
4. 운영사례 · 188
5. 시사점 · 204

제2절 해외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 209

1. 캐나다 · 209
2. 영국 · 218
3. 미국 · 227
4. 일본 · 233
5. 시사점 · 243

제4장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 관련 문제점 및 요구

제1절 직업능력 향상 관련 문제점 · 247

1. 위기청소년 · 247
2.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 254
3. 장기실업 청소년 · 261
4. 청소년 니트족 · 264
5. 새터민 청소년 · 269

제2절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 · 274

1. 위기청소년 · 274

- 2.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 278
- 3. 장기실업 청소년 · 282
- 4. 청소년 니트족 · 286
- 5. 새터민 청소년 · 289

제3절 시사점 · 293

제5장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SUMMARY · 305

참고문헌 · 311

〈표목차〉

- 〈표 1-1〉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 및 심층면담 분석틀 · 7
- 〈표 1-2〉 FGI 참가자 · 9
- 〈표 1-3〉 심층면담 참여 청소년 · 10

- 〈표 2-1〉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18
- 〈표 2-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구분 및 정의 · 19
- 〈표 2-3〉 위기청소년의 규모 · 23
- 〈표 2-4〉 고졸 이하 청년층의 세부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 27
- 〈표 2-5〉 고졸 이하 청년층의 세부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고용의 질 · 27
- 〈표 2-6〉 미취업자의 구직 기간 · 31
- 〈표 2-7〉 학력별 실업자, 취업자 분포 · 32
- 〈표 2-8〉 청년 취업애로층 추이 · 36
- 〈표 2-9〉 학력별 니트율 및 실업률 · 37
- 〈표 2-10〉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40
- 〈표 2-11〉 새터민 연령별 입국 추이 · 41
- 〈표 2-12〉 새터민 청소년 연령별 인원 현황 · 41
- 〈표 2-13〉 구직활동 여부 · 46
- 〈표 2-14〉 주요 구직 경로 · 46
- 〈표 2-15〉 연고를 통한 구직 경로 · 47
- 〈표 2-16〉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 48
- 〈표 2-17〉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빈도 · 48
- 〈표 2-18〉 구직정보 수집 시 어려운 점 · 49
- 〈표 2-19〉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한 경험 여부 · 50
- 〈표 2-20〉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 · 50

- 〈표 2-21〉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 · 51
- 〈표 2-22〉 직장체험 장소 · 52
- 〈표 2-23〉 직장체험 분야 · 52
- 〈표 2-24〉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53
- 〈표 2-25〉 위기청소년의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 55
- 〈표 2-26〉 저학력 취업자 수(2000~2008) · 57
- 〈표 2-27〉 20~29세의 청년실업자 수(2000~2008) · 57
- 〈표 2-28〉 연령별 실업률(2000~2008) · 58
- 〈표 2-29〉 연령별 실업자 수와 실업률(2000~2008) · 59
- 〈표 2-30〉 20~29세의 학력별 청년실업자 수(2000~2008) · 59
- 〈표 2-31〉 구직 기간별 실업자 수(2000~2008) · 60
- 〈표 2-32〉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계획 · 63
- 〈표 2-33〉 새터민 청소년의 희망직업 결정 여부 · 64
- 〈표 2-34〉 새터민 청소년의 희망 직업(중분류 기준) · 65
- 〈표 2-35〉 직업기초능력 개념 및 정의 · 70
- 〈표 2-36〉 국내 사례에서의 직업기초능력 영역 종합 · 74
- 〈표 2-37〉 국외 선행연구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종합) · 75
- 〈표 2-38〉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 및 하위요소별 정의 및 개념 · 76
- 〈표 2-39〉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 79
- 〈표 2-4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별 수준 · 80
- 〈표 2-41〉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수준 · 84
- 〈표 2-42〉 새터민의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분포 · 85
- 〈표 2-43〉 연령별 새터민의 직업기초능력 차이 · 86
- 〈표 2-44〉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실태 · 134

- 〈표 3-1〉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 137
- 〈표 3-2〉 단계별 세부 내용 · 142

〈표 3-3〉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143
〈표 3-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148
〈표 3-5〉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152
〈표 3-6〉 잡스쿨의 일정	154
〈표 3-7〉 고등학생용 CAP+ 주요 내용	156
〈표 3-8〉 대학생용 CAP+ 주요 내용	157
〈표 3-9〉 취업 희망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159
〈표 3-10〉 성취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162
〈표 3-11〉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강화 계획	166
〈표 3-12〉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대상	178
〈표 3-13〉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79
〈표 3-14〉 2008년 두드림존 프로젝트 추진실적	180
〈표 3-15〉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이수자 만족도	181
〈표 3-16〉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프로그램별 성취도 사전-사후 점수 비교	183
〈표 3-17〉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아효능감 사전-사후 점수비교	184
〈표 3-18〉 자활사업 추진 현황('08년 기준)	186
〈표 3-19〉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189
〈표 3-20〉 A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	191
〈표 3-21〉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192
〈표 3-22〉 A 대안학교 프로그램	193
〈표 3-23〉 고3 진학지원 사업	196
〈표 3-24〉 전국실업극복단체의 프로그램	198
〈표 3-25〉 A 실업극복단체 프로그램	199
〈표 3-26〉 A 청소년 자활복지관 프로그램 1	200
〈표 3-27〉 A 청소년 자활복지관 프로그램 2	200

- 〈표 3-28〉 A 청소년 자활복지관 프로그램 3·202
- 〈표 3-29〉 하나원의 프로그램·204
- 〈표 3-30〉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특징·224
- 〈표 3-31〉 미국의 중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227
- 〈표 3-32〉 일본의 YES 프로그램의 직업기초능력·237
- 〈표 3-33〉 일본식 듀얼 시스템 훈련 과정의 종류·240
- 〈표 3-34〉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 대상자 선정 근거·244

[그림목차]

- [그림 1-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8
- [그림 1-2] FGI 및 심층면담 프레임워크 · 11
- [그림 1-3] FGI 및 심층면담 프로세스 · 12
- [그림 1-4] 연구방법 및 절차 · 13

- [그림 2-1]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하위요소 · 73
- [그림 2-2]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가 평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 · 82
- [그림 2-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 · 83

- [그림 3-1] 종합고용지원센터 추진 체계 · 139
- [그림 3-2] 민간위탁기관 추진 체계 · 140
- [그림 3-3] 단계별 진행 내용 · 141
- [그림 3-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추진 체계 · 144
- [그림 3-5] 청년직장체험사업 추진 체계 · 149
- [그림 3-6] 성취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 · 161
- [그림 3-7] Wee Project 구축도 · 165
- [그림 3-8] Wee Center 체계도 · 168
- [그림 3-9]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 내용 · 170
- [그림 3-10]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 173
- [그림 3-11] 두드림 프로젝트 운영 체계 · 177
- [그림 3-12] 자활산업의 추진절차 · 186
- [그림 3-13] 자활인큐베이팅 흐름도 · 188
- [그림 3-14] FPSYI 프로그램의 구성 · 211
- [그림 3-15] 캐나다의 Skills Link Program 개요 · 215

[그림 3-16] 일본의 듀얼 시스템 · 239

[그림 5-1]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모형 · 301

【요약】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 향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약청소년의 취업 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문가 협의회,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등으로 진행되었다.

2. 취약청소년의 특성 및 직업능력 실태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악화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오면 실업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에 대한 준비가 학령기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취약청소년의 개념 정의 및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을 규정짓고자 한다.

국내·외 문헌 및 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청소년은 저연령 비

진학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위기청소년, 취업의지가 없는 청소년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취약청소년 전문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정책에서 분류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과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한 새터민 청소년을 취약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취약청소년을 ‘만 12세에서 만 24세 미만의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특히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에 초점을 두었다.

취약청소년의 유형, 특성 및 직업능력 실태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능, 자격, 태도, 동기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저임금 단기 근로의 불안전 고용상태에 처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다수 저소득층 취약청소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회 일원으로서 성공적 정착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터민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학교와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 효과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 취약청소년은 기본적으로 기본생활습관이 미형성되어 있고 기초학습능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컴퓨터와 친숙하나 문서작성이나 정보 찾기 등의 전문적 활용 능력이 부족하며, 컴퓨터 언어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언어적 파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리 상담과 치료의 병행이 요구된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장기실업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의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습능력의 보완을 통한 상위 학력의 습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가. 국내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각 부처별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 중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가장 많은 취업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특성이 다양한 취약청소년 유형별 특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청소년 대상의 취업지원책들은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사전 실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개별상담 또는 직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주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단기간 프로그램은 취업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구체적인 운영지침 없이 실무역량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사전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마련과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 총 6회의 개별상담과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참가가 이루어지는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취약점이 파악되어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기초한 정서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종합적인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Project'와 다른 정부 부처 프로그램들과의 차이점은 관계부처의 주무 담당자 외에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긴밀한 연계망 속에 포함되어 단순상담을 넘어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가장 밀접한 학부모 상담도 병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취약청소년의 문제가 대상자만을 위한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의 주축지원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인력으로 기존의 업무 외에 이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 인력이 편성되지 않는 한 제한된 인력으로는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주 대상은 학교범위 내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한하고 있어, 이미 탈학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9년 6월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한 초·중·고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게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급, 보조인력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에 대한 종합적 진단 서비스 체계화,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의 '두드림 프로젝트' 2008년 참여자 만족도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편성 등에는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정보전달의 용이성이나 교육장 접근의 용이성에서 70%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성취도에 있어서도 경제마인드나 직업이해, 실천의지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보완점으로는 올바른 경제관 형성 및 직업의 중요성 인식, 다양한 직업세계 탐구, 대인관계 기술 향상,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 습득 등이 요구되었다. 이는 기본생활습관과 직업기초능력 관련 지식, 기술의 보완이 프로그램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청소년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부분이 취약하며,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시 해당기관의 지원 연계의 어려움이 프로그램 시작 초기부터 대두되고 있어 성공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나. 국외 취업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국외 취업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취약청소년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책 및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마다 취약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었는데, 특히 취약청년층을 구분하는 판단근거 중 다수 제기되는 것이 '낮은 교육수준'이었다. 과잉교육에 의한 하향취업의 정도가 20~3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낮은 교육수준'은 의미있는

취약성 판단근거라 할 수 있다. 또, 청년층 내에서의 '저연령'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내 연령의 고저와 취업성공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취업 기간'을 또 다른 취약성 판단 근거로 보는데 이는 미취업 기간의 장기화가 취업의 곤란도를 높인다(김안국·신동준, 2007; 안주엽·홍서연, 2002)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일본의 '청년층 자립 학원' 서비스 대상으로 미취업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것 이외에는 '장기간'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는 취약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을 지원하는 취약청소년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틈새 메우기(Bridging the gap)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기초학습능력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성공적 이행을 돕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 학습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취업지원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4.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 관련 문제점 및 요구

가. 직업능력 향상 관련 문제점

취약청소년 유형별 직업능력 향상 관련 프로그램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적응교육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심성 순화, 복학 및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지원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기초학습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기초학습능력을 보충해주고 직업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로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그룹홈을 제공하고, 대안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도록 함으로써 향후 자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들은 본인이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생활습관 미형성과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실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취업과 관련된 상담 및 연계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실업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이를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프로그램 상에서는 상담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세한 상담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니트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담, 검정고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니트족은 기초학력 수준이 매우 낮아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수업에도 꾸준히 참석하기 힘들어 하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쉽지 않아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집 밖으로 나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지속적

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중도탈락이 높은 편이다.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입국 직후 12주의 하나원 교육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의 개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학력 결손이 심하며, 진학을 위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다. 남북한 간의 직업에 대한 개념 차이와 직업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직업을 찾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

취약청소년의 유형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체계적인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과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후지원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이미 탈학교의 상태로 불규칙적인 생활과 규제에서 벗어난 생활을 한 경험이 길기 때문에 자기관리, 감정조절, 문제해결, 인내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사전에 발굴해내고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와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졸 이하 학력의 장기실업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확보하고, 기업주의 마인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니트족은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은 위기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동적이고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 청소년 니트족은 은둔하려는 성격이 강해 이 부분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 멘토를 통해 관계형성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직장체험을 할 경우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직업교육 이전에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고,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 심리 상담 등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생의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새터민 청소년은 사회·경제 체제가 상이한 국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이들의 사고방식 및 특징차가 크다. 이에 새터민 청소년의 직업훈련 후 취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업주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5. 정책 대안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퇴직교사나 방과 후 교사, 예비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멘토로 투입하며, 외국의 경우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기초학습능력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이를 통해 학교복귀 및 성공적인 학력취득, 노동시장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취약청소년들이 컴퓨터 등의 첨단미디어 사용에 익숙한 세대임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방송과정과 이러닝 과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해서도 집체 학습 형태를 유지하되, 청소년 니트족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업내용의 보완 등의 방법으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방송과 이러닝 과정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학습흥미 유발과 학습의 보조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약청소년 특성별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요구된다. 취약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은 단순히 직업능력 관련 프로그램만의 도입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특성 및 취업특성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진단·상담·치료의 과정을 거쳐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직업체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진단·상담·치료' ⇒ '교육·훈련' ⇒ '진로설계·직업체험'의 단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진단·상담·치료’ 단계에서는 취약청소년들이 탈학교하게 된 원인과 이유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이의 상담·치료를 통해 자기애의 형성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으로 진행되는 것이 직업능력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2단계 ‘교육·훈련’ 단계는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단계적이고 융통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는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이라는 기본 전제와 함께 진행된다.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문제 해결을 주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탈 행위 극복을 위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의 병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장기실업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의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습능력의 보완을 통한 상위 학력의 습득 지원이 요구된다. 청소년 니트족은 오랜 은둔생활로 인한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 등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며, 이를 위한 가족치료 병행도 요구된다. 새터민 청소년은 올바른 취업관 형성을 통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위기 청소년과 실업자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그 운영에 있어서도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훈련 프로그램들도 있어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장·단점을 부각시켜 학습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순차적, 차별적이며, 융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 자원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조직이해 능력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로 된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보다는 ‘익혀보자, 의사소통 능력’, ‘활용하자, 주변자원’, ‘친해보자, 대인관계’, ‘관리하자, 나’, ‘알아보자, 사칙연산’, ‘풀 수 있다, 문제해결’, ‘배워보자, 직장예절’ 등 취약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한 친숙한 용어와 내용을 선정하고 취약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취약부분의 적용시간을 늘리는 등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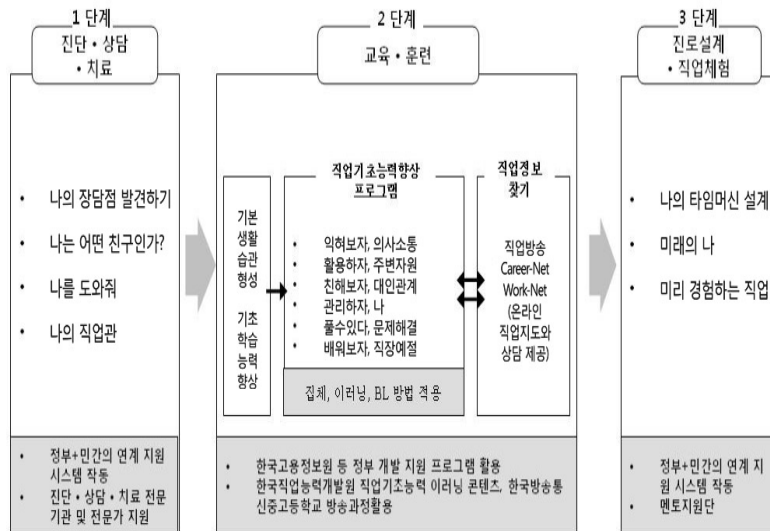
이때 특히, 취약청소년의 유형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이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나 니트족, 장기실업자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이의 고리를 끊는 프로그램의 순차적 적용이 요구된다.

한편,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은 취약청소년 관계자 및 취약청소년 집중면담 결과에서도 요구된 바와 같이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적인 시간의 적용과 다양한 교수매체와 교수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정부에서 개발하여 보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되,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시간적용과 내용보완이 요구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개발한 직업기초능력 관련 이러닝 과정을 보조교재로 활용한다면 청소년 니트족 등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과 함께, 직업정보를 직접 찾는 과정을 통해 직업의 동향과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도 요구된다. 즉, 정보화세대로 컴퓨터 사용률이 높은 취약청소년의 장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직업정보 관련 Career-net이나 Work-net 등을 활용하여 취업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리고 게임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직업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직업지도와 상담이 가능한 Career-net의 활용은 취약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 소극성을 최소화하면서

올바른 직업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용,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직업방송’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진로설계·직업체험’의 단계는 자신의 이해와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좀 더 현실의 직업세계, 노동시장에 친근하게 접근하고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같은 처지였던 취약청소년 선배나 취약청소년이 근무하고자 하는 산업현장의 전문가가 멘토로서 이를 지원하고 돕는 체계적 연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2010 추진 전략으로 밝힌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 취약청소년 관련 영역의 구체적 실천 내용과 단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인력의 보완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취약청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과 함께 내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없다. 현재 취약청소년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친밀감 형성과 신뢰구축, 이를 통한 교육과 상담이 중요한 취약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완과 이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0년 정책보고에서 내실있는 취업상담을 위한 고용지원센터 인력 보강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전담 상담인력 배치를 밝히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의 확대와 현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에 큰 지원목이 될 것이다.

넷째,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위기청소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법무부-지역사회단체 등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차별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는 비용적/시간적/인력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여기저기에서 지원해 주는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다행이다.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도 2010년 정책보고를 통해 청년이 원

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 실시 등의 취업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취약청소년 관련 부처 간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 지원 계획을 큰 그림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상적인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각 부처 또는 민간단체별로 파악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공유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정부의 취약청소년 신상 관련 정보, 교육정보, 취업정보, 진로상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보 관리 및 지원 통합 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적 정보 DB 구축 및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단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약청소년 유형별로 공통점도 있으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이라는 범주 속에서 크게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업자 또는 취약계층이란 틀 속에서 성인들과 차별 없이 지원되는 지원책으로는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취약청소년 중에서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나 장기실업 청소년, 니트족으로 발전하거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이나 장기실업 청소년, 니트족 등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유형별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향후 추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취약청소년별 직업능력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인턴제와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정부차원의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제도의 개선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변숙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전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기인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개인적·가정적·사회적·환경적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경우 실업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사회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취약청소년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들에 대한 준비가 학령기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취업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청소년은 사회생활·직업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부모의 지원과 정규교육을 전제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밖의 위기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 니트족 등의 취약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련 부처나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대상의 사업도 일반 청소년 위주로 단기적·단편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시장에 준비 없이 투입된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9)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중단 청소년은 7만 2천 명이며, 이 수는 매년 증대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탈학교 후 위기청소년, 니트족으로 발전되거나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저임금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로 위치하여 장기실업자 등의 유형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노경란 외, 2008b). 특히,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회성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한 상담과 단편적 직장체험은 내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취약청소년에게 있어 그 효과를 담보하기 더욱 어렵다.

이렇듯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산업화·정보화 사회에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취업 지원 및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별로 실시되는 전문적인 직업훈련 전 단계에서 취업 시 현장직무에 빨리 적응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인 직업기초능력이 밑받침될 때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장서영 외, 2006).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능력 및 직업의식 등의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동열 외(2005)도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 및 전

문직업인으로서의 준비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장서영 외(2006)도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실업자들에게는 자신을 탐색하고 자아효능감과 자신감 등의 내적 힘을 길러줌으로써 투철한 직업의식을 확립하는 직업기초능력 함양이 본격적인 직업전문훈련에 앞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일본의 경우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도 오래 일하지 않고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목적의식이 낮은 상태로 일하는 청년들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회사에서 통용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YES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관련 전문 직업능력의 신장까지도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장명희 외, 2006).

이와 같이, 취약청소년들이 취업상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 신장에 기초가 되는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신감 회복, 자기관리 능력, 자원활용 능력, 직업세계의 이해 등의 직업기초능력 배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취약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단기적인 직업체험 및 상담이 주 내용으로 취약청소년 대다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직장생활에 있어 두려움과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파악과 이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소수의 상담인력이 경제사정 등으로 증대된 다수의 취약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한계점과 취약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및 연계부족 등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취업 관련 직업능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산업현장 적응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원책이 매우 시급히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직업능력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및 관련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 과제를 제안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한다. 취약청소년의 개념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취약청소년의 취업(실업) 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취약청소년의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및 사업체계, 프로그램 내용 구성, 추진실적 분석 등의 현황과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다.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분석하고,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 관련 지원의 개선점 및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2. 연구의 방법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취약청소년 직업훈련 관련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하여 취약청소년의 특성 및 취업(실업)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취약청소년 대상의 직업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취약청소년의 직업 기초능력 실태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나. 전문가협의회

1) 목적

취약청소년 대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자(학계, 정부담당자), 취약청소년 대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자를 중심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 진행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총 6회 실시하였다.

2) 주요 내용

전문가협의회는 주요 내용은 연구방향 및 내용 상세화, 연구대상 및 방법 구체화, 취약청소년 특성 파악, FGI 및 집중면담 결과 검토,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이다.

3) 기간

전문가협의회는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6회 실시하였다.

다. FGI 및 심층면담

1) 목적 및 내용

취약청소년 대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주 내용과 추진 결과, 애로점과 시사점을 파악함으로써 취약청소년(위기청소년 /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 장기실업 청소년 / 청소년 니트족 / 새터민 청소년 등) 직업능력 향상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취약청소년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각 집단별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현재 운영 중인 직업능력 향상 지원의 문제점과 각 집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취약청소년 대상별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FGI 수행 전문기관인 이노베이션 리서치 외부용역을 통해 녹음 및 녹취 작업과 결과물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취약청소년의 특징,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실태, 취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관련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필요성,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1-1>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 및 심층면담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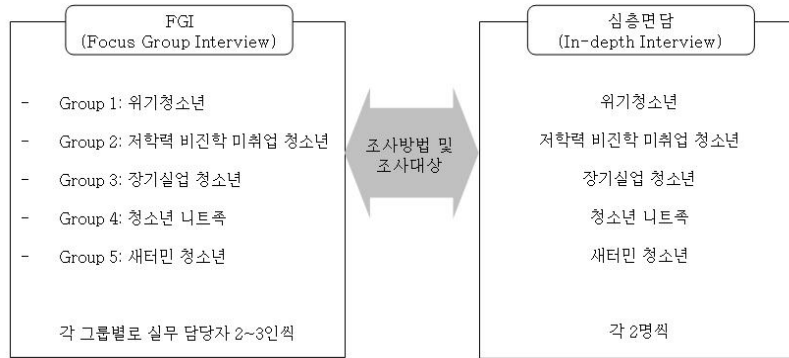
항목	내용
취약청소년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 • 생활습관 • 기초학습능력 및 학습 의지 등 • 직업관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 취약청소년의 학습 환경 및 주된 저해 요인 • 취약청소년의 참여 직업교육훈련 실태 • 취업 장애요인
취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 참여자 특성 및 운영 현황
취약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청소년 직업훈련 관련 정부 지원 현황 • 취약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취약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 사항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관련 정부 지원 개선 사항 •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적/핵심적 지원 사항 및 요구

3)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의 대상은 취약청소년 대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및 민간 위탁 직업훈련 담당자, 대안학교 교사, 새터민 단체 관계자, 위기청소년 보호관찰소 감찰관, 실업대책 전문가 등 12명이다.

또한, FGI의 결과 보완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에서 발생하는 참여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대상자인 취약청소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위기청소년, 대안학교 및 청소년지원센터의 저학력(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으로 취업지원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FGI 및 심층면담은 총 다섯 그룹으로 각 그룹별 2~3인씩 구성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도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FGI 방식을 다소 변형하여, FGI 이전에 사전조사(Pre-Test)를 통해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FGI는 취약청소년 대상 취업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속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2~3인씩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FGI를 위한 사전조사는 2009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FGI는 9월 1일~9월 18일에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은 9월 14일~9월 25일에 실시하였다.

라. FGI 및 심층면담 인터뷰 일시 및 참가자

취약청소년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FGI는 위기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장기실업자, 새터민 청소년으로 구성하였다.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FGI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 및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북부보

호관찰소 책임관과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은 FGI로, 고양보호관찰소 계장은 고양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비진학청소년의 경우 들꽃피는학교와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의 사회복지사는 FGI로, 경기도청소년지원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각 기관에서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니트족 관련 담당자와 장기실업자 관련 담당자 중 뉴스타트 강남센터 담당자는 FGI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담당자는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하나원의 새터민 관련 담당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FGI로 진행하였다.

취약청소년의 경우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수업 또는 교육시간이 끝난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참여 청소년이 교사(담당자)의 사전 컨택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간혹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인 듯 답변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2> FGI 참가자

구분	소속	성별	연령	이름
위기청소년 관계자	북부보호관찰소	남	40	박00
	청소년희망재단	여	53	고00
	고양보호관찰소	남	41	김00
비진학 청소년	들꽃피는학교	남	39	김00
	경기도청소년지원센터	여	45	강00
	한국청소년상담원	여	29	백00
장기실업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여	36	안00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여	33	전00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여	56	안00
청소년 니트족	연세대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여	37	한00
	연세대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여	31	이00
새터민	하나원	여	42	전00
	하나원	여	41	김00

<표 1-3> 심층면담 참여 청소년

구분	이름	성별	연령	소속
위기청소년	이00	남	만 16세	북부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차00	여	만 17세	북부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류00	남	만 16세	청소년희망재단
위기청소년	김00	남	만 16세	청소년희망재단
위기청소년	정00	여	만 17세	청소년희망재단
비진학	김00	남	만 13세	들꽃피는학교
비진학	허00	여	만 19세	들꽃피는학교
비진학	장00	남	만 18세	강서청소년자활센터
장기실업청소년	이00	여	만 17세	소속 없음
장기실업청소년	이00	여	만 17세	소속 없음
청소년 니트족	이00	남	만 17세	강서청소년자활센터
청소년 니트족	이00	여	만 15세	강서청소년자활센터
새터민	유00	남	만 22세	하늘 꿈학교
새터민	김00	남	만 21세	하늘 꿈학교

마. FGI 및 심층면담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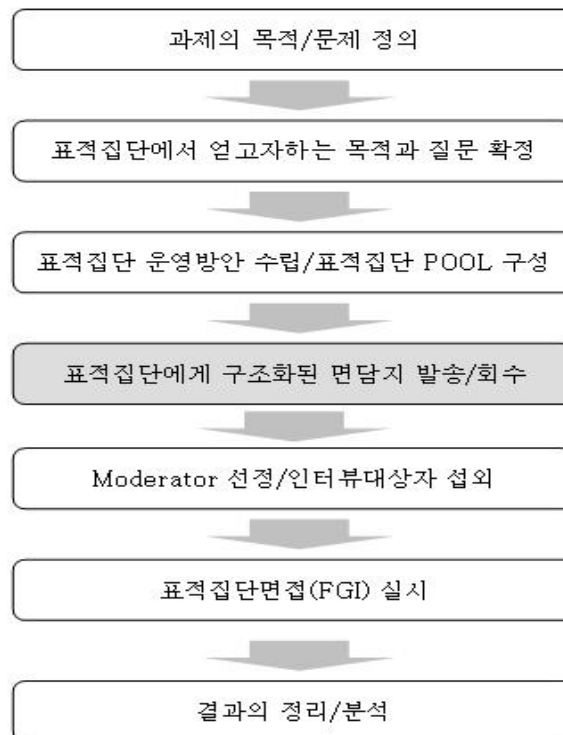
FGI는 일반적으로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예상 결과물에 대한 사전 협의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과 참석 대상 선정, FGI 진행, 결과 정리 및 분석 과정으로 진행한다. 이 연구에서의 FGI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FGI 방법에 사전조사 단계를 추가하여 FGI에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경우,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취약청소년은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본 조사의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정성조사는 보다 구체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시하므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사전적인 가정을 피하고, 정량조사로 간과하기 쉬운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조사에는 크게 진행자의 통제 하에 의견을 개진하는 FGI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자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는 FGD(Focus Group Discussion)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FGI와 FGD의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되,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과 관련된 영역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그림 1-2] FGI 및 심층면담 프레임워크



바. FGI 및 심층면담 프로세스

본 조사에서의 FGI 및 심층면담 프로세스는 준비, pre-test, FGI 진행, 분석의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림 1-3] FGI 및 심층면담 프로세스



사. FGI 및 심층면담 가이드라인

취약청소년 관련 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 및 심층면담은 취약청소년의 특징, 취약청소년을 위한 기관 제공 프로그램 현황,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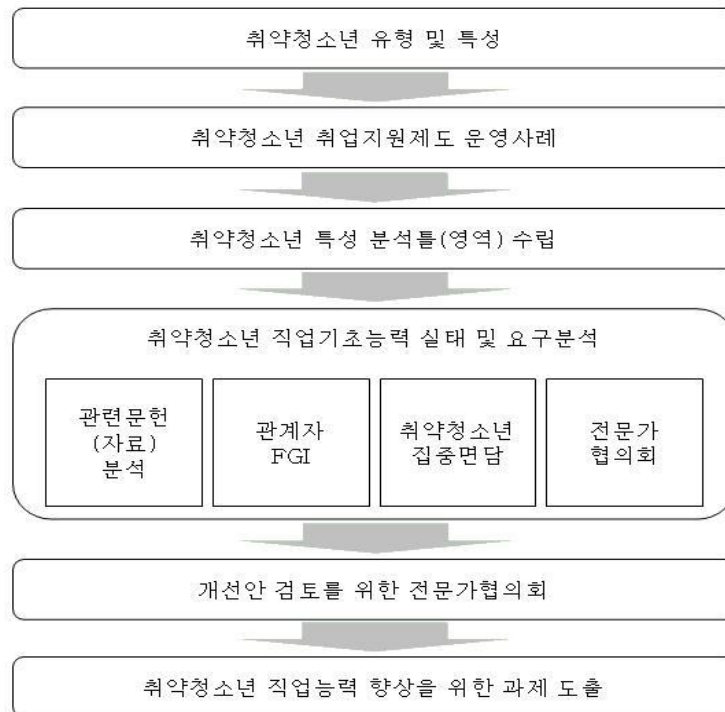
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아. 전문가 활용 사례 분석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실질적 운영사례의 제시를 위하여 국외(일본)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분석의 집필은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취약청소년의 특성

변숙영 · 이종범

제1절 취약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1.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는 영어로 adolescence라 표현하며, 라틴어의 'adocere'에서 유래한 말로, 성장한다(to grow up)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란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로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소년기와 청년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청소년기를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한편 성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른과 어린이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는 '의존'과 '독립'이라는 두 양극 가운데서 내적인 갈등을 겪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정책을 대상으로 한 법적 기준 내 청소년 연령의 범주는 다음과 같

다.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1992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들이 9세 이상부터 회원가입의 자격을 주고, 24세까지를 청소년 범주에 넣는 것은 이때를 전후로 하여 대학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사회제도적인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의 나이와 용어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상 ‘법률행위무능력자’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아동보호법의 경우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을 근로청소년이라고 규정하며 고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5~18세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18세 미만을 금지직종 고용금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범위에 있는 청소년은 크게 9세에서 24세까지로 아동인 동시에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상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단계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만 12~17세에 해당하는 이를 일컫는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 보호기관에서는 만 12~24세까지의 연령범위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아동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자’이며 만 12세에서 만 24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취약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전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기인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적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충분한 준비없이 사회·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경우 실업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사회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들에 대한 준비가 학령기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취업에 취약한 상태여서 사회생활·직업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취업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을 규정짓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이 일상생활은 물론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는 가정과 학교이다. 이에, 가정과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7만 2천 명 수준이며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표 2-1〉 참고).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는 학습부진 및 교사, 교우 관계 등에 따른 학교 부적응과 가정의 실직, 가정해체 등의 가사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정서불안, 학습부진 등)이 42.2%, 가사 사정(빈곤, 가정해체 등)이 31%, 기타(내신사유 자퇴 등)가 16.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영역은 검정고시 및 복학이 56%, 취업소개 및 직업훈련이 44.4%, 경제적 도움이 30.8%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복교 비율이 14%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교 후 재탈락 비율이 20~30%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

<표 2-1>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명,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계	
2006.2	18,403(0.46)	15,669(0.78)	10,166(0.81)	12,910(2.57)	23,076(1.31)	57,148(0.73)
2007.2	23,898(0.61)	18,968(0.91)	12,616(0.98)	15,314(3.10)	27,930(1.57)	70,796(0.90)
2008.2	20,450(0.55)	20,101(0.98)	15,477(1.15)	17,466(3.58)	32,943(1.73)	73,494(0.96)
2009.2	18,132(0.52)	19,681(0.98)	16,174(1.14)	18,099(3.76)	34,273(1.74)	72,086(0.9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회의 보고자료(2009).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능, 자격, 태도, 동기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자의적 실업의 경우,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불건전한 향락산업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즉,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박가열 외, 2007).

이처럼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특성과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이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일원으로 자리잡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은 의문시되고 있다(노경란 외, 2008b).

많은 지원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설정하

고, 대상자 특성과 요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이론적·실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지원책의 대상이 중복적인 경우가 많고 지원내용 역시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범위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약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서는 실업급여 비수급 청년층 중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을 정책 대상으로 정하고 그 연령 기준도 '만 15~29세'의 연령범위에 있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에 취약한'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취약하다'라고 하는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판단 근거와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었다. 이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서는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구분 및 정의

대상자	정의	추정 인원	판단근거 및 준거
장기실업 청소년	미취업 기간 (학교 졸업 후 미취업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	22.8천명 (2006년)	대졸 이상 실업자 중, 6월 이상 구직자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	고졸 이하이면서 진학의사 없고 미취업 상태인 자	316천 명	고졸 이하이면서 진학의사 없고 미취업 상태인 자(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등 포함
니트족	구직단념자, 단기근로 반 복자('쉬었음'에 해당하는 자)	83천 명 *대졸이 상+유휴 비경활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등에 통 학하는 자(※ 취업준비나 취업을 위한 교 육은 니트에 포함)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 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청년층
위기 청소년	자립당면 청소년	40천 명	시설퇴소 청소년(양육시설 퇴소, 가정위 탁 종결 등) 17세 이상 쉼터 이용 청소년 고교 학업중단청소년
합계		619천명	

자료: 노경란 외(2008a).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그러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의 구분 및 정의에 해당되고 취업의 취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한 전문서비스가 선결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업 및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나 동기부여 차원이 아닌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혜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자활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하고 있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서는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을 장기실업 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 니트족, 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 취약청소년을 정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경란 외, 2008a). 미국의 경우 취약청년층 정책대상자는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무료 학교 급식을 받는 자가 해당한다. 즉, ① 저연령(16~21세) 비진학, ② 거주지(예: 도시빈민가, 침체지역), ③ 고교 중퇴, ④ 소수인종, ⑤ 미혼모, ⑥ 특정 연령기의 편부모가정, ⑦ 중퇴 가능성이 큰 재학생(특히 저소득층) 등의 취약성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미국사회에서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을 판단하는 가장 큰 범위의 판단근거는 저소득이며, 여기에 저학력, 인종, 거주지, 저연령 비진학, 전과 경험, 기초기술 부족, 학교 실패 경험(중퇴, 퇴학 등), 가족부양 의무(미혼모) 등을 추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청소년의 취업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① 장애인, ② 전과자, ③ 모국어가 영어 또는 웨일즈어가 아닌 사람, ④ 읽기·쓰기·셈하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시장 정책프로그램에서 특화할 필요가 있는 취약 대상을 ① 청년층 내 연령의 고저, ② 교육수준(저학력), ③ 기술수준, ④ 저학력 미진 학자, ⑤ 학교중퇴자, ⑥ 청소년 범죄 경험 유무, ⑦ 약물중독 유무, ⑧ 노숙자 등을 들고 있다.

일본의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대상은 ① 교육수준(저학력), ② 구직활동의 경험 여부, ③ 직업훈련의 경험 여부, ④ 결혼 여부, ⑤ 취업의

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즉, 국·내외 문헌 및 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청소년은 저연령 비진학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범죄 또는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 취업의지가 없는 청소년 등으로 요약된다.

이 연구 역시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 과제를 제안하는 연구로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의 유형 및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취약청소년 전문가의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정책에서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남북 분단의 우리나라 특수상황을 고려한 새터민 청소년을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에 포함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새터민의 규모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내 입국 탈북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들은 남한사회의 경쟁적인 교육열과 개인주의적 학교분위기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 수준과 높은 자진탈락률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학교-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효과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을 '만 12세에서 만 24세 미만의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으로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기청소년

넓은 의미에서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란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된 과제들의 수행을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 현재와 미래의 적응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OECD(1999)의 경우, 위기청소년이란 학교에서의 실패로 노동과 성인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실패하여 그 결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 생활에의 적응 여부’가 위기청소년의 개념 정의에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스위스는 위기청소년을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직업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직업교육 중퇴자,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으나 실업자인 청소년 등으로 학업, 직업교육 중단과 실업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 청소년, 가출 청소년, 미혼모나 임신학생, 국제난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청소년, 약물 복용 청소년, 무단결석자, 퇴학자, 학습부진아, 학습장애 청소년,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낮은 자존감과 동기 등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등을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습부진과 학업 중단자 뿐 아니라 요보호청소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 성, 약물, 가출 등 행동적, 심리·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미국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 담당국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비행행동이나 불법행동을 저질러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않지만, 비행행동을 저지를 잠재성과 위험요인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위기청소년은 개인, 가정, 지역사회 및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 및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어 학교생활 및 학업에 부적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전한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학교로부터 이탈하였거나 학교에 적응 못하고 실제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은 취약청소년의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기청소년은 보통의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하여 아무런 자립 준비

도 없이 성인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로준비를 거친 사람들과 생존 경쟁사회에 내몰리게 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청소년은 학교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가출, 학업중단 등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기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 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군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체 위기청소년의 수는 약 9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표 2-3〉 참고), 구체적으로 고위기 청소년의 주요 발현 위기 유형은 인터넷 중독(25.8%), 가출(23.1%), 학업중단(21.3%), 자살충동(1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위기 청소년의 39%는 두 가지 이상의 위기 유형을 가지며, 그 중 학습중단과 가출을 포함하는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

<표 2-3> 위기청소년의 규모

(단위: 명,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위기청소년
전체	대상	전체	대상			
만 9-12세	상대적 빈곤	만 12-18세	소계	고위기	잠재위험	
2,619,196	214,774 (8.2%)	4,197,599	713,591	167,903 (4%)	545,688 (13%)	928,36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회의 보고자료(2009).

보호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박영신·김의철(2001)의 연구에 의하면 폭력 대처 효능감,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도덕적 이탈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위기청소년은 자기조절 효능감이나 어려움 극복 효능감은 더 낮고, 폭력 대처 효능감이나 도덕적 이탈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은영·마동훈·김철규(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 정도가 PC방이나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지낸다는 연구결과(탁수연·박영신, 2004)와 연결지어 볼 때, 위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충동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위기청소년들은 학교에 적응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범법행위로 인정되는 폭력, 절도 등의 문제 행동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위기청소년 관계자 FGI와 위기청소년 집중면담을 통해 도출된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소에 오는 경우는 특수절도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 단순 절도, 폭력의 세 가지 유형인데요, 가장 많은 것이 특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예외적으로 성폭력도 있고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직업 분포로 보면, 학생 50%, 무직자 50% 정도인데요, 일반 정규학교는 거의 없고 대안학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 검정고시생 등이 많죠.”(위기청소년 관계자)

“상당수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칙을 위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학생들이 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검찰에서 본 범죄소년이나 구속된 아이들에 비해 학교 교칙을 위반해서 오는 아이들이 훨씬 다루기가 힘들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위기청소년의 많은 수가 편부·편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모가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보호와 보살핌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의 분리 및 방임 등의 경험은 기본적인 예절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학

교 및 사회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정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적인 지원이 미비했고, 경제적으로 거의 대부분 최하위 계층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해요. 그렇다보니까 주위의 또래집단에 불량배가 많고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게 악순환 돼요. 학교에 가서도 기초학력이 없으니까 적응이 힘들고, 생활습관도 불규칙하고, 나태하고, 친구랑 어울려 늦게까지 노니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하면 지적 받고… 이게 악순환이 되죠. 탈피를 못해요.”
(위기청소년 담당자)

“저희 사무실에 오는 애들 중에 상당수 애들이 밤에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에 못 가요. 아침에 깨워줄 사람이 없고, 부부가 다 일을 나가거나, 조손가정이 많고, 어떤 아이들은 혼자 사는 애들도 많고,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몇 대 맞고 귀찮아서 안 가니까 이런 게 습관이 되어서…”(위기청소년 담당자)

“예를 들어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밥 먹을 때 식사 예절도 모르고, 그런 것을 생활하면서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돼요.”(위기청소년 담당자)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 집중면담 결과, 위기청소년의 다수는 정규 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장은 있어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도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을 못하고, 휴

학·자퇴하는 애들이 많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는 후회하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생각하면 머리 아파서 다시 검정고시를 보고, 검정고시를 봐서 취직한 애들도 있어요. 애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고, 졸업장도 따고 싶어 해요.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도 그거는 창피하게 생각해요.”(위기청소년 담당자)

“학교는 가기 싫는데…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제 미래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취업이 될 거 같아서요.”(위기청소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최소한 고졸은 해야 한다. 중졸이면 인간쓰레기’라는 말이 인식이 되어서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위기청소년)

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으로 탈학교하였거나, 현재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한다(노경란 외, 2008b).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다수는 결손가정, 부모의 방임, 학대 등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는 대안학교나 청소년지원관 등이 있으며, 지자체를 통하여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그룹홈에 입소하거나, 이들 중 비진학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대안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청소년지원관의 경우, 수급가정의 자녀들로 자활에 참여하는 부모의 자녀이거나, 학교나 공적 체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고졸 이하의 청년층 학력별 노동시장 실업률을 비교한 <표 2-4>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고졸 8.3%, 중졸 10.4%, 초졸 이하 14.3%).

<표 2-4> 고졸 이하 청년층의 세부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구분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초졸 이하	7.0	14.3	6.0
중졸	7.8	10.4	7.0
고졸(순수)	69.8	8.3	64.0
전문대 재학	29.8	11.7	26.3
전문대 중퇴	72.9	10.2	65.4
전문대 휴학	65.1	8.6	59.5
대학교 재학	23.1	10.3	20.7
대학교 중퇴	70.6	6.9	65.7
대학교 휴학	51.4	10.5	46.0

자료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재구성.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고졸에 비해 중졸·초졸 이하의 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2007년과 2008년의 정규직 비율을 비교·분석하였을 경우, 2008년의 정규직 비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표 2-5> 고졸 이하 청년층의 세부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고용의 질

구분	2007년(8월)				2008년(8월)			
	정규직 (천명)	비정규 직 (천명)	정규직 (%)	비정규 직 (%)	정규직 (천명)	비정규 직 (천명)	정규직 (%)	비정규직 (%)
초졸 이하	12.3	6.8	64.5	35.5	11.4	8.0	58.7	41.3
중졸	70.0	55.8	55.6	44.4	53.9	63.5	45.9	54.1
고졸(순수)	1052.5	354.5	74.8	25.2	908.3	372.9	70.9	29.1
전문대 재학	55.9	77.8	41.8	58.2	48.0	68.3	41.3	58.7
대학교 재학	65.3	194.5	25.1	74.9	59.4	176.3	25.2	74.8
전문대 중퇴	26.6	10.1	72.5	27.5	35.2	15.8	69.0	31.0
대학교 중퇴	34.3	8.3	80.5	19.5	45.8	16.4	73.7	26.3
전문대 휴학	34.2	40.2	46.0	54.0	51.1	33.0	60.8	39.2
대학교 휴학	73.6	77.2	48.8	51.2	73.1	76.0	49.0	51.0
전 체	1424.7	825.1	63.3	36.7	1286.3	830.3	60.8	39.2

자료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재구성.

이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일수록 고졸의 학력자에 비해 실업률이 높으며, 비정규직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 고용의 질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저학력의 비진학 청소년은 취업에 매우 취약한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A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연령은 16~18세가 가장 많으며, 탈학교하는 학생의 증가로 기관을 찾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들꽃피는학교 내부자료, 2008).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관계자 FGI 및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면담을 통해 나타난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룹 홈에 입소하는 학생 중에서 비진학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로 옵니다. 평균 거주 기간은 4년이고요, 길게 거주하면 중1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이 되는데, 보통 중3, 16세 정도가 가장 많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중1만 해도 친척이나 주변 분들의 보살핌이 가능한데 그 이후는 어려워요.”(대안학교 교사)

“자활에 참여하는 분의 자녀나 동사무소, 학교나 공적 체계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에서 여건이 비슷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은 주로 빈곤계층의 자녀들이 많으며 부모의 방치, 학대, 폭력 또는 부모의 기능장애 등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가정 해체, 빈곤의 경험이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에서 장애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건전한 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여섯 번의 전학을 다녔어요. 제가 가출을 하면서 학교를 이리저리 옮겼는데, 처음에 잘 다니다가 적응이 될 때쯤 옮기고 해서 학교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2000년도에 집을 나왔어요. 보육원에 갔다가 거기서 가출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대안학교 학생)

“어떤 가정의 애들이 두 명인데 고등학교 연령이었어요. 이웃에 의해서 저희 기관에 알려졌어요. 애들이 집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이사를 오면서 전학에 신경을 못 써서 상급학교로 가지 못하고 집에 남매끼리만 몇 년을 있었어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보통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학업을 중단한 것은 그 정도지만, 아이들이 빈곤이나 가정해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방임의 과정을 겪었어요. 지적으로 발달할 뇌와 자극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대안학교 교사)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도 많고, 정상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있으나마나 한 가정이 있어요. 애가 대들고 뛰쳐나가고, 들어왔다가 또 뛰쳐나가고 하니까 이제 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도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부모님이 적지 않아요.”(청소년상담원 교사)

그러나, 상당수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공부가 싫어 학교를 벗어났지만, 장래를 위해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장래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졸업장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진짜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다들 하는 분위기고, 저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었어요. 내가 딱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요.”(대안학교 학생)

“학교를 그만둘 때는 공부가 싫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앞으로 할 일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학교 나이를 안 넘은 사람은 나랑 몇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일찍 준비하니까 검정고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나이를 넘은 18살이 되면 우리말로 풀린다는 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자립 때문에 느끼는 사람이 있고...”(대안학교 학생)

다. 장기실업 청소년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는 일정한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구직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되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장기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의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는 니트족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의 장기실업 청소년은 취약청소년 중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의 구분을 위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24세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 청년패널 자료에 의하면, 미취업자(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6개월 이내 구직경험자)의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12.4개월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기간 범주별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인 경우(48.7%)가 가장 많았지만, 6개월에서 1년 미만 23.0%, 1년에서 2년 미만 14.4%, 2년 이상이 13.9%로 나타났다.

특히 23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구직과정 6개월 미만이 6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6개월~1년 미만은 25.6%로 나타났다.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직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표 2-6〉 참조).

<표 2-6> 미취업자의 구직 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평균 구직 기간
성 별	남	140,565 (53.9)	56,857 (21.8)	33,790 (13.0)	29,348 (11.3)	260,560 (100.0)	11.1
	여	91,716 (42.3)	52,731 (24.3)	35,113 (16.2)	37,185 (17.2)	216,745 (100.0)	13.9
연 령 별	23세 이하	53,794 (61.6)	22,394 (25.6)	9,208 (10.5)	1,963 (2.2)	87,359 (100.0)	7.0
	24-26세	105,486 (48.6)	50,356 (23.2)	32,211 (14.8)	29,166 (13.4)	217,219 (100.0)	11.8
	27세 이상	73,001 (42.3)	36,837 (21.3)	27,484 (15.9)	35,405 (20.5)	172,727 (100.0)	15.8
학 력 별	고졸 이하	110,844 (55.3)	37,981 (19.0)	28,293 (14.1)	23,232 (11.6)	200,350 (100.0)	11.1
	초대 졸	68,221 (58.6)	25,316 (21.7)	10,802 (9.3)	12,134 (10.4)	116,473 (100.0)	11.2
	대졸	52,737 (33.6)	46,291 (29.5)	27,796 (17.7)	29,985 (19.1)	156,809 (100.0)	14.6
	석사 이상	479 (13.0)	-	2,013 (54.8)	1,183 (32.2)	3,675 (100.0)	19.9
전체		232,281 (48.7)	109,588 (23.0)	68,903 (14.4)	66,533 (13.9)	477,305 (100.0)	12.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7 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p.210.

나영선 외(2003)가 장기실업 청년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심장이 마구 뛰거나, 잘 다툰다 등의 증상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에 희망이 없다, 신경이 예민하다, 짜증이 난다, 율화가 치민다 등의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 구직자의 사회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하므로 직업상담 활동의 활성화,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적용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청년을 학력집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의 60%를 넘고 있다. 또한 전문대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실업률은 6%에 불과하나, 고졸 청년의 실업률은 9%에 육박하며, 중졸 이하 청년의 실업률은 10%를 넘는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7〉 참조).

<표 2-7> 학력별 실업자,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인구수		비율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실업자	고졸(순수)	132	136	61.1	60.6
	전문대 재학	14	16	6.7	6.9
	전문대 중퇴	5	7	2.2	3.0
	전문대 휴학	9	10	4.3	4.5
	대학교 재학	36	30	16.5	13.4
	대학교 중퇴	5	5	2.4	2.3
	대학교 휴학	15	21	6.9	9.3
	전체	216	225	100.0	100.0
취업자	고졸(순수)	1,697	1,503	69.7	65.4
	전문대 재학	117	117	4.8	5.1
	전문대 중퇴	46	58	1.9	2.5
	전문대 휴학	86	107	3.5	4.7
	대학교 재학	274	264	11.3	11.5
	대학교 중퇴	51	68	2.1	3.0
	대학교 휴학	163	180	6.7	7.8
	전체	2,434	2,297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재구성.

장기실업 청소년의 취업지원 관계자 FGI와 장기실업 청소년 집중면담을 통해 도출된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저희는 강남지역이라 뉴스타트 모집이 안 되고, 고졸 이하 비율이 30% 미만이에요. 더 모집하려고 해도 고졸 이하가 안 와요. 되도록 고졸 이하를 하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고졸 이하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고 휴학 중인 경우가 많죠…”(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저희는 일반적으로 실업계 야간고 애들을 상담했어요. 그런 애들은 야간고가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예요. 대안학교는 아닌데, 학력인정 고등학교예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기실업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강남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으나, 강남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편이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는 돈을 벌어야 하고,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 돈을 벌고 저녁에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조기 유학을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학생들도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실업 청소년으로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정말 낮에 돈을 벌어야 하고 혼자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어요. 취업은 원하는데, 뭐 딱히 내세울건 없고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죠.”(실업극복단체 담당자)

“고졸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오는 애들도 있고, 외국에 가서 대학 못가고 적응 못해서 다시 온 애들도 꽤 많았어요. 나이 어린 애들의 퍼센트로 보면,

그런 애들이 섞여 있고, 갑자기 집이 가난해져서 돌아오게 된 애들도 있고, 그래도 제일 많은 애들은 전문대학이든 어디든 다니고는 있는데, 흥미는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취직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 애들이죠...”(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라. 청소년 니트족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는 뜻의 신조어로 16~18세 청소년 가운데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1999년 영국에서 유래되었다(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일본에서는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연령이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은 자'로 니트족을 정의하고 있다(김기현, 2005; 노경란 외, 2008a).

한편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니트족의 개념으로 정인수 외(2006)는 취업자가 아닌 15~34세 개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 가사나 육아를 하지 않고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노경란 외(2008b)는 한국형 니트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개인 가운데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등에 통학하는 자(취업 준비나 취업을 위한 교육은 니트에 포함됨),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취업 희망 의사표명과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구직형 니트(가족노동형, 무급가족종사자 중 지속적 구직활동자, 가사노동자, 실업상태의 구직활동형), 비구직형 니트(합정형, 현실회피형)로 구분하였다.

청소년 니트족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즉 진로 경로에 대한 파악, 현재의 생활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 향후 진로계획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찍이 니트족 문제에 주목했던 일본에서는 니트족에 대한 이

해와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니트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니트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 니트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형 니트족의 증가는 고부가가치형 노동수요 증가 및 경기 후퇴, 고용관행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학교 교육의 부적절함, 가정, 사회 분위기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2005)은 일본형 니트족의 문제가 무위도식이 가능한 부유층 집안 출신의 청년실업자이거나 천성적으로 직업 갖기를 거부하는 계층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형 니트족의 대다수가 저소득 계층 출신으로 낮은 학력을 갖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는데, 이들은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해 취직활동을 포기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니트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일본의 경우, 니트족을 비행형(중·고등학교 중퇴자가 많으며 부모의 경제력이 높지 않고, 반사회적이며 그 순간만을 만족하려 함), 자신상실형(취직을 한 후에도 곧 직장을 그만두며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망설임), 히키코모리형(은둔형 외톨이로 등교 거부를 하거나,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낌), 자아실현 추구형(대졸자가 많고 구직활동에 있어 만족스러운 직장에 집착함)으로 나누고 있다. 일본형 니트족 증가의 외적인 요인은 경제침체에 따른 직업부족, 학교-기업 간 연관성의 약화, 불황 지속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감소, 고용에 관한 규제완화 및 영업, 폐점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파트타임의 증가, 청소년 노동시장의 침체,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자립능력 결핍을 들고 있다. 반면, 내재적인 요인으로는 청소년 문화에 소비문화의 침입, 집단주의의 강조보다는 각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가정과 교육의 풍토와,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하는 젊은이의 가치관의 변화, 청소년의 적극적인 직업탐색 노력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김기현(2005)은 고등학생 문화의 소비성을 강조하여, 학교생활의 관심 저하는 학

교 출석률 저하로 이어지고, 진로와 직업의식이 저하되어 개성존중의 교육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단일한 진로 및 직업의식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직업선택 시 근무시간 및 휴일이나 복지시설에 초점을 두어 결국 직업선택의 유예를 가져오게 된다. 일본 기업은 채용 시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는 어학능력,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청년의 직업 탐색 시간 및 기업 요구 충족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 니트족은 '08년 상반기에 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청년실업자 32.8만 명의 세 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실업을 대비 니트족은 대졸자 3.1배, 고졸 2.5배, 전문대졸 2.3배순으로 나타나, 대졸자들이 실업상태를 받아들이기보다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08년 청년실업대책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 상태를 취업준비, 구직단념, 쉬었음 등으로 응답한 청년들을 청년 취업애로층으로 분류하고, '08년 상반기 청년 취업애로층이 108.2만 명이고, 여기에 취업자로 분류된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4.9만 명)'를 합치면 청년 니트족은 113.1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표 2-8> 청년 취업애로층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상반기
실업자(A)	401	412	387	364	328	328
구직단념자(B)	31	30	32	33	30	32
취업준비자(C)	268	297	351	413	417	477
쉬었음(D)	225	258	278	258	245	245
취업애로층(A+B+C+D)	925	997	1,048	1,068	1,020	1,082

자료: 정부(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학력별 니트족의 실업률을 비교분석한 연구(조준모, 2009)에 의하면 고졸자

의 니트율(23.01%)과 실업률(9.03%)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력별 니트율은 고졸 23.01%, 대졸 13.91%, 전문대졸 12.58%이며, 실업률은 고졸 9.03%, 전문대졸 5.49%, 대졸 4.54%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대비 니트율은 대졸자 3.1배, 고졸 2.5배, 전문대졸 2.3배순으로, 대졸자들이 실업상태를 수용하기보다 취업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졸의 니트율과 실업률이 높음은 저학력 니트족일수록 실업률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9> 학력별 니트율 및 실업률

구분	니트율 (%)	실업률 (%)	니트/실업(배)
고등학교졸	23.01	9.03	2.5
전문대졸	12.58	5.49	2.3
4년제 대졸	13.91	4.54	3.1

주: 니트율 = (한국형 청년니트 해당자수) ÷ (전체 청년인구수)

실업률 = (청년실업자수) ÷ (청년실업자수 + 청년취업자수)

자료: 조준모(2009).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노동부.

이렇듯,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니트족의 증가율과 실업률로 미루어 특히 학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 니트족 역시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 분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니트족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내성적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경제적 문제를 가족이나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니트족은 무의지, 무능력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둔형과 아주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만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은둔형 니트족의 경우 발굴되는 시기가 20대 초반이 많아 사회 부적응 상태가 지속된 이후에 개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인터넷이나 게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에 은둔이 깊어질수록 타인

과의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이 쉽지 않게 된다.

니트족 지원 관계자 FGI와 청소년 니트족 면담결과 도출된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무의지·무능력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면, 그런 아이들은 은둔형으로 분리를 하고, 아주 일시적으로 조금 일을 하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는 애들이에요. 정규적인 노동을 하지는 않고,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애들이에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발굴된 애들은 20대 초반이 많아요. 인터넷, 게임 중독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터넷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잠만 자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관련된 것을 하기는 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정신적인 지체나 문제 상황이 아니고는 거의 뭐를 하는데 그게 거의 인터넷이에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일반적으로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학교 밖이 많은데, 이들은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단계를 거쳐 니트족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학교 부적응을 거쳐 학교를 자퇴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이후에 바깥에서 놀거리를 찾기보다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청소년은 최근 2년 사이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잘 졸업하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 비진학 친구들이 그 단계를 밟아서 가다가 나중에 20대 초반에 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제가 만난 니트족 아이들이 학교 밖의 아이들이었어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니트족이 우리가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부쩍 많아지고 있어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애들이 너무 개별화되어 있어요. 가난해도 형제가 많은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청소년 니트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많으며,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학교 부적응, 탈학교, 은둔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가족과의 불화를 경험하였고, 가족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특히 필요하다.

“대부분 부모님이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많으니까 도저히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서 발굴되는 경우가 있어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동사무소에서 수급 체크하러 갔다가 발굴되기도 하고, 폭력 방임을 다루는 곳에서 발굴되기도 해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중학교까지 다니고 안 갔어요. 학교를 많이 안 가서 내신이 100%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 안 갈 때는 집에 있거나 밖에서 친구랑 놀거나 했어요... 학교 그만둔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청소년 니트족)

마. 새터민 청소년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용어는 ‘탈북자’, ‘망명자’, ‘귀순자’, ‘탈북난민’, ‘탈북주민’, ‘탈북동포’, ‘귀순북한동포’, ‘새터민’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발생 시기, 당사자의 신분, 탈이데올로기 여부 등에 따라 붙여진 것들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 탈출자에 대한 일반적 용어는 ‘탈북자’이지만, 정부는 탈북자가 갖는 부정적 의미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면서, 현재 정부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 행정적 측면의 공식적 표현은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새터민은 1,990명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10명 이내로 입국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매년 수십 내지 수백 명이 입국을 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이 입국을 하고 있다(〈표 2-10〉 참조).

<표 2-10>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연도	1989	1993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0	계
인원(명)	607	34	306	1,043	1,139	1,281	1,894	1,383	2,019	1,990	11,696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과(2007.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2007년 10월).

이러한 새터민 입국자들의 양적인 증대에 따라 새터민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2007)에 따르면, 10~29세의 새터민 청소년은 2007년 10월

까지 4,768명(전체 입국자의 40.8%)이 입국하였으며, 현재 국내 입국을 준비 중이거나 중국 등에 머물러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 새터민 청소년 규모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만 13~18세가 31.0%, 만 19~24세가 48.8%로 청소년층과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2〉 참조).

<표 2-11> 새터민 연령별 입국 추이

연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10-29세 비율
1998년	21	129	392	253	88	50	14	947	55.0
1999년	12	14	48	41	15	7	11	148	41.9
2000년	14	48	73	100	44	19	14	312	38.8
2001년	43	91	158	172	54	25	40	583	42.7
2002년	55	154	332	368	129	61	40	1,139	42.7
2003년	46	161	345	447	160	57	65	1,281	39.5
2004년	69	247	494	643	260	85	96	1,894	39.1
2005년	40	184	374	475	187	53	70	1,383	40.3
2006년	84	259	527	688	258	73	130	2,019	38.9
2007년10월	60	224	514	707	327	73	85	1990	37.1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과(2007.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2007년 10월)』.

<표 2-12> 새터민 청소년 연령별 인원 현황

구분	만 0-6세	만 7-12세	만 13-18세	만 19-24세	계
인원(명)	121	299	646	1,017	2,083
비율(%)	5.8	14.4	31.0	48.8	100.0

주: 2007년 6월 30일까지 입국한 새터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과(2007. 12). 상계서 p.3 재인용.

새터민 청소년은 입국 후 하나원에서 12주의 교육기간을 거쳐 5년간의 보호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 동안에 취업보호, 의료보호, 생계보호, 교육보호가 이루어지고 보호담당관이 지정된다. 12주 동안의 교육을 살펴보면, 1~2주차는 하나원에서 심리, 진로, 기초 교육을 받고, 3~10주차에는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학습교육을 받게 된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기초교육을 받는 디딤돌 형태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거쳐 다시 하나원에서 심리 및 진로와 관련된 마무리 교육을 거쳐 퇴소하게 된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35세 미만까지는 대학 입학 시 특례를 받게 되고, 재학 중에도 학비지원을 받고 있다.

새터민 청소년의 입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학교를 다니는 새터민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4월 현재 263개 기관에 710명의 학생(초등학교 341명, 중학교 232명, 고등학교 114명, 평생교육시설 2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2006년 5월에 비하여 학교 수는 34.0%, 학생 수는 43.7%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새터민 청소년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5년 8월에 비해 2007년 4월의 취학률이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6~21세 연령대의 새터민 청소년의 두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이 정규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청소년들의 낮은 재학률의 원인 중 하나는 남북한 학제의 차이와 탈북청소년들의 나이와 학년의 불일치이다. 이 불일치는 남한 학교에 입학할 때 첫 걸림돌이자 이후의 적응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새터민 청소년이 남한에 입국하여 학교에 편입학한 이후 겪는 가장 주된 어려움은 학업적인 문제이며, 이는 높은 중도 탈락률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7년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6학년도 새터민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10.1%, 고등학교 12.8%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남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인 중학교 0.8%, 고등학교 1.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새터민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거나, 교사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받는 데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터민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거리는 공부·학교성적 문제, 진학·진로 문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적되었다. 힘들게 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새터민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으로 이행 또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장벽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은 많은 새터민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 진학 또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둔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뷰 방법이나 이력서 쓰는 법 등의 구체적인 취업준비에 관한 특강’이나 ‘산업체 현직자나 대학 재학생과의 1:1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많은 새터민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호소하고 있어,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은 교육-진로-복지의 복합적인 지원이 제안되었다(최동선 외, 2007).

즉,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하는 새터민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역량과 준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터민 청소년 관계자 FGI와 새터민 청소년 집중면담을 통해 도출된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어린 시절을 체제가 다른 곳에서 성장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낸 경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바로 입국하기 보다는 제3국에서 오랜 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제3국에 있는 동안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많다.

“1995년 후반에 부모들이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5년 가까이 체류하다가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래에 아이들이 입국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근래예요. 엄마랑 헤어진 것은 7~8세지만 떨어져 지낸 것은 심지어 10년 이상이에요. 엄마 얼굴도 잊었고, 엄마가 생각하는 아들과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달라져 있어요.”(하나원 교사)

“어머님을 제외하고 동생과 아버님 세 명이 왔어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제 3국에서 9년간 생활하다 왔어요. 제3국에서 15세부터 25세까지 있었어요. 9년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계속 일만 했어요.”(새터민 청소년)

“저는 중국에서 10년 있었어요. 나올 때 동생이랑 저만 나오고 부모님은 다 북한에 계셨어요. 부모님 모셔오려고 계속 일을 했어요.”(새터민 청소년)

이들은 북한체제의 특징 상 권위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체화된 경우가 많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역시 무조건 복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자녀 양육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탈북자 부모는 자기가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이 ‘무조건 너는 부모님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강해요. 자녀가 잘 못 하면 맞아야 하고, 소리 지르면 들어야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해요… 한국 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하나원 교사)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고 표현하는 새터민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기의 과업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너희 때문에 왔다는 압박과 푸시가 가고, 아이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하나원 교사)

제2절 취약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

1. 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

취업에 취약한 취약청소년(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 등)의 취업특성과 그 실태를 심도 깊게 탐색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 및 청년층의 취업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청소년의 취업특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직현황, 희망직업, 직업훈련사항, 경력사항과 정부실업대책,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취업특성을 통해 살펴본 청소년의 취업특성은 다음과 같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대상학교별 구직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4년제 대학교, 전문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50% 이상이 구직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55% 이상이 구직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인문계 고등학교 14.5%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2-13〉 참조).

이는 직업을 목표로 한 기초기능인으로 양성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재학기간 중 자의든 타의든 직업체험 및 구직정보를 접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하고자 시도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됨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2-13> 구직활동 여부

구분	전체	구직활동 해봄		남성 (%)	여성 (%)
	응답수	응답수	%		
4년제	1,078	621	57.6	52.0	48.0
전문대	1,266	739	58.4	41.9	58.1
전문계 고등학교	664	370	55.7	53.0	47.0
인문계 고등학교	455	66	14.5	49.8	50.2
전체	3,463	1,796	51.9	51.7	48.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34.

주요 구직경로는 연고를 통한 구직이 40.5%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의 구인, 구직정보를 통해(23.5%),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 및 면담을 통해(1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4> 주요 구직 경로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연고를 통한 구직경로	1,391	40.5	27.7	38.9	61.1	45.1
인터넷의 구인, 구직정보를 통해	808	23.5	34.4	25.6	6.1	16.7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 및 면담을 통해	666	19.3	18.6	20.6	15.9	22.6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247	7.2	10.8	6.5	7.1	0.5
신문, 잡지 등의 구인, 구직정보를 통해	114	3.3	2.1	3.0	3.8	6.3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64	1.9	0.6	1.3	4.2	3.2
공공/시설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42	1.2	2.0	1.2	0.2	1.1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통해	34	1.0	1.4	0.9	0.6	0.7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29	0.8	1.0	1.2	0.3	0.2
직업훈련과정에 참가	24	0.7	0.7	0.1	0.3	3.2
기타	23	0.7	0.8	0.7	0.5	0.5
전체	3,442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35.

주요 구직 경로에 대해서는 연고를 통한 구직의 경우(〈표 2-15〉 참조) 학교 선생님의 소개 및 추천이 가장 높았다. 그 밖의 구직 경로로는 인터넷의 구직정보를 통해,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를 통해, 학교 내 직업소개기관을 통해서가 모든 응답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 이상 응답자들은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한 구직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나 면담도 높게 나타났다(〈표 2-14〉 참조).

<표 2-15> 연고를 통한 구직 경로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연고를 통한 구직 경로	1,391	40.5	27.7	38.9	61.1	45.1	
연고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 및 추천	687	20.0	9.3	21.9	38.8	12.2
	친구나 선배의 소개 및 추천	318	9.2	9.6	8.1	9.1	12.0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 및 추천	305	8.9	6.0	6.2	11.5	19.5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및 추천	81	2.4	2.8	2.7	1.7	1.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35.

자주 이용하는 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가 높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주 이용하는 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표 2-16〉 참조). 이는 구직 경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경우 구직을 위해 구직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6>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1,447	42.3	51.1	51.3	20.3	26.9
해당사항 없음	762	22.3	12.4	13.4	38.8	47.9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	501	14.6	20.4	11.5	16.5	6.7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289	8.4	7.5	11.5	6.3	5.1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	213	6.2	3.2	6.3	9.6	8.6
기타	209	6.1	5.4	5.9	8.5	4.9
전체	3,421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36.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빈도에 대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월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월 1~2회가 가장 높았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2~3개월에 1회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17> 참조).

<표 2-17>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빈도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월 4회 이상	782	23.4	38.5	22.9	10.3	6.2
월 3~4회	556	16.7	14.9	18.7	16.7	14.8
월 1~2회	1,188	35.6	27.9	39.1	43.2	33.5
2~3개월에 1회 이하	812	24.3	18.7	19.3	29.8	45.5
전체	3,338	100.0	100.0	100.0	100.0	100.0
월평균(회)	2.3		3.1	2.2	1.7	1.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37.

구직정보 시 어려운 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높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2-18〉 참조). 연령이 낮을수록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의 정보 습득 경로조차 모르는 등 취업관련 정보수집에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2-18> 구직정보 수집 시 어려운 점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흩어져 있음	1,434	42.0	50.3	46.3	26.7	31.9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모름	1,055	30.9	22.6	26.0	43.2	46.9
어려움 없음	471	13.8	14.4	13.3	15.3	11.2
학교 취업정보실에 관련 자료 부재	252	7.4	6.6	8.1	9.4	4.2
기타	205	6.0	6.1	6.3	5.3	5.8
전체	3,417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37.

한편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관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 비해 전문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졸업 후 취업이 아닌 진학에 매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표 2-19〉 참조).

<표 2-19>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한 경험 여부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없음	2,625	75.7	67.5	75.9	84.5	82.1
재학/휴학 중 받았음	727	21.0	29.6	19.7	13.1	15.8
졸업/중퇴 후 받았음	60	1.7	1.5	2.3	1.5	1.1
재학/휴학 중 졸업/중퇴 후 모두 받았음	54	1.6	1.5	2.1	0.9	1.1
전체	3,466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52.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과 관련하여, 사설학원이 모든 응답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응답자와는 달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비영리단체나 민간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표 2-20> 참조).

<표 2-20>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				
사설학원	463	55.9	62.4	55.2	46.0	43.2
공공기업훈련기관	122	14.7	10.9	15.1	7.0	39.5
기타	79	9.5	8.3	11.0	15.0	2.5
비영리단체	56	6.8	6.6	5.4	15.0	2.5
민간직업전문학교	55	6.6	4.6	5.4	15.0	9.9
사업체 훈련기관 또는 사업체 부설연수	53	6.4	7.2	8.0	2.0	2.5
전체	828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52.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로는 컴퓨터 분야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 분야,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21〉 참조). 이는 최근 IT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로 인해 컴퓨터 관련 교육을 많이 이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21>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				
컴퓨터 분야	251	30.2	28.2	32.1	41.7	17.1
어학 분야	188	22.6	37.6	12.0	14.6	7.3
서비스 분야	99	11.9	6.3	13.4	15.5	25.6
기타	67	8.1	9.2	7.0	7.8	7.3
경영 및 사무 분야	62	7.5	9.2	8.0	3.9	2.4
예능 분야	51	6.1	5.2	7.7	5.8	4.9
전기 및 전자 분야	38	4.6	2.3	6.0	2.9	11.0
기계 분야	33	4.0	1.1	5.7	1.9	12.2
보건 및 의료 분야	26	3.1	0.6	5.0	3.9	6.1
운전 분야	13	1.6	0.0	2.7	1.0	4.9
금속 및 비금속 분야	4	0.5	0.3	0.3	1.0	1.2
전체	832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53.

직장체험 장소로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이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현장실습, 임시·일용·파트타임으로의 취업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현장실습의 비중이 다른 학생들보다 높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22〉 참조).

<표 2-22> 직장체험 장소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	679	41.1	37.7	38.2	49.5	63.0
학교의 현장실습	384	23.2	12.9	27.9	34.9	12.3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의 임시, 일용, 파트타이머로 취업	363	22.0	25.7	24.0	11.6	13.6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168	10.2	18.9	6.9	1.8	8.6
기업인턴	58	3.5	4.8	3.1	2.2	2.5
전체	1,652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55.

직장체험 분야로는 전체적으로 서비스 및 영업 분야, 사무 분야가 높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서비스 및 영업 분야 다음으로 생산기능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표 2-23> 참조).

<표 2-23> 직장체험 분야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서비스 및 영업 분야	699	42.8	36.2	44.3	47.2	59.3
사무 분야	389	23.8	39.2	19.1	10.7	6.2
생산기능 분야	201	12.3	3.3	14.2	25.8	11.1
단순노무 분야	130	8.0	7.5	8.2	8.1	8.6
연구개발 및 기술 분야	123	7.5	8.4	8.5	3.7	6.2
관리 분야	91	5.6	5.5	5.7	4.4	8.6
전체	1,633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57.

한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학준비를 위해서라는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상실,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24〉 참조). 전문기능의 학습을 통해 준기술인으로 육성되어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왜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의욕이 낮은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심각한 주제이다.

<표 2-24>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전체		4년제 (%)	전문대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
	응답수	%				
진학준비	832	42.8	22.7	30.6	57.5	76.8
자격시험 준비	291	15.0	18.5	22.4	5.2	7.1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	258	13.3	31.1	10.7	3.0	2.6
기타	196	10.1	8.9	14.0	13.1	2.6
예전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 상실	129	6.6	6.5	9.8	7.4	1.0
취직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111	5.7	3.7	4.3	9.5	7.1
군입대 대기	58	3.0	3.3	4.7	1.6	1.0
창업 준비	35	1.8	2.2	2.2	1.4	1.0
건강 악화	18	0.9	1.5	0.9	1.1	0.0
결혼 준비	7	0.4	0.9	0.3	0.0	0.0
신용불량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5	0.3	0.4	0.0	0.3	0.5
육아 및 가사	4	0.2	0.4	0.2	0.0	0.3
전체	1,944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p.63.

2. 취약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

가. 위기청소년 취업특성 및 실태

한국고용정보원(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기청소년들은 니트족 등의 다른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해 고민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상급학교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가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과는 본인과 친숙하거나 주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막연하게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뿐, 실제로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거나 노력은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낮게 나타났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는 현재의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위기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원하지만 관련정보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취업과 관련하여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일반청소년의 경우, 진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진로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87.1%), 나에게 맞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이해(85.7%), 나의 미래에 대한 설계(85.1%)의 순으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위기청소년은 나의 미래에 대한 설계(68.4%), 일을 하려는 의욕이나 동기를 높이는 것(62.2%),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60.1%)의 순으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

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이 진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요구가 조금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위기청소년의 응답은 전체 청소년 응답의 평균치를 대부분 밑도는 수치로, 기본적으로 일반청소년보다 진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위기청소년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며,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및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표 2-25> 위기청소년의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진로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87.1%	59.1%
나에게 맞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이해	85.7%	59.8%
나의 미래에 대한 설계	85.1%	68.4%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78.6%	60.1%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발견	78.6%	46.0%
어떤 일을 하려는 의욕이나 동기를 높이는 것	74.1%	62.2%
다양한 직업세계의 이해와 체험	72.6%	39.2%
실질적인 직업의 알선이나 진로의 제시	69.9%	37.5%
진로나 취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	69.3%	59.1%
진로와 관련된 불안감 해소	69.3%	38.1%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63.1%	30.6%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56.3%	56.0%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능력 향상	55.1%	44.3%
진로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고치는 것	51.8%	38.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연구』, 재구성.

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취업특성 및 실태

정인수 외(2006)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와, 하청이나 용역업체, 개인사업장 등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장이 문을 닫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 저학력이라는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구직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취업시에도 희망 급여 등의 요구사항을 쉽게 요구하지 못하고,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 근로 조건 위반 등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들의 경우, 보통 경력을 요구하는데 저학력자의 경우 경력을 소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취업 선택의 폭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저학력 미취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구직 사이트의 경우, 주된 정보들이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지방의 경우에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부족하여 많은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들은 근무 여건은 열악하지만 그나마 일거리가 있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시도하고 있었다.

〈표 2-26〉을 살펴본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저학력의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초졸 이하, 중졸인 저학력자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6> 저학력 취업자 수(2000~2008)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초졸 이하	3,590	3,517	3,454	3,190	3,088	3,033	2,973	2,932	2,833
중졸	3,031	2,947	2,963	2,679	2,676	2,627	2,605	2,511	2,413
고졸	9,325	9,573	9,846	9,574	9,749	9,791	9,774	9,778	9,654
대졸이상	5,209	5,535	5,907	6,695	7,044	7,406	7,799	8,212	8,676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다. 장기실업 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실태

장기실업 청소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령별 실업률의 변화를 파악한 후, 청년실업률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면 장기실업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연령별 실업률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27>에 나타나 있다. <표 2-27>에 의하면 20~24세 미만의 실업자의 대다수는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7> 20~29세의 청년실업자 수(2000~2008)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4세	초졸 이하	3	1	2	2	2	2	1	1	1
	중졸	7	8	8	6	6	5	5	3	3
	고졸	120	113	96	119	120	109	91	77	68
25~29세	초졸 이하	4	4	2	1	1	1	1	1	2
	중졸	10	8	6	5	4	6	6	5	4
	고졸	91	85	76	79	85	81	80	73	68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장기실업자인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15~19세의 연령층은 청소년층으로서 고교 재학 학생들이고, 20~29세인 연령층은 대학재학 연령이거나 고졸 이후 첫 직장을 경험하는 연령층이다. 그 중에서 25~29세의 연령은 대학 졸업이나 제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연령층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실업 청소년의 연령을 20세에서 24세 미만에 이르는 20대 청년층으로 삼고 있지만 24세 이하, 29세 이하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실업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가 평균 7% 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2008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연령 중에서 15~19세가 10%를 넘어 10대 청소년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2-28> 연령별 실업률(2000~2008)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5-19세	14.5	14.4	12.1	13	14.1	12.5	10.4	9.3	10.2
20-29세	7.5	7.3	6.6	7.7	7.9	7.7	7.7	7.1	7
30-39세	3.6	3.2	2.9	3	3.1	3.3	3	3.2	3.1
40-49세	3.5	3	2	2.2	2.3	2.5	2.3	2	2.1
50-59세	3.2	2.8	1.9	2.2	2.3	2.5	2.2	2.1	2
60세 이상	1.5	1.2	1.1	1	1.2	1.3	1.4	1.4	1.2
합계	4.4	4	3.3	3.6	3.7	3.7	3.5	3.2	3.2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장기실업 청소년의 전체 인원은 2008년 12월 약 292,90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도 20~24세의 실업률이 25~29세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참조).

<표 2-29> 연령별 실업자 수와 실업률(2000~2008)

(단위: 천명, %)

연령계층별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9세	실업자	183.0	174.0	153.0	184.3	188.9	173.0	156.1	125.6	122.9
	실업률	9.9	9.3	7.9	9.6	9.9	9.9	9.9	8.7	9.2
세	실업자	181.0	179.0	165.0	175.9	180.5	178.9	183.7	180.3	170.0
	실업률	6.0	6.1	5.8	6.3	6.5	6.4	6.5	6.3	6.0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특히, 20~24세의 경우 고졸 실업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30> 참조).

<표 2-30> 20~29세의 학력별 청년실업자 수(2000~2008)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4세	계	183	174	153	184	189	173	156	126	123
	초졸 이하	3	1	2	2	2	2	1	1	1
	중졸	7	8	8	6	6	5	5	3	3
	고졸	120	113	96	119	120	109	91	77	68
	전문대졸	39	37	31	38	40	39	33	28	30
	대학교졸 이상	14	14	17	19	21	19	27	17	21
25~29세	계	181	179	165	176	181	179	184	180	170
	초졸 이하	4	4	2	1	1	1	1	1	2
	중졸	10	8	6	5	4	6	6	5	4
	고졸	91	85	76	79	85	81	80	73	68
	전문대졸	33	35	32	38	36	43	39	47	41
	대학교졸 이상	43	47	49	53	54	48	58	55	55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즉, 20세에서 29세인 장기실업 청소년의 학력별 실업자는 고졸이 가장 많으며, 20~24세에서도 고졸의 실업자의 수가 가장 많고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순으로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세 이하의 청년들의 경우 대학 졸업생보다는 전문대 졸업생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5~29세로 나누어 본 경우는 20대 초반과는 다르게 고졸, 대학졸, 전문대졸의 순으로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은 실업자 중 신규실업자(3개월 미만)와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줄어들다가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상 깊은 부분은 실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평균 구직 기간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12개월 이상 구직에 실패한 장기실업자는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기실업자의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1> 구직 기간별 실업자 수(2000~2008)

(단위: 천명, 월)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실업자	979	899	752	817.7	859.9	886.7	827.3	783	769.3
	평균구직기간	3	2.9	3	2.6	2.8	2.8	2.8	2.8	2.6
3개월 미만	실업자	586	548	439	523.2	535.3	542.4	506.3	470.4	479.1
	평균 구직기간	1.4	1.4	1.4	1.3	1.3	1.4	1.3	1.4	1.3
3-6개월 미만	실업자	254	235	209	212.6	226.3	241.5	227.5	220.7	215.7
	평균 구직기간	3.7	3.7	3.7	3.7	3.7	3.7	3.7	3.7	3.7
6개월 이상	실업자	138	116	104	82	98.3	102.8	93.5	91.9	74.5
	평균 구직기간	8.8	8.9	8.8	7.7	8.2	7.9	8.1	7.7	7.6
12개월 이상	실업자	23	21	18	4.6	9.4	7.2	8.9	4.5	3.3
	평균 구직기간	14.8	14.9	14.6	12.6	14.2	13.4	14	13.1	13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라. 청소년 니트족 취업특성 및 실태

한국고용정보원(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니트를 내성적 위축형, 진로 미성숙형, 꿈꾸는 프리터형, 수험형으로 분류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그들의 취업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첫째, 내성적 위축형은 저학력과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정규직 등의 구직 시도를 할 수 없는 위축된 상태로, 낮은 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별다른 구직 준비 없이 생산직이나 소규모 일터 등의 중·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좌절을 경험한 후 체념의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인 여건 상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직반경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 등 극단적으로 축소하여 일정 시간만을 일하며,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시간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구직상의 애로점으로는 ①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저학력으로 인한 진로 무기력, ②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직업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데 따른 좌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부모 및 지인, 공동체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없거나 미약하며, 자신과 같은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일, 자신들이 받아들여지는 포용적인 사회를 열망한다.

둘째, 진로미성숙형은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일관된 준비가 부족하지만, 막연하게 전문사무직이나 해외취업 등의 좋은 일자리를 동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또는 취업이 가능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구직 어려움의 요인으로는 ①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것, ② 대학 중퇴나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 직무를 전전한 반면에 '멋진 직업'을 강하게 동경하는 것, ③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직업활동의 자기 한계를 설정하거나 구직을 결혼하기 위한 필수조건 등의 체면 유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함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체계적인 진로에 대한 계획 없이 비정규 형태의 단시간 근로 아르바이트와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 업무를 구해지는 대로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규직 형태의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꿈꾸는 프리터형은 선호하는 직업 영역이 뚜렷하여 그 이외의 영역에는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상당히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본인 스스로가 흥미가 있는 일, 특히 예술적인 영역의 일에 집념이 강한 반면, 규칙적인 생활이나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규칙적인 일과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일정 기간 돈을 모아서 마음이 내킬 때 여행을 떠나거나 원하는 일을 해보는 삶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 정규직을 선호하지 않으며, 불안정하지만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추구하며, 진로계획, 정보, 네트워크가 미비하여 내적 갈등이 많은 편이다. 구직 어려움의 요인으로는 ① 학교 부적응이 남들과는 다른 삶을 지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② 틀에 박힌 삶에 대한 거부감과 이를 회피하려는 바람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아르바이트 일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단계에 진입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로정보, 자원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의지력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넷째, 수험형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긴 시간을 준비하는 유형으로, 최근에는 대학을 휴학하고 시험에 몇 년씩 도전하거나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시험 준비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시험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시험을 준비한 요인으로는 ① 직업 안정성에 대한 가족의 열망을 반영, ② 현실적으로 시험 준비가 합리

적인 선택이라는 판단, ③ 대학 진학 시 진로에 대한 준비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수험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험 시작 연령이 갈수록 빨라지고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험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커지고 그에 따른 경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일반 기업으로의 구직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청소년 니트족의 증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구직 실패에 따른 상처나 성격적 요인, 진로교육의 부재,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경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새터민 청소년 취업특성 및 실태

새터민 청소년의 진로실태를 조사한 최동선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새터민 청소년의 졸업 후 계획은 상급학교 진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80.7%, 79.6%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 또는 창업은 각각 12.0%, 9.3%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2-32> 참조).

<표 2-32>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계획

(단위: 명,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상급학교 진학	70(80.7)	51(79.6)	121(80.7)
취업 또는 창업	10(12.0)	5(9.3)	15(10.0)
미확정	8(7.2)	6(11.1)	14(9.3)
합계	88(100.0)	62(100.0)	150(100.0)

자료: 최동선 외(2007), 『새터민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연구』, p.88.

또한 새터민 청소년의 희망직업의 결정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실히 결정하거나 어느 정도 결정한 경우가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 청소년이 장래직업에 관심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표 2-33〉 참조).

<표 2-33> 새터민 청소년의 희망직업 결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전체
확실히 결정	29(22.0)	20(23.5)	9(32.1)	58(23.7)
어느 정도 결정	57(43.2)	43(50.6)	15(53.6)	115(46.9)
아직 결정 못함	44(33.3)	21(24.7)	3(10.7)	68(27.8)
관심없음	2(1.5)	1(1.2)	1(3.6)	4(1.6)
전체	132(100.0)	85(100.0)	28(100.0)	245(100.0)

자료: 최동선 외(2007), 『새터민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연구』, p.93.

한편, 새터민 청소년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대한 열망 또는 희망은 매우 확고한 편이나, 이러한 대학 진학욕구에는 일종의 막연함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주변에서의 압력 내지는 설득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학교 선생님(41.6%)’이 매우 중요한 진로정보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 청소년 담당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외에도 ‘부모 및 보호자(37.0%)’, ‘친구·선배·동료(34.2%)’, ‘인터넷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사이트(21.4%)’도 새터민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로정보원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청소년의 희망직업을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재분류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여러 직업군에 희망직업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학생은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보건 및 의료 관련직, 문

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등의 여성 집중 관련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34> 참조).

<표 2-34> 새터민 청소년의 희망 직업(중분류 기준)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관리직	9(16.4)	5(6.3)	14(10.4)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3(5.5)	4(5.0)	7(5.2)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5(9.1)	17(21.3)	22(16.3)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4(7.3)	-	4(3.0)
보건, 의료 관련직	4(7.3)	16(20.0)	20(14.8)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1.8)	3(3.8)	4(3.0)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9(16.4)	21(26.3)	30(22.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1.3)	1(0.7)
미용,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3(5.5)	8(10.0)	11(8.1)
음식 서비스 관련직	5(9.1)	3(3.8)	8(5.9)
건설 관련직	1(1.8)	-	1(0.7)
기계 관련직	3(5.5)	-	3(2.2)
전기, 전자 관련직	5(9.1)	-	5(3.7)
정보통신 관련직	1(1.8)	-	1(0.7)
식품가공 관련직	1(1.8)	1(1.3)	2(1.5)
군인	1(1.8)	1(1.3)	2(1.5)
전체	55(100.0)	80(100.0)	135(100.0)

자료: 최동선 외(2007), 『새터민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연구』, p.96.

즉, 새터민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교사를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직업관 등에 갈등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제3절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1. 직업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개념

가. 직업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개념 및 정의

직업능력(job competency)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표준에 맞도록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Jessup, 1990)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Custer와 Claiborne(1992)은 직업능력을 그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모든 직업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기초능력(basic skills), 초보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직업기초소양(employability skills), 그리고 특정 직종에서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종별 직무수행능력(technical skills) 등 세 범주로 나누었다(최애경, 1997).

먼저 공통기초능력이란 전통적으로 인문교육에서 강조하여왔던 읽기, 쓰기, 셈하기 외에 창의력,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능력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들을 지식습득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정보를 창의적이고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로 확대해서 요구하고 있다. 직업기초소양이란 개인이 직업에 임할 때의 태도, 적성 및 성격을 의미한다. 많은 고용주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직업윤리의식을 갖추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근로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만한 성격, 성실함과 책임감, 신뢰성, 근로윤리 등을 특정직업기술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초소양이 갖추어진 근로자들은 기술이 좀 모자라더라도 채용 후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시키면 되지만 기술이 있더라도 기초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근로자는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팀워크 능력, 인간관계능력, 품질중시주의, 자기관리능력, 원만한 성격 등을 꼽고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갖추어야 하는 지

식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하드웨어 기사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문제를 진단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래머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직업 분야에서 빠른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함께 각 분야의 최신기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와 정보산업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Custer와 Claiborne은 직업능력을 위와 같이 세 범주로 분류하였지만 공통기초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은 엄격하게 분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어떠한 특정직종에 진출하기에 앞서 학교교육이나 훈련기관에서 그 기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함께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과 특정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으로 크게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다(최애경, 1997; SCANS, 1991; Carnevale, 1990).

일반적으로 직업기초능력이란 단순히 기초적인 직업능력이 아닌 기본이 되고 공통적인 개념으로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정철영 외, 1998)'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강조는 학교나 직업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역량들이 너무나 맥락-특수적인 방법(예: 전공분야별, 직업별, 기업별)으로 접근되어 왔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활동 및 과업들이 매우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과거의 맥락-특수적인 방법으로 역량을 접근하는 방식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한 맥락 및 환경과는 독립된 공통적인 직업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이중범 외, 2008).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로 이무근(1997)은 직업능력을 '특정 직업에서 또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직업능력을 크게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

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직업기초능력이란 대부분의 직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정철영(1998)은 직업능력을 '직업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의 총체'로 보고 이를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하며, '기초'적인 수준의 직업능력이 아닌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개념을 강조하였다.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하여 2002년 노동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직업능력표준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직업능력 표준사업을 추진하여 5개 분야 20개 직종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였는데, 특정 직무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에 초점을 두어,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비중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나승일 외(2003)는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초직업능력은 '직업기초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박동열 외, 2008). 즉,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업인을 중심으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여기서 '기초'는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직업능력을 중심으로 볼 때, 직업능력은 기초직업능력,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산업공통직업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초직업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직업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초직업능력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임과 동시에 직무수행능력과 융합되어 작업환경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능력을 형성한다

고 제시하였다.

한편, 임언 외(2004)는 OECD의 성인기초능력 사업인 ALL(Adult Literacy & Life Skill)에서 직업기초능력을 '반드시 직업생활에 한정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으로, 구체적으로는 언어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는 생애역량(life skill) 또는 기초역량(basic skill)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기초역량이 직업인으로서 진입 단계에 필요한 역량으로 제한되어 논의되기도 하지만 직업을 유지하고 진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들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직무역량(workplace skill)으로부터 생애역량을 도출하였다.

이중범 외(2008)의 경우, 국가별, 연구자별 상이한 개념과 정의 속에서 직업기초능력의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으로 대부분의 직업과 직급에 전이 가능하며, 직무내용 및 직위 변화 등과 같은 직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한 연구는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용어는 key competencies, core competencies, core skills, basic skills, generic skills, workplace know-how, workplace basic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European Training Foundation, 2003). 다음 <표 2-35>는 국내·외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및 정의를 요약한 비교 내용이다.

<표 2-35> 직업기초능력 개념 및 정의

구분	용어	개념
이무근(1997)	직업기초능력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정철영(1998)	직업기초능력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동임(2000)	기초직업능력 (key skills)	다양한 산업·직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유하여야 할 직업능력 중 급격한 사회변화 또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능력
박동열(2003)	직업기초능력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나승일(2003)	기초직업능력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인지적·정의적·심동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
이정표(2004)	직업기초능력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총체
임언(2004)	생애역량 (life skills) 기초역량 (basic skills)	반드시 직업생활에 한정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으로서 입직 단계뿐만 아니라, 직업의 유지 및 진급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포함
진미석(2007)	직업기초능력	대부분의 직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으로 대부분의 직업과 직급에 전이 가능하며 직무내용 및 직위 변화 등과 같은 직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Mayer위원회 (호주)(1991)	key competencies	작업과 작업조직에서의 새로운 흐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능력
SCANS (미국)(1991)	workplace know-how	모든 직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스코틀랜드 (2001)	core skill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일터에서 적응력을 갖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스킬
영국(2001)	key skills	일상생활, 직업생활 및 교육훈련에서의 광범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공통적인 스킬
OECD(2002)	key competency	특정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통해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뉴질랜드 (2002)	employment skill	예비근로자가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스킬
싱가포르 (2005)	employability skills	모든 직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전 직업에 전이 가능한 능력으로서, 직무내용 및 직무환경의 변화에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요구되는 스킬

자료: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p.16 재구성.

직업능력을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할 때,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학습능력, 진로(경력)개발능력, 책임감, 윤리의식 등 개인의 역량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문해력, 수리 및 정보소양 등 생애환경(life context)과 직무환경(workplace context)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능력을 포함하며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등 직무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이종범 외, 2008).

나.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 및 내용

직업기초능력 영역설정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무근(1997)에 의한 기초직업능력 영역설정은 주로 외국사례 고찰을 통해 입직 단계의 청소년 또는 대학 졸업생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입직 단계의 청소년과 대학 졸업생에게 필요한 능력에 주안점을 두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능력에 초점을 두는 원칙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소양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이해 능력 등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경제·경영능력, 기술 활용능력, 개인적 자질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철영 외(1998)는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 고찰을 통해 직업기초능력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22개로 분류된 산업 분야 중 다른 직종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변호사, 판사, 의사 등), 군인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능력 등 아홉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나승일 외(2003)는 노동부에서 연구 및 개발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이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산업체 근로자에게 적합한 기초직업능력의 영역과 하위능력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등 열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앞선 연구자들이 경험적 방식에 의해 직업기초능력을 추출하였다면, 진미석 외(2007)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직업기초능력의 영역과 요소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기초능력은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로 구분되며, 인지적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및 활용 능력,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등의 4개 영역, 비인지적 요소는 대인관계 및 협력기술, 자기관리 능력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박동열 외(2008)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면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문제해결 능력'은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어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학교생활이나 과제 수행 또는 학습활동 시 개인 간 혹은 그룹 간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및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필요한 능력이다. '정보활용 능력'은 학창생활 및 학습,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이다. '자원활용 능력'은 학창생활 및 학습,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다. '수리능력'은 학교에서의 학습이나 과제 수행 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통계자료나 도표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거나 적절한 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이종범 외(2008)는 직업기초능력 영역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능력(자기관리역량군)을 직업기초능력으로 정의하고, 과업수행의 환경적 특성에 관계없이 개인이 생애환경 및 직무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생애 및 직무현장 기초역량군), 직무현장에서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능력(과제해결 역량군), 직무현장에서 타인과 함께 효과적·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능력(관계관리 역량군), 직무현장에서 조직에 효과적·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능력(조직기여 역량군)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는 11개 하위영역 및 30개 하위요소로 설정되었으며, 도출한 영역의 정의 및 하위요소의 개념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하위요소

역량군	영역	하위요소				
자기관리 역량군	자기개발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로설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서의 분석적 읽기능력	문서의 논리적 작성능력	영향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외국어 능력
생애 및 직무현장 기초역량군	수리활용능력	기초연산 활용능력	정량적 자료해석능력			
	정보활용능력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문제인식 및 이해능력	분석적/창의적 사고능력	의사결정능력		
과제해결 역량군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 자원 관리능력	인적 자원 관리능력	
	기술활용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능력	네트워킹 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관계관리 역량군	문화이해능력	다양성 이해능력	다문화 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	조직체계 이해능력	비즈니스 이해능력			
조직기여 역량군	변화관리능력	조직혁신능력	업무혁신능력			

자료: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p. 173.

이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을 연구자별로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외국어 포함),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이해 능력, 자기관리·개발 능력, 자원활용 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표 2-36> 참조).

<표 2-36> 국내 사례에서의 직업기초능력 영역 종합

구분	의사소통능력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이해능력	자기관리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변화관리능력
이무근 (1997)					정보소양능력								
정철영 (1998)													
나승일 (2003)								자기개발능력					
이정표 (2005)								자기개발능력					
진미석 (2007)		글로벌역량	자원정보기술처리활용	종합적사고력	자원정보기술처리활용	대인관계협력	글로벌역량	자기관리능력	자원정보기술처리활용	자원정보기술처리활용	대인관계협력		
박동열 (2003)					정보관리능력			자기관리능력					
이종범 (2008)													

자료: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직업기초능력의 세부영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 능력, 조직이해 능력 등을 공통적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표 2-37> 국외 선행연구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종합)

구분	의사 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자기 관리 개발 능력	자원 활용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미국 ASTD (1988)	의사소통 능력 기본능력		적응력		그룹 능력	기초능력, 개인관리 능력			영향력
미국 SCANS (1991)	기본능력		사고력	정보 처리 능력		개인적 자질		기술 활용 능력	시스템 능력
미국 O*NET (1997)	내용적 능력				사회적 능력	과정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시스템 능력
캐나다 HRDC (1994)	읽기능력		사고력	컴퓨터 활용능력		지속적 학습 능력			
	문서활용 능력								
	쓰기능력 구어의사소 통 능력								
영국 QCA (2004)		수리 적용 능력		정보 공학 능력		자기 학습 능력			
호주 Mayer (1991)	생각과 정보의 의사소통 능력	수리적 생각과 기법의 활용					직무 활동의 기획, 조직력	기술 공학 이해 능력	
싱가폴 WDA (2004)	언어소양 및 수리력		문제 해결 및 의사결 정능력	정보 통신 기술 능력	의사 소통 및 대인 관계 능력	독창력, 기업가정 신 학습 및 자기개발 개인 능력 향상	안전과 건강 관리 능력 개인 능력 향상		

자료: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이에, 국·내외 문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별 정의와 하위요소의 개념을 정리한 이종범 외(2008)의 연구 결과는 다음의 <표 2-38>과 같다.

<표 2-38>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 및 하위요소별 정의 및 개념

영역	정의	하위요소	개념
자기개발능력	원만한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며 개발하는 데 필요한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능력
		진로설계 능력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비해 나가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며, 상대방의 말과 글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문서의 분석적 읽기 능력	업무에 필요한 문서내용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문서의 논리적 작성능력	업무상황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문서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경청능력	다른 사람의 말과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보고 들으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업무상황에 맞는 말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수리능력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자주 활용되는 기초적인 연산과 그래프, 표 등의 자료를 해석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기초연산활용 능력	업무상황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능력
		정량적 자료해석 능력	그림, 표, 그래프로 표현된 자료를 사용목적에 맞게 분류, 정리하고 해석하는 능력
정보활용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수집·관리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수집, 분류, 배치하는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업무상황에 다양한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과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능력
자원관리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예산, 물적·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시간관리 능력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
		예산관리 능력	과제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확보·집행·평가하는 능력
		물적자원 관리 능력	과제실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예상하고 준비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운영 및 배분하는 능력

(표 계속)

영역	정의	하위요소	개념
기술 활용 능력	과제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치 및 기업 등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	기술선택 능력	도구, 장치, 기법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
		기술적용 능력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업무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
대인 관계 능력	타인과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상황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팀워크 능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팀원으로서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능력
		네트워킹 능력	업무 수행상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타 부서 또는 타 회사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갈등관리 능력	개인 간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협상 능력	목표가 상충될 때,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여 공통의 이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능력
문화 이해 능력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다양성이해 능력	성별, 연령별, 신체적 차이 등 사람들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다문화이해 능력	다양한 지역 및 민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적인 가치관을 수용하고 이에 적용하는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조직체제 이해 능력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직구조 및 조직내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조직에서의 업무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비즈니스 이해 능력	사업 및 조직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조직 및 개인성과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
변화 관리 능력	조직과 업무에 몰입하여 조직 및 업무변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조직혁신능력	구성원으로 조직에 몰입하여 조직운영의 개선책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능력
		업무혁신능력	구성원으로서 직무에 몰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자료: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수준 개발』, pp.168-173.

2.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실태

가. 문헌을 통해 살펴본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직업기초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학교교육의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낮았던 이유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취약청소년의 직접적인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성취도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낮으며, 산업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산업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성상 많은 부분이 취약청소년과 유사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초능력 연구를 기초로 하여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조사한 연구 결과(이종성·정향진, 2002) 내용이다.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별로 구분한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보통(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수리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의적 성격이 강한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자원활용 능력, 조직이해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39>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영역	사례수	평균(5점척도)	표준편차
의사소통 능력	735	2.50	.54
수리능력	735	2.12	.70
문제해결 능력	735	2.28	.62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735	2.89	.59
자원활용 능력	735	2.49	.63
대인관계 능력	735	2.87	.62
정보능력	735	2.82	.68
기술능력	735	2.74	.68
조직이해 능력	735	2.42	.63

자료: 이종성·정향진(2002).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기초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방안』, p.197.

구체적으로,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별, 요소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2점(충분하지 않다) 이상 4점(충분하다) 미만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점(보통)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평균이 3점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부 소수 영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역의 향상이 요구되었다.

<표 2-4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별 수준

하위요소		사례수	평균(5점척도)	표준편차
의사 소통 능력	읽기 능력	735	2.84	.75
	쓰기 능력	735	2.41	.80
	듣기 능력	735	2.78	.73
	말하기 능력	735	2.65	.77
	비언어적 표현 능력	735	2.83	.77
	영어 문서이해 능력	735	1.46	.66
	소계	735	2.50	.54
수리 능력	사칙연산 이해 능력	735	2.53	.87
	통계와 확률에 대한 계산 능력	735	1.93	.79
	도표해석 능력	735	2.06	.78
	도표표현 능력	735	1.98	.78
	소계	735	2.12	.80
문제 해결 능력	창조적 사고력	735	2.17	.79
	논리적 비판력	735	2.17	.71
	비판적 사고력	735	2.40	.82
	문제인식 능력	735	2.41	.74
	대안선택 능력	735	2.25	.77
	대안적용 능력	735	2.22	.77
	대안평가 능력	735	2.13	.73
소계	735	2.28	.62	
자원 활용 능력	자원확인 능력	735	2.64	.70
	자원조직 능력	735	2.52	.70
	자원계획 능력	735	2.40	.72
	자원할당 능력	735	2.41	.73
	소계	735	2.49	.63
대인 관계 능력	협동 능력	735	3.20	.79
	리더십 능력	735	2.62	.79
	갈등관리 능력	735	2.70	.72
	협상 능력	735	2.78	.75
	고객서비스 능력	735	3.07	.82
	소계	735	2.87	.62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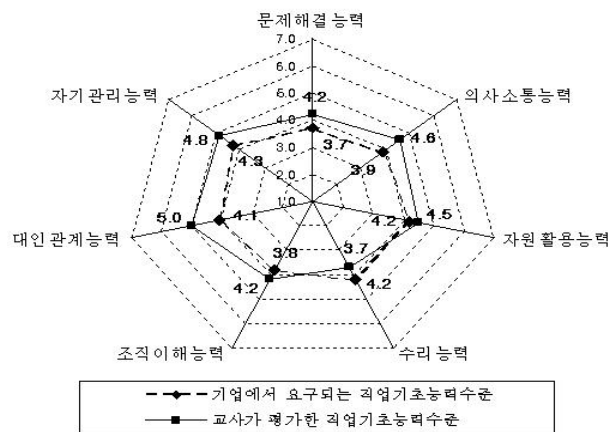
하위요소		사례수	평균(5점척도)	표준편차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부심	735	2.58	.82
	추진력	735	2.60	.76
	건강관리 능력	735	3.26	.81
	독립심	735	2.94	.86
	책임감	735	2.79	.89
	성취동기	735	2.66	.88
	성실성	735	3.20	.87
	긍정적인 태도	735	3.09	.80
	직장예절	735	3.08	.88
	자기이해 능력	735	2.85	.76
	자기개발 능력	735	2.42	.78
	준법성	735	2.98	.83
	직업윤리의식	735	3.01	.81
	안전의식	735	3.20	.78
	봉사정신	735	3.03	.90
	장인정신	735	2.82	.83
	소명의식	735	2.69	.83
충성심	735	2.92	.85	
정보 능력	소계	735	2.89	.59
	정보수집 능력	735	3.11	.84
	정보분석 능력	735	2.59	.78
	정보조직 능력	735	2.52	.77
	정보관리 능력	735	2.60	.76
	정보활용 능력	735	2.80	.84
	컴퓨터 사용 능력	735	3.30	.88
기술 능력	소계	735	2.82	.68
	기술이해 능력	735	2.76	.72
	기술선택 능력	735	2.79	.74
	기술적용 능력	735	2.68	.72
조직 이해 능력	소계	735	2.74	.68
	국제감각	735	2.13	.72
	체제이해 능력	735	2.48	.72
	경영이해 능력	735	2.42	.76
	업무이해 능력	735	2.66	.74
소계	735	2.42	.63	

자료: 이종성·정향진(2002).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기초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pp.199-200.

직업기초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도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및 취약청소년의 기초역량을 유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에, 박동열 외(2008)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원활용 능력, 조직이해 능력, 자기관리 능력 등 7개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에 대한 행동사례에 근거한 BARS 평정방식을 통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1,040명 및 교사 36명이 참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편, 검사 결과 프로파일에서 교사가 평가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과 학생들이 자기 평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수준과 비교하여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먼저 교사가 평가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수준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교사가 평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수리능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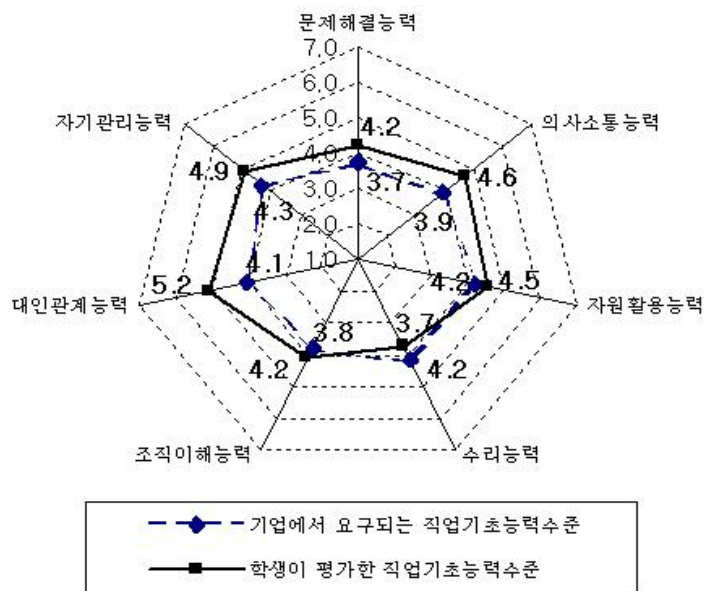
[그림 2-2]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가 평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



자료: 박동열 외(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편,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수준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 2-3]과 같은데, 학생이 평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 또한 수리능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



자료: 박동열 외(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이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기업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이 평가절하되거나, 혹은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수준 미달로 인하여 수리능력과 같은 기초적인 학업성취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수리적 민첩성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기본적인 계수관리 프로그램 운영기법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윤정희 외(2007)는 위기(가능)청소년 191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역량, 자기성취역량, 대인관계역량, 공동체역량, 창의성역량, 상황대처역량 등 생활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표 2-41>과 같다.

위기(가능)청소년들의 생활역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조절역량, 자기성취역량 등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시간활용기술이나 합리적 소비기술, 목표설정기술, 봉사참여기술, 리더십기술, 창의적 기획기술 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수준

구분	하위요소	평균	
자기조절역량	감정조절기술	2.60	2.39
	신체관리기술	2.74	
	시간활용기술	2.06	
	합리적 소비기술	2.14	
자기성취역량	동기형성기술	2.64	2.49
	목표설정기술	2.32	
	진로탐색기술	2.51	
대인관계역량	표현기술	2.74	2.72
	경청기술	2.76	
	관계형성기술	2.74	
	갈등조절기술	2.62	
공동체역량	매너기술	2.82	2.53
	봉사참여기술	2.16	
	협력기술	2.76	
	리더십기술	2.37	
창의성역량	창의적 기획기술	2.44	2.58
	의사결정기술	2.65	
	문제해결기술	2.65	
상황대처역량	휴대폰중독 대처기술	2.53	2.67
	인터넷중독 대처기술	2.66	
	유해물질 대처기술	2.86	
	폭력대처기술	2.61	

자료: 윤정희 외(2007), 「자료표현 학습에서 자기조절 학습시스템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대학원, p.225.

한편,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새터민 전반에 관한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별 수준을 조사한 연구 결과(이찬, 2007)는 다음과 같다. 직업윤리 4.25, 자원관리 능력 4.11, 문제해결 능력 3.90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능력 2.62, 수리능력 3.13, 의사소통 능력 3.44 등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사회와 다른 남한의 교육과정과 정보관리 체계, 수리 체계, 언어적인 차이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2-42> 새터민의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분포

직업기초능력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 능력	3.90	.50
자원관리 능력	4.11	.62
정보능력	2.62	1.19
직업윤리	4.25	.60
의사소통 능력	3.44	.73
수리능력	3.13	.82
자기개발 능력	3.83	.64
대인관계 능력	3.83	.56
기술능력	3.77	.68
조직이해 능력	3.80	.64

자료: 이찬 외(2007). 「새터민의 기초직업능력 진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3호, p.16.

연령별 새터민의 직업기초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보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 능력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능력과 기술능력을 제외하고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직업윤리,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능력과 기술능력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남한사회의 정보기술 체계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3> 연령별 새터민의 직업기초능력 차이

영역	연령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문제해결 능력	① 20대	53	3.83	.528	0.846	집단간 차이 없음			
	② 30대	47	3.96	.481					
	③ 40대	25	3.99	.430					
	④ 50대	8	3.85	.645					
	합계	133	3.90	.501					
자원관리 능력	① 20대	53	4.02	.661	1.198	집단간 차이 없음			
	② 30대	47	4.18	.578					
	③ 40대	25	4.07	.638					
	④ 50대	8	4.41	.572					
	합계	133	4.11	.625					
정보능력	① 20대	53	2.99	1.125	3.837*				*
	② 30대	47	2.55	1.197					
	③ 40대	25	2.08	1.120					
	④ 50대	8	2.36	1.206					
	합계	133	2.62	1.191					
직업윤리	① 20대	53	4.20	.542	1.308	집단간 차이 없음			
	② 30대	47	4.35	.525					
	③ 40대	25	4.12	.856					
	④ 50대	8	4.48	.493					
	합계	133	4.25	.607					
의사소통 능력	① 20대	53	3.39	.730	0.824	집단간 차이 없음			
	② 30대	47	3.47	.752					
	③ 40대	25	3.40	.682					
	④ 50대	8	3.81	.783					
	합계	133	3.44	.731					
수리능력	① 20대	53	2.93	.864	3.749*				*
	② 30대	47	3.25	.728					
	③ 40대	25	3.11	.780					
	④ 50대	8	3.86	.785					
	합계	133	3.13	.822					

<표 계속>

영역	연령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자기개발 능력	① 20대	53	3.70	.675	1.270	집단간 차이 없음			
	② 30대	47	3.92	.594					
	③ 40대	25	3.94	.555					
	④ 50대	8	3.84	.900					
	합계	133	3.83	.643					
대인관계 능력	① 20대	53	3.73	.618	1.107	집단간 차이 없음			
	② 30대	47	3.91	.495					
	③ 40대	25	3.91	.601					
	④ 50대	8	3.79	.367					
	합계	133	3.83	.563					
기술능력	① 20대	53	3.72	.672	1.230	집단간 차이 없음			
	② 30대	47	3.91	.577					
	③ 40대	25	3.61	.895					
	④ 50대	8	3.86	.563					
	합계	133	3.77	.685					
조직이해 능력	① 20대	53	3.63	.667	4.041*	*			
	② 30대	47	4.01	.468					
	③ 40대	25	3.70	.831					
	④ 50대	8	4.12	.360					
	합계	133	3.80	.648					

*p<0.05

자료: 이찬 외(2007). 「새터민의 기초직업능력 진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3호, p.16.

나. FGI 및 집중면담을 통해 살펴본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박동열 외(2008)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평가하는 진단도구에서 적용한 의사소통 능력, 자원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조직이해 능력 7개의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을 바탕으로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 및 취약청소년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한 취약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취약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탈학교했거나, 학교에 적응 두

고 있어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기본적인 학습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볼 수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초등학교 이전부터 기초적인 학습 준비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또래가 자연스러운 학교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기본 생활습관이 미형성된 경우가 많아 시간관념이나 경제관념, 올바른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저학력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취약청소년별 직업기초능력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

가) 의사소통 능력

위기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학교 부적응 상태가 시작되어 기초학습능력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이해 및 표현 수준이 낮고, 영어 등 외국어와 관련된 이해 수준은 더욱 낮은 편이다. 인터넷 및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 파괴가 심한 수준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언어 구사력도 부족한 편이다.

“중학생 애들의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는 애들과 한글로는 쓰지만 자기 이름 한자는 전혀 뭐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거의 모든 시간에 잠을 잔대요. 학교에서요.”(위기청소년 관계자)

“대부분 자퇴생이거나 학교 부적응이 많아 기본적인 학습 능력의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한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은 그래도 읽고 쓰고는 하는데, 영어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위

기청소년 관계자)

“설문조사 할 때, 용어를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말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떨어져요.” (위기청소년 관계자)

“말도 핸드폰도 중독이 되어 있고, 용어도 좋아라하는 것이 아주 옛날에 광고에서 ‘파봉’이 유행했던 것처럼, 요새 애들은 ‘헐’ 하나면 다 통하잖아요. 사용하는 어휘도 애들이 형용사로 사용하는 자기 감정표현이나 형용사도 잘 모르고, 국어 단어 같은 것이나 어휘 뜻을 너무나 몰라요.” (위기청소년 관계자)

일반적으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데 간혹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을 보더라도 연예면을 제외한 정치·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이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낮은 편이다.

“인터넷으로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같은 것 전혀 안 보구요. 다른 것에서도 어려운 말 있잖아요, 알아듣기 좀 헛갈리는 말 같은 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위기청소년)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나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하고도 그렇고 어른들과하고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위기청소년)

나) 자원활용 능력

위기청소년의 경우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고 자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시간에 대한 계획 및 관리가 부족한 편이라, 대부분 밤늦게까지

노는 문화에 익숙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스스로 이런 부분이 옳지 않고,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뿐이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하여 잦은 지각 및 무단결석 등으로 징계처분 후에도 학교에 지각, 결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학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생활습관도 불규칙하고, 나태하고, 친구랑 어울려 늦게까지 노니까 늦게 일어나고...”(위기청소년 관계자)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자기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노력해야겠죠. 이대로 살면 안 되죠.”(위기청소년)

또한, 경제적인 개념이 부족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 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를 통해 획득한 수입을 유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놀고 써야죠. 맛있는 거 사먹고... 십만 원이면 하루면 쓸 것 같아요.”(위기청소년)

“일을 해서 유흥비로 쓰는 아이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일을 해서 유흥비로 쓰겠다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위기청소년 관계자)

대부분의 위기청소년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거나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데, 적으면 네 시간 정도 해요. 한글이나 엑셀은 몰라요... 파워포인트나 엑셀이 뭐예요?”(위기청소년)

“나중에 일반 사무직으로 취직할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정보를 찾아본 적도 없어요. 선생님과 상담하거나 인터넷 검색해본 적도 없어요.”(위기청소년)

다) 대인관계 능력

위기청소년의 경우 언어를 통한 자신의 감정 표현,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인 규칙이나 상급자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익에 따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가 물리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화보다는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고 범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폭력 및 폭행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힘에 의한 서열이 중시되고 충동적이다.

“도토리 사고 싶으면 애들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죠...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때려요. 처음에 말로 해서 안 되면 맞아야죠.”(위기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학교생활이 편해지거나, 비슷한 아이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꼬맹이도 생기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돈, 명예를 갖고, 자존감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할 무언가가 없는 한 이 애가 그 만돌 이유는 없어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얼마 안 가서 계속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위기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타인의 충고에 대하여 자신을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타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피해의식도 높은 편이다.

“방치된 아이들, 일부는 부모가 있어도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이 사회를 곱게 보지 않아요. 자기 부모도 자기와 떨어져 있어서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있을 거라는 불신감이 있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참 많지 않아요.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 버리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당했다, 피해자다’라는 인식이 많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대방 입장을 조망하는 능력이 없고, 공감도 안 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라) 자기관리 능력

위기청소년의 대다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생활습관이 미형성된 경우가 많다. 이에, 사회의 규칙에 대한 인정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동기도 의지도 없어, 학교와 같은 집단에서 다른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다수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현재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고려한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 연예인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는 등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에 있어 현재의 학습능력 수준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다 나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서 현재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보다는 현재 학습적인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를 잘 안 나가서 여기에 왔어요. 밤에 놀러도 가고 TV나 컴퓨터 보면서 밤새고… 학교 가라고 깨워도 그냥 다시 자요.”(위기청소년)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하면 출결사항이… 하루에 수시로 학교에서 발급을 받아보면, 수우미양가 중에서 ‘미’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이 ‘가’예요.”(위기청소년 관계자)

“검찰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되고 싶은 직업을 얘기하면 허무맹랑하고, 자신이 하는 생각 및 행동과 전혀 동떨어진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인내심이 많지도 않고 목표도 없는 애가 남들이 좋다는 거를 하고 싶어 하고요.”(위기청소년 관계자)

“그냥 지금으로는 사람들의 고민 상담 들어주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생각은 하는데, 그 쪽이 어려울 거 같아서 도전은 못하겠어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하지 않아서요… 성적이 낮아서 택도 없을 거 같아요.”(위기청소년 관계자)

또한,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하기보다는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거나, 희망 직업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부족한 편이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니까 해 보고 나중에는 다른 일로 돈을 벌 어보겠다고 생각하거나, 당장에는 주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일단 주변 사람의 요구에 따르고,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등 목표를 향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하다.

“저는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요, 영화배우를 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연극도 해 봤고요. 일단 취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할 거예요… 주위에서 원하니깐요.”(위기청소년)

“음악을 하고 싶은데, 평생은 힘들 것 같아요. 늙으면 장사를 할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위기청소년)

마) 수리능력

위기청소년은 학력부진의 상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누적된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사칙연산 수준의 문제해결만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수리능력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경험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셈하기는 나중에 자기 보수 계산만 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되는데요.”(위기청소년)

“왜 공부를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기본만 있으면, 솔직히 살아가면서 덧셈, 뺄셈, 나눗셈만 할 수 있으면 돼요.”(위기청소년)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배우는 게 힘들어요. 수학이나 이런 거를 꼭 해야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싫어요.”(위기청소년)

바) 문제해결 능력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인한 추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결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 이에 대하여 후회하기도 한다. 또

한, 과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문제를 통찰하거나 문제상황 해결을 위해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없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도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을 못하고, 휴학, 자퇴 하는 애들이 연락 오는 애들이 많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는 후회하고 괜히 그만뒀다 그래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제과 제빵 배워요. 계속 하다 보니까 위기상태예요. 처음에 재미있다가 재미없어졌어요. 그냥요. 봐서 끝까지 할지 생각할 거예요.”(위기청소년)

사) 조직이해 능력

타인의 생각과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 하기보다는 자신과 관심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일탈행위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속된 조직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거나 상급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당위성을 갖지 않는다.

“두 달인가, 두 달 했다가 며칠 안 나갔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며칠 안 나가서 잘렸어요. 그것 때문에 잔소리 듣고 별로 그런 것 하기 싫어요. 몇 시간 씩 있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위기청소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신경을 안 써요. 혼내도 한두 번 화내시다가 나중이 되면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학교가 별로 힘들지 않아요.”(위기청소년)

“귀찮아서 학교에 안 나갔어요. 학교에 안 가고 자퇴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위기청소년)

2)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가) 의사소통 능력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부적응 상태가 지속되다 탈학교한 경우가 많아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어의 경우 아는 단어의 수도 많지 않고, 영어를 읽고 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 대화에서 어려운 단어나 한자성어가 사용되는 문장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를 풀 때도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답을 찾지 못하기도 한다.

“기초가 너무 오래 전부터 부족해서 예를 들면, MBTI 검사를 해도 어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요, 영어도 juice를 읽는 것도 어려워하는 수준이라서…”(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의 아이가 왔었는데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담을 진행할 때도 질문이나 본인이 스스로를 통찰할 경우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청소년 이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청소년상담원 교사)

“요즘 인터넷을 보면 신문기사가 뜨는데 읽으면 사회면이나 연예면은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정치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럴 때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아는 단어를 모를 때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대안학교 학생)

“예를 들어서 ‘칭찬벽력’ 같은 말을 설명해야 한다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설명한 방법은 요즘 인터넷 유행했던 게, ‘내가

고자라니?’ 이거예요. 야인시대에서 그 분이 급소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고자가 됐던 일이 있어서 애들한테 설명할 때 그게 ‘청천벽력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대안학교 교사)

타인과의 대화 시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급자의 충고나 조언을 자신에 대한 질책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여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결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들 역시 언어파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다 보니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전달하는 말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감 부족,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지 못한 환경적인 문제 등이 결부된 종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요. 취업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찾아오면, 심리적으로 분노가 많아요.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직장생활에서 상급자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대안학교 교사)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로 말하면, 전후 상황을 파악해서 이런 정도로 하겠지 했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상당히 세세하게 봐줘야 해요. 과제도 ‘네가 다시 한 번 말해봐’라고 확인을 하거나…”(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것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욕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의 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일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한두 달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대안학교 교사)

“이 아이들이 일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은 되는데… ‘너 이거 해’라고 할 때 하고 싶지 않거나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지 그걸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교사)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잘 못해요. 애들한테 말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말하고, 빙 둘러서 얘기하고요.”(대안학교 학생)

나) 자원활용 능력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탈학교 이전부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시간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탈학교 이후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시간관리, 자기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일단 하는 것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기보다는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최소한의 것만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 대비 과업수행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약속 시간도 초반에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려 봤지만, 이 친구들이 늦잠을 많이 자서 미리 깨우고, 시간을 맞춰서 나오게 세세하게 알려줘야 돼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아이들을 나름 넣을 수 있는 곳은 있어요. 실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관리 능력이 안 되고요. 밤새 놓고 그 다음날 안 가고 이런 게 아주 흔한 일이고, 자기관리 능력이 전혀 안되고…”(청소년상담원 교사)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고 공부는 하기 싫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갔어요. 한 학기에 일곱번을 빠질 수 있어요. 가서 조퇴를 하면, 4회당 한 번이니까 일찍 가서 찍고, 빠지려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한 학기를 거의 안 다닐 수 있어요.”(대안학교 학생)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원관리 능력도 매우 낮은 편이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경제 관념·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돈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면서도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지만, 이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돈이 있을 때는 쓰고 없을 때는 굶는 식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경제관념, 돈 관리 능력이 떨어져요. 있을 때 딱 쓰고, 없을 때 쫄쫄 굶고, 모아서 계획 세우고, 오늘은 100원 쓰고 내일은 50원 쓰고 이런 게 잘 안 돼요.”(청소년지원센터 교사)

“아이들이 직접 창업체험을 하는데요… 이 돈을 돌아다니면서 쓴 애들은 쓴 것 말고는 번 게 없으니까 나중에 애들이 알아요. 이렇게 쓸 게 아니고 뭐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구나…”(청소년지원센터 교사)

“심지어 지원기관에서 취약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나누어준 식사쿠폰을 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구두 사고, 굽는 거죠.”(청소년보호 기관 관계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일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필요한 만큼 돈을 벌게 되면 다시 그만두고, 또 돈이 필요해지면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도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취업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저 직업훈련의 참가를 통한 지원금이 유인책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호스트바, 보도방, 보이스피싱… 말을 해도 안 들을 거고, 좀 더 고생을 해 봐야지. 지금은 돈 맛을 알아서, 자기가 좀 더 궁지에 몰려 봐야 절박함을 알 거 같아요.”(대안학교 학생)

“돈 벌어서 돈 쓰는 거, 벌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아이들의 관심사예요.”(청소년상담원 교사)

“정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에 가는 형들이 있는데요, 하면 돈이 오니까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돈을 벌 수단으로 생각하고…”(대안학교 학생)

“내 친구 중에 자동차 정비기술을 갖는데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랑 반대인데 돈 때문에 갔다가, 하고 나니까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내가 왜 갔나, 차라리 안 갈걸, 시간이 아깝다고 했어요.”(대안학교 학생)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청소년이고 이들의 대표적 휴식처가 PC방인 경우가 많아 컴퓨터를 놀이기구로 활용하는 능력은 높고 컴퓨터에도 친숙한 편이나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찾는 능력은 매우 미숙한 편이다.

“시간이 있으면 항상 PC방에서 친구들을 만나요. 게임도 하고, 채팅도 하고…”(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취미로 인터넷을 해요. 싸이월드, 사진 찍는 것 좋아해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고, 영화 보고…”(대안학교 학생)

“일러스트랑 포토샵 같은 것 잘하지는 않지만 초보 수준이에요. 한 달 반 정도 배웠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새는 안 해요. 옛날에 엑셀을 배웠는데 요새는 안 해요. 애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회사에 가서 배웠어요.”(대안학교 학생)

다) 대인관계 능력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저소득층의 편부모나 조손가정인 경우가 많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의 관계 형성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격려를 받기보다는 비난이나 질책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누적된 경험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큰 편이고, 타인과의 관계형성 시 자신의 감정과 역할을 어떻게 조절하고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및 기술부족으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충동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등 대인관계 능력 수준은 낮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자라는 환경 속에서 안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가출을 해서 밖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쉼터를 옮겨 다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집에서 관계 형성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 안 되고, 학교도 안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길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떨어져요.”(청소년상담원 교사)

“이 애들이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대인관계도 어렵고 정해진 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 쓰고, 받아쓰는 것은 되는데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죠.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고 어려워요.”(청소년상담원 교사)

타인에 대한 불신감과 관계형성에 대한 긍정적 경험 부족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편이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나 칭찬보다는 비난이나 질책에 노출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에 대한 충고나 조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여 상처받는 경향이 있다.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눈 마주침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방어적인 애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잘 까먹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부분이 많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어렸을 때, 수학시간에 원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앞에 나와서 해라’라고 하면, 애들이 다 있는데… 나는 못하는데 불러서 애들 앞에서 혼내고… 저처럼 소심한 애는 못해요.”(대안학교 학생)

라) 자기관리 능력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역시 기본생활습관의 미형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기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성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의 규칙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 스스로 자신이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성공하는 케이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의 적성이 무엇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좋게 성공한 사람을 내 모든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딱 부딪히는 거예요.”(대안학교 학생)

“진로를 못 찾은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스무 살 된 형도 못 찾고 놓고 그런 형이 대부분 주위에 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든 거 같아요. 밖에서 찾고 오면 몰라도요. 여기는 여기 물 때문에 너무 흘러가는 게 너무 섞인다고 해야 하나? 여기 오기 전에 나의 꿈이 확실히 있으면 여기에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기존의 방향하는 그런 게 더 방황하는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면 벗어나지 못해요.”(대안학교 학생)

주로 연예인과 같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를 찾고 노력하기 보다는 하고 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데 소홀한 편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다는 주변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커요. 요새는 연예인이 많아요. 가수, 탤런트 쪽으로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들이 대세잖아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죠. 하고 싶다고...”(대안학교 학생)

“실제 이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꿈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흔하게 나오는 게 가수 이 정도, 연예인 이 정도만 나오지 현실적인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청소년상담원 교사)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정보를 찾지는 않고 그냥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직업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고, 대개 아르바이트를 하죠.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까요.”(대안학교 학생)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는 사람을 먼저 만나요.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학교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걸 토대로 제가 찾아봐요. 아는 형이 미용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보를 얻고 해요.”(대안학교 학생)

마) 수리능력

국어 말하기, 쓰기에 비하여 영어나 수학적 능력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칙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칙연산이 되더라도 집중을 요하는 복잡한 사칙연산이 주어질 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스스로는 자신의 수리능력 부족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암산은 잘해요. 옛날에도 수학은 자신 있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덜 배우다 보니까...”(대안학교 학생)

“용접 납품하는 회사에서 3개월간 사무보조를 했었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계산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여섯 번을 옮기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해서 사칙연산은 되지만, 앉아서 하나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계산할 때마다 힘들었어요.”(대안학교 학생)

“읽고 쓰는 것은 하지만 사칙연산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학습적이고 지능적인 부분에서 보통 애들보다 많이 떨어져요.”(대안학교 교사)

“사칙연산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제가 신기한 게 그런데 어떻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대안학교 학생)

바) 문제해결 능력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려 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경향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조망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직업훈련 이후에 직업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사회현장에 나가서 어른의 한 마디가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면 끝이고요.”(대안학교 교사)

“읽기, 쓰기, 말하기, 셈하기를 못 해도 밖에서 생활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이 있으면 잘 헤쳐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있어요.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지요. 예를 들면 에스케이에서 자

동차 정비를 하면, 자동차 정비를 열심히 배우고, 정비 자격증을 따요. 6개월을 수료하면서요. 그 다음 단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실습을 하는데, 거기서 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포기하거든요.”(대안학교 교사)

“본인이 당장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죠. 놀고 싶기도 하고, 특히 이번 8월 같은 경우에 5월달부터 마음을 잡고 있던 애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노는 시간에 이 친구들도 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오히려 취업을 미루거나 다른 공부를 미루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중도 탈락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청소년상담원 교사)

“면접 날짜를 약속해 놓고, 아침에 전화를 해도 자고 있거나 안 가겠다고 하거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핑계대면서... 의욕이 없는 애들은 뭐를 가져다 줘도 못 잡아요. 쥐여 줄 수가 없어요.”(청소년상담원 교사)

사) 조직이해 능력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인정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현재 자신이 소속된 곳에 있는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생활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직생활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적인 성향이 있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직이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해 나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편해요.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

아요. 밤까지 공부하고,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대안학교 학생)

“여기 온 친구들은 다 아프고 힘든 애들이라서 우리끼리 위안이 돼요. 밖에서 적응 못해도 여기서 적응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환경으로 서로 위안이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혼자 밖에서 앓고 하는 거보다 여기가 차라리 난 거 같아요. 그런 환경끼리 모인 게 좋아요.”(대안학교 학생)

“일반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6년간 잘 마친 애들은 자립도가 훨씬 높아요. 자기주도적이고 사회 나가면서 훨씬 좋은데, 일찍 마친 애들은 어려운 거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해 봐서는요.”(대안학교 교사)

“아이들이 굉장히 동적인 아이들이라서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와서 거리 생활을 했고요… 동적인 아이들은 뭐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사회와 부딪치려고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하고, 그게 사회에 나가서 재산이 되는 건데, 안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더 심각하죠.”(대안학교 교사)

“요즘은 최대한 밖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 사람과만 놀려고 해요. 최대한 밖의 사람과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할 거 같은데 다 똑같이 간혀서 못 찾고 흐르는 물대로 가고, 계속 악순환만 계속 돼요.”(대안학교 학생)

3) 장기실업 청소년

가) 의사소통 능력

본 연구에서의 장기실업 청소년은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의 구분을 위해 고졸 이상의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된 바, 장기실업 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수준은 개인에 따른(학력차) 차이가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읽

고, 쓰고, 말하고, 셈하는 등의 기초적인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나, 경우에 따라 지적능력이 떨어져 취업지원 훈련 이전에 상담 등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지적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아니면 읽고, 쓰는 데에는 기본적인 문제는 없으나 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글씨를 써도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개별적인 특징이라서 차이는 있어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읽거나 쓰는 것에 문제는 별로 없는데, 나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교육하기 전에 아이한테 과제를 내줘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 와라 하면 정말 엉망이죠.”(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이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거나 진로를 지원하고, 취업 현장으로 데려가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죠. 이 아이들이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것을 못하면 아예 상담 자체를 못하고… 그런 친구들 자체는 거의 없어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나) 자원활용 능력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 대학교 등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자기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

다. 이러한 경우 주로 저녁시간에 활동하는 편이어서 아침에 교육을 받는다는
가 출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하여 취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장기실업 청소년으로 발
전한 경우 더욱 심각하다.

“잘하는 친구도 있고, 보육교사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남자 친구는 연결을
해줬는데 애들이 밤낮이 바뀌잖아요. 지금 오늘 왔던 애들도 밤낮이 바뀌는 애
들이라서 밤에 놀고 아침에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처음에는 몇 번 깨
워줘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지각을 많이 하고, 가서 즐기고...”(실
업극복단체 담당자)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저희가 오전에 상담을 잡으면 지킬 수 있냐고 물어봐
요. 괜찮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오는 애들이 많고, 그거는 생활 패턴과 시간관
리의 문제예요. 아이들은 똑같이 24시간을 써도 우리들과는 달리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쓰는 거예요.”(청소년상담원 교사)

“밤에 인터넷이랑 게임을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
죠. 이런 아이니까 잘 봐달라고 했는데 그 기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어
요. 그 아이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컴퓨터 활용은 대부분 가능하며, 인터넷 및 문서작성 등의 작업도 가능한 수
준이 많다. 이는 지원기관을 찾는 장기실업 청소년의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고
학력자로 사전 직업훈련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IT 분
야의 훈련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를 찾고 조직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
한 편인데, 이 부분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 보다는 적극성이 떨어져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컴퓨터로 밤에 또래 친구들도 접속하고, 메신저하고, 네이트온 하고…”(실업극복단체 담당자)

“구직효율성검사를 해보면 정보수집 등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안 해봐서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알려주면 금방 배우거든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다) 대인관계 능력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장기간의 실직 상태로 인하여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로 의존적이거나 타인에 대하여 개방적이거나 우호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취약한 애들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상담을 끝내는 경우도 힘들어요. 전화 안 받고, 돌발도 많고,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계속 지지와 격려가 들어가고… 취업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받은 거예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가 심리적 박탈을 당하니까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더라고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저희 기관에 오는 애들은 공부하다 온 애들이나 공무원 공부나 고시 공부한 애들이 오거든요. 그 애들이 힘들기는 해요. 정서불안도 있고, 자존감도 낮아서…”(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라) 자기관리 능력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여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찾지 못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지 못하고 막연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보다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실업 상태가 반복되기도 한다.

“하고 싶은 것도 모르구요. 내가 뭘 할지 자체를 잘 몰라요. 대졸자나 20세 이상의 아이들은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아는데,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좋아하는 것과 상담할 때마다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한 친구가 대학은 나왔지만, 경력은 없고 그런데 자기 기준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일반 사무직 쪽으로 취업 알선을 해드렸는데, 계속 취소를 하는데… 회사가 작다, 연봉이 작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노동부 청년실업지원 담당자)

마) 수리능력

대부분의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들이기 때문에 수리능력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 사칙연산 및 수학적 이해능력은 중·고등단계의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졸 이하의 저학력 장기실업자의 기초학습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장기실업의 경우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리능력을 포함한 기초학습능력 수준은 되는데… 문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장기실업자인 경우는 읽고, 셈하고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그 차가 큰 거죠.”(실업극복

단체 담당자)

“대부분 대졸자구요, 외국에서 유학하다 온 사람, 의대 중퇴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수리능력은 보통 이상은 돼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바) 문제해결 능력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어진 문제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장기실업 기간이 길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친구는 실업고 1학년인데, 상담을 할 때도 얘기 같고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했더니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진로 상담하면서 보니까 군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군대를 어떻게 가는지 자체를 모르는 친구였어요.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가거나 육사를 가야 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해병대나 군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전혀 모르는구나’ 했어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장기 실직한 애들이고,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힘들면 그만둬라 하고... 힘들거나 장기적으로 되면 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사) 조직이해

대학재학 이상의 장기실업 청소년들 중 정부 및 민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이해능력은 다른 취약청소년들에 비해 보통 수준이다. 즉, 다양한 심리상담과 간접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업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기관을 찾은 장기실업 청소년들은 일단 조직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려 노력하는 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대부분 본인 실업의 원인이 상사나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볼 때, 이들의 조직이해 능력 역시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4) 청소년 니트족

가) 의사소통 능력

대다수의 청소년 니트족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부적응이 지속된 경우가 많아 기초학습능력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또는 장기실업 청소년이 니트족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능력이 필요하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에 대한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자성어나 영어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타인과 대화를 함에 있어 집중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빈도가 잦은 편이다.

“우리말 읽고, 쓰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는 아예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했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어른들이 얘기할 때 대화 속에 영어가 들어가면, 듣는 거는 듣고 못 알아듣는 거는 못 알아들어요. 한자 성어는 많이 쓰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몰라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수업을 와도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1:1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준을 낮춰도 안 되는 부분은 워낙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국졸 상태로 너무 오래 있었고요. 중학교 자퇴는 국졸이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오래 있었지요.”(청소년상담원 교사)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얘기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입력시키라고 해요. 그렇게 잘 까먹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또한, 은둔형 니트족의 경우 자신만의 세계에서 생활하다 보니 비현실적 사고를 하거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타인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부족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까지는 많은 라포형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한 애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보면, ‘공상이 있나? 체크해야 하나?’ 이 정도예요. 그런 생활이 오래됐을 테니까 대화가 잘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좀 이상하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의사소통은 돼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친해지면 말 잘하고 의사표현은 잘 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친해지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나) 자원활용 능력

청소년 니트족은 집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하며 생활하는 것이 만성화되어 있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주어진 과업을 제 시간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하여 정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잠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수업도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학교가 싫었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그런 친구는 제 시간에 나타나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일상생활 훈련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그게 따라 가고요, 처음에 와서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저는 뉴스타트 하다가 지금은 이력서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막혀 가지고, 원래 이틀 전까지 냈어야 했는데…”(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주로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외에 인터넷 채팅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컴퓨터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할 게 없어서요. 테트리스 하고, 동영상 그런 것도 봐요… 저희 가족이 다 컴맹이에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인터넷 게임 중독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터넷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요, 집 안에서 인터넷에 관련된 것을 하기는 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좋아하는 사이트가 주로 게임이고, 두 번째로 이용하는 것이 채팅이었어요.… 워드작업은 배우면 할 수 있겠지만, 엑셀 같은 건 잘 못하구요.”
(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다) 대인관계 능력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서 점차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다. 또한,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자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대인관계 능력이 지속적인 접근과 관심에 의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는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학교 안 다니면서부터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귀찮아서 안 가요. 요즘은 운동하려고 나가서 애들도 만나요. 집에 있었더니 살이 너무 찌서 밖에 나가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소셜 쪽 인터넷 동호회 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반대해서 다른 것도 찾아 봤는데 제과제빵회사에 이력서를 쓰려니까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저 AB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찰 같은 게 싫어서 제가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라는 아이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모토상으로 누나를 만들어주는 것을 1차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YC(Youth

Companion-청소년 동반자)가 그런 애들을 만나서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한 번 찾아가면 콧방귀도 안 꺾다가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얼굴을 익히면 애네들도 사실은 사회와 단절된 애들이라서 은연중에 하나의 끈을 잡게 되더라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라) 자기관리 능력

직업의 필요성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개발 등에 무관심하거나, 비현실적인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직업,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직업을 스스로의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주관이 부족하다.

“애네들이 30세쯤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미래의 이력서를 써 보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지금 자기가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것도 말하기 어려워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원래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는데, 검사를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도 맞고 봉사도 맞고 농사도 맞아서 엄마가 1년 뒤에 시골로 가자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뉴스타트 요리사 하고 있어요. 끝나서 취업시켜준다면 취업할 생각이 있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저는 검정고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려는 일이랑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학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가 하라고 해가지고요. 굳이 안 따도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굳이 고졸은 해야 한다고 해서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청소년 니트족은 외부 활동이 거의 없고 집안에서 컴퓨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돈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필요한 돈은 주로 부모로부터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의지도 부족하다. 또한, 향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아 자신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도 없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하는데, 부모님의 돈을 뜯어내면서 생활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부모를 폭행하고요. 어쨌거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거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부모님이 알아봐 줘서 식당에서 3~4개월 정도 일했어요. 돈 벌려고요. 작년인데 이미 다 썼죠. 지금은 아버지께서 주세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마) 수리능력

중졸 이상의 청소년 니트족은 기본적인 사칙연산 정도에는 문제가 없으나, 언어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래프나 도표를 이해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사칙연산은 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자리 수 곱셈, 나눗셈까지는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숫자를 활용해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로 교육을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만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직장생활에 필요한 수리능력이에요... 어느 회사냐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리능력이라면... 글썄요.”(청소년 니트족 지원교사)

바) 문제해결 능력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초에 포기하는 성향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노력에 의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족한 편이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내주면 아예 안 했구요. 시험 볼 때는 그냥 다 찍었어요. (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는데요. 그냥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고...”(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소방관, 경찰, 조리사, 요리사라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다 학력에서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미숙한데 어떻게... 미숙한 만큼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학력에서 걸리는 것 자체가 의욕을 꺾더라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장차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조망이 부족하여 자신의 편의대로 문제를 회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편이다.

“청년 인큐베이팅이라고 급여가 지급이 돼요. 어느 날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하면 ‘월급 까세요’ 이렇게 얘기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아예 못해서 선생님 만나기가 싫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사) 조직이해 능력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타인들과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취약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욱 강한 편이다. 또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고 행동 수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점은 조직 내 구성원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가능해요. 그러기까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요... 이런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많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아르바이트 해 봤는데, 설거지는 일단 하는 건데 요리 보조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안될 때 막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실습은 나가 봤자 꾸지람 들을 게 뻔하고...”(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여기서 친한 친구 없어요. 이력서 쓰는 거 물어볼 친구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가 인맥 같은 것도 없고 더 편했던 것 같아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5) 새터민 청소년

가) 의사소통 능력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한국 사람들이 대화중에 외래어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한국 사람들

이 이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한국 사람의 수준에 맞춘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해주시는 분도 있고, 성격이 딱딱하면 그렇지 못하고요… 여기서는 외래어를 많이 써서 어려워요. 요새는 하도 영어를 많이 외우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했지만 전에는 어려움이 컸어요.”(새터민 청소년)

“저희가 북에서 왔다고 하면, 무시하는 게 있고 배우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새터민 청소년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고요.”(새터민 청소년)

나) 자원활용 능력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탈북 이후 제3국에 체류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시간이 길어 입국 후 시간을 지켜 생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저녁 시간에 놀 것이 많고 컴퓨터를 접하면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업에 늦는 경우도 많았다. 생활의지가 강해 컴퓨터 기능을 습득하는 능력은 빠르나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일을 하는 시간적인 것,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 시간 개념 없이 일하고 해서, 쉬는 시간을 지키고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새터민 청소년)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수업을 듣기 힘들어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밤에도 놀만한 데가 많아서…”(새터민 청소년)

또한, 북한에서의 일의 방식이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보다는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업 수행을 위해 시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일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직무가 험업하고 아이들과 또래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생활이나 개인관계가 주요한데, 거기는 속도전이에요. 10분간 일을 하고 50분간 놀아도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충분히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해요…”(하나원 교사)

“내가 해야 하는 과업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 메모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연습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이고요, 자기 계획을 세워요.”(하나원 교사)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하고 입국 이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직업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직업을 갖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돈의 가치만 보고 택하는 거 같아요. 좋은 직업이라도 조금만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새터민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무연고로 해서 20세까지 위탁시설에 있고, 20세 이상이면 자기가 받는 지원금 혜택을 받고요. 교육보호는 35세 미만에 대학을 입학하면 교육지원을 받는 제도예요. 어떤 취약계층보다도 금전적인 보호는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과 똑같은 근로조건하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회가 우리한테 제공하고 보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너희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에 발끈하지만, 특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불만을 갖는 것이 동시에 있는 거죠... 20세 이상이면 가족과 같이 있는 경우 가족 중의 누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그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가족이 받는 각종 혜택이 줄어들어 드니까..."(하나원 교사)

또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체계적인 정보망 활용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의 믿을 만한 정보보다 자기들끼리의 사이드정보를 더 믿어요. 북한의 정보가 '그렇다고 하더라'는 정보를 더 믿어서 그런 정보를 더 믿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죠."(하나원 교사)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속도가 빠르며, 컴퓨터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은 편이다. 또한, 컴퓨터 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속도가 빠른 편이죠. 컴퓨터 교육에 가장 참여가 잘 돼요. 컴퓨터를 한 사람당 한 대씩 사용하는 복지관이라면 그 교육장은 비교적 잘된다고, 참여도가 높다고 합니다."(하나원 교사)

"그리고 정보화 시대니까 컴퓨터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새터민 청소년)

다) 대인관계 능력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기 때문

에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본인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평적 인간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하고,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한국 청소년에 대하여 열등감 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삶의 목표 설정도 여기 애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목표 설정이 필요 없이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나 대인관계 패턴도 유사해요. 수평관계는 경쟁의 대상이고, 함께 가는 대상이 아닙니다.”(하나원 교사)

“애들이 하나원 나가서 자기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를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학력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고 문화차이도 많이 나서 가면 말라죽을 상황이에요... 대학에 가서도 왕따라든가 따돌림을 경험하고, 직장에 가면 이런 것이 더 심화되죠. 해가 갈수록 나는 더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하나원 교사)

“단편적인 예로, 다문화가정의 애는 ‘엄마는 필리핀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보이고, 자기가 숨길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탈북청소년은 그게 학교에 남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요소가 돼요.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맹세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 수업에 들어가서 하는 거래라는 거예요.”(하나원 교사)

라) 자기관리 능력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성장한 탓에 진로를 결정하고 경쟁을 통해 희망하는 것을 획득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성공에 대

한 열망이 강한 데 비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잡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쉽게 좌절감,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성공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열심히 살겠다, 꼭 성공하겠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뭐가 먼저이고 뭐가 후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요.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돈도 벌고, 학력도 가지고... 그런데, 생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보통 좌절을 안 하는데, 이들은 쉽게 좌절을 해요. 현실을 모르고 거기서 오는 실망감. 그러면 ‘되는 대로 아무거나 하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하나원 교사)

이들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직업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서의 직업 개념에 기초해 있는 경우가 많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직업 선택의 기준도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청소년과는 달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입소할 때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가 전부 해 봐야 30개가 안 돼요. 또, 자기들이 했던 직업이 우리나라 1960, 1970년대의 단순한 직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칭되는 것도 없고요...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거예요. 실력과 상관없이요... 진로 적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자기가 거기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은 계급사회라서 자기가 특정한 대학을 나온 자신이 다른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니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직업 선택을 할 때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려하기보다는 단편을 가지고 확고하게

결정을 해요.”(하나원 교사)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면 다 취직이 되고, 직업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미래의 보장이 다 되는 거고,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이들은 대학을 가면 성공인데, 대학을 나와도 직업을 배치해 주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하나원 교사)

“북한에서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대학교를 졸업해도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직장에 다니면 되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찾아야 하고 해서… 지금은 우리끼리 교육을 받지만, 대학 가면 한국 친구들과 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게 불안해요.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딸리잖아요.”(새터민 청소년)

마) 수리능력

북한의 교육체제는 한국과 달라 동일 수준의 학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수리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내용이 우리랑 달라서 똑같은 수학문제도 제 생각에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같다고 보는데, 표현 방식이 우리랑 그들이랑 달라서 원리를 알고 있는데 지시된 문제 내용을 해석을 못해서 못 풀고 있어요.”(하나원 교사)

“저는 수학 수업을 들을 때 힘들었어요. 기초적으로 안 배우고 올라와서 스트레스 받고 좌절감을 느끼지요.”(새터민 청소년)

바) 문제해결 능력

북한 체제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자 태도로 이들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변의 권위자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경쟁을 통해 얻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수평관계는 경쟁의 대상이고, 함께 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래의 수평적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도 수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친구들과도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먼저 일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북한이라는 사회가 길러내려고 했던 체제에서 습득한 것으로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하나원 교사)

“경쟁을 안 하려고 해요.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대 의대를 2명이 지원하면 자기 아들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하는 거예요. 실은 새터민 청소년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될 확률을 생각하고 거기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광주에 집을 지원했는데 광주는 새터민 청소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남대 의대를 지원하면 자기 아들 하나만 있으니까 거기서는 자기 아들이 다 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하나원 교사)

사) 조직이해 능력

북한체제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수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것에는 중요성이 덜하다. 때문에, 학습을 하면서도 하는 것에 비하여 아는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의 할당량을 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간의 협업에 의한 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무관심한 편이어서, 실제 남한 사람들과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는데 nice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계속 쓰고 있는데 너 스펠링이 맞느냐고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일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직무가 협업하고 아이들과 또래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생활이나 개인관계가 주요한데, 거기는 자기가 주어진 과업을 충분히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하는 뻑뻑이를 하면 단어를 몇 개 외운 것보다 오늘 내가 할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하나원 교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분명해요. 최소한 자기가 만든 것만 하면 되니까 그 외에는 필요 없었고, 정교한 것이 발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빠른 속도로 사고가 분할됐어요. 정교하게 발달돼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들의 인지능력의 발달 완성이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장에 내놔도 경쟁력이 없어요. 가도 거기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고… 동포니까 함께는 해야 하는데 같이 일하자니 답답한 거죠.”(하나원 교사)

또한, 북한과 남한의 직업관이나 직업상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직업에 대하여 다른 기대를 갖기도 한다. 이에, 남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 내에서 개인이 어떠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지난주에 용인시청에서 새터민 청소년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다고 면접관으로 갔어요. 자기는 뭘 잘하느냐고 자기를 얘기하라고 하니깐 거기는 공무원이 싫어요.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춤과 노래를 즐겨서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거는 공무원과 잘 안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할 텐데,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아주 어려우면 춤추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거기에 개념이 맞는지 아닌지 감을 못 잡는 거죠.”(하나원 교사)

“탈북 여성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직업의식과 관련이 되고, 북한 사회와 연결이 돼요. 배우가 수령의 부인이었는데, 배우가 가진 월등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배우가 인기 받고, 돈을 많이 벌지만, 직업적으로 고귀하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들한테는 가치가 있어요. 배우나 연예인은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하고 높은 직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단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데 본인들은 그것에 도취해서 생각해 있고, 그러면 인식의 차이가 나고요. 서비스 직종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일로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직업적으로 노력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닥에 있는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당신이 서비스직을 했을 때, 주변에서 받는 사회적 대우나 평가는 이렇다고 하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놀라고요.”(하나원 교사)

제4절 시사점

이 장에서는 취약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의 대상을 규정하고 관련 문헌 분석 및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와 취약청소년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취약청소년의 취업특성 및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와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아동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자로 만 12세에서 만 24세 미만인 자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경제사정의 악화로 증대되고 있는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취약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헌분석 결과, 취약청소년의 유형은 저연령 비진학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범죄 또는 위기에 놓인 위기 청소년, 취업의지가 없는 청소년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능, 자격, 태도, 동기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의 불완전 고용상태에 처하거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가 많아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 많은 현실적 제약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새터민의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내 입국 탈북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높은 학교탈락률 등으로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학교-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 효과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취약청소년에 새터민 청소년의 포함이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제안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경제사정의 악화로 증대되고 있는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둘째,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취업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기청소년은 개인, 가정, 지역사회 및 환경의 부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적·심리적 문제가 유발되어 학교생활 및 학업에 부적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전한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다. 이들의

가정환경은 결손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생활습관이 일상적 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직업기초능력에 있어서도, 자기관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특히 낮아 문제 상황을 폭력이나 일탈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충동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으로 탈학교하였거나, 현재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한다(노경란 외, 2008b).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일수록 실업률이 높으며, 이들 역시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연한 결과이나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기초능력 중 수리능력에 대한 결손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비진학을 선택한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 등 조직체제 이해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진학으로 인한 저학력이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차별하는 요인임을 깨닫고 대안학교 등에서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학습능력의 저하와 낮은 자기관리 능력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에 성공하는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 청소년은 일반적인 실업자의 정의인 일정한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구직상태에 있는 자(고용보험 시행령 제20875호)이면서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의 구분을 위해 고졸 이상의 만 24세 미만인 자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즉,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일찍 투입된 저학력 장기실업 청소년을 제외한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한한다. 구직을 원하나 장기간의 구직실패 경험으로 인해, 이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고, 다른 유형의 취약청소년에 비해 수리능력이 보통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취업과 관련된 이력서 작성 및 면접법 등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위

기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발전되어 장기실업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니트족은 청소년 중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정의될 수 있다(김기현, 2005). 이들은 무의지·무능력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둔형과 아주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만을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 부적응 상태가 지속되면서 니트족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인터넷이나 게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에 은둔기간이 길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직업기초능력은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이며, 장기간의 은둔생활은 기본생활습관의 미형성과 낮은 기초학습능력을 초래하고 혼자만의 생활로 비현실적인 정신병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니트족 역시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나, 장기실업 청소년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새터민 청소년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연령인 자로, 2007년 4,700여 명으로 매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들은 급격한 사회체제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과 남한사회의 부적응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존감과 자립에 대한 의지가 높은 반면, 사회체제의 차이로 수리능력 등의 기초학력능력이 낮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정보와 통찰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 집단으로 조작적 정의한,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들은 유형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생활습관의 미형성과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대인관계 능력이나 조직이해 능력,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문제해결 능력이 심각하게 결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 특성에 따라 그 활용능력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정보화세대인지라 컴퓨터에 친숙하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서작성이나 정보 찾기 등의 전문적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언어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이들의 언어적 파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문제해결을 주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의 병행이 시급히 요구되며,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장기실업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의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습능력의 보완을 통한 상위학력의 습득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청소년 니트족은 오랜 은둔생활로 인한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 등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며, 새터민은 올바른 취업관의 형성을 통한 남한사회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보완이 요구된다.

<표 2-44>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실태

	의사소통 능력	자원활용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조직이해 능력
위기 청소년	언어파괴 심각	경제관념 없음 컴퓨터 사용률은 높으나 활용률은 낮음	폭력적 타인 신뢰율 낮음 피해의식 높음	기본 생활습관 미형성 진로계획 없음	사칙연 산도 어려워 하는 수준	문제 상황에서 포기·회피 적응률 낮음	일탈률 높음 권위, 복종에 대한 반감 높음
저학 력 비진 학 미취 업 청소년	어휘력 낮음	경제관념 없음 컴퓨터사용률 은 높으나 활용률은 낮음 시간관념 없음	타인에 대한 불신이 많아 정상적 대인 관계 어려움	기본 생활습관 미형성 구체적 진로 계획 없음	수리능 력가장 부족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음	조직생활 에 대한 반감이 높음. 소극적임
장기 실업 청소년	기본적 언어사용 능력 보통수준	컴퓨터사용 률은 높으나 활용률은 낮음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	기본 생활습관 미형성 통찰력이 낮고 구체적 진로 계획 없음	수리능 력보통 수준	자립에 대한 의지는 있음 적응력부 족	조직생활 에 대한 두려움
청소년 니트족	혼자생활 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 낮음 비현실적 (정신적 문제동반)	인터넷 중독자 많음	경쟁심 없음 가족 의존율 높음 타인불신	기본 생활 습관 미형성 시간관념 없음	사칙연 산정도 만 가능한 수준	문제해결 동기와 자신감 낮음 문제회피	타인과의 공동생활 거부
새터 민 청소년	어휘력, 특히 외래어 사용 능력 낮음	경제관념 없음 컴퓨터활용 능력 높음	경쟁심 없음 타인불신	규칙적 순응적 복종적	수리능 력차이 크	권위자(타 인)에게 의존	남한과의 직업관 차이로 협업 안됨

제3장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이수경

제1절 국내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정부부처인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정부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부

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청년실업의 문제는 선진 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 주요국들의 해결방식은 청년들의 실업이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사회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

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노경란 외, 2008b).

현재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당위성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인수·김기민, 2005). 이에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청년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인 YES(Youth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OECD 국가들에서 실업자, 취약계층,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취업지원, 일 경험, 직업훈련, 보수교육,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Quintini & Martin, 2006).

YES 프로그램 역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탐색 및 구직기술 제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도 전국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5개소를 통하여 6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에서는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취업취약 청년층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정책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로써 YES 프로그램은 정책대상자를 '취업취약 청년층'으로 특화하였고, 개별 심층상담을 기초로 한 맞춤형 종합고용서비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노경란 외, 2008b). 2009년 현재는 YES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운영주체는 크게 사업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노동부와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지방노동관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구성 등의 지원을 하는 한국고용정보원 등이다.

<표 3-1>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운영주체	역할 및 업무
노동부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확정 : 청별 선정된 위탁기관 조정·확정 ○ 종합홍보 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활용 홍보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
노동부 지방 노동 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은 예산 범위내 사업 목표인원의 달성과 적절한 서비스의 시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관장함 〈청 종합고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별)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기간, 대상인원, 예산의 확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관내 관서별 목표인원 및 예산 배정(민간위탁 포함) - 자체 홍보계획의 수립 :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재, 지방언론기관 이용 등 - 참여자 모집·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희망자의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참여자 선발 및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실시 · 참여수당의 지급결정·지급 및 Work-Net 입력·관리 · 참여수당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 인트라넷 관리 : 신청현황 관리, 매 회차 운영 관리(중도탈락, 이수 현황, 서비스 진행 현황 등), 수당지급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용정보원 전산프로그램 지원 협력 - 예산집행 관리 : 위탁사업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사업종료 후, 참여 및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단가로 지급 - 사업운영 평가 : 종합평가 실시, 개선안 마련 - 기타 참여자의 상담 및 지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탁기관 선정·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의 모집 및 선정, 지원규모 결정, 지원약정 등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제안서 접수, 선정위원회 심의 및 최종선정, 사업위탁운영 약정체결 등 포함 · 위탁기관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및 운영 실태의 지도·점검 · 위탁기관의 참여자 상담·관리, 취업 추진 실태 지도 및 지원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홍보계획의 수립 :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재, 지방언론기관 이용 등 - 참여자 모집·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희망자의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참여자 선발 및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실시

〈표 계속〉

운영주체		역할 및 업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수당의 지급결정·지급 및 Work-Net 입력·관리 · 참여수당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 인트라넷 관리 : 신청현황 관리, 매 회차 운영 관리(중도탈락, 이수현황, 서비스 진행 현황 등), 수당지급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용정보원 전산프로그램 지원 협력 - 예산집행 관리 : 위탁사업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사업종료 후, 참여 및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단가로 지급 - 사업운영 평가 : 종합평가 실시, 개선안 마련 - 기타 참여자의 상담 및 지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탁기관 신청접수·지원약정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의 신청 접수 및 지원약정 체결 등 ※ 위탁기관 제안서 접수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중합센터로 제출 · 위탁기관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및 운영실태의 지도·점검 · 위탁기관의 참여자 상담·관리, 취업 추진실태 지도 및 지원<관리과> - 참여수당 지급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은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진행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 ○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청구·확보하고 참여자 모집 및 2단계 프로그램 연계·관리, 직장체험실시기관·참여자 취업처 발굴 등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정 조치 ○ 위탁기관은 참여자의 서비스 상황을 확인·지도하는 등 사업진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보고
	한국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이라 한다)은 청년층 뉴스타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성 및 매뉴얼 제작에 적극 협조 ○ 한고원은 서비스 실시기관(지방관서 및 민간위탁기관)의 직업진로지도·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
	심사(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평가)위원회는 본부 및 지방관서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타당성·규모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차기년도 선정 시 우선권 인정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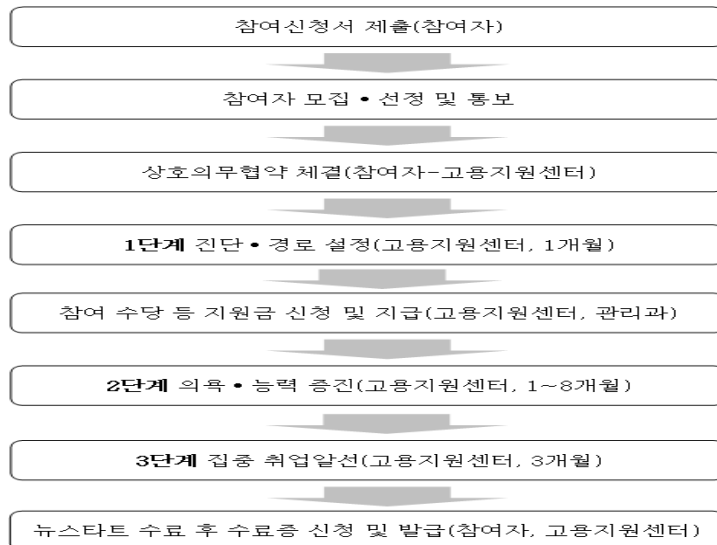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2008. 12).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 지침』, 재구성.

2) 관련부처 추진 체계

사업의 실질적 진행은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위탁기관이 추진한다. 이들의 역할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1단계에서 3단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체적 진행과정은 같으나, 위탁기관은 사업성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추진 체계는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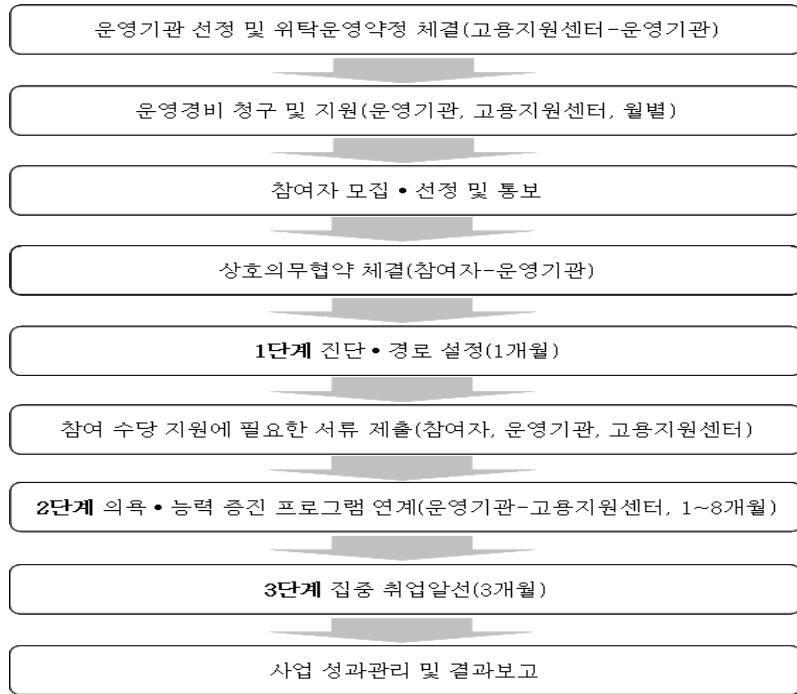
[그림 3-1] 종합고용지원센터 추진 체계



자료: 노동부(2008. 12).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 지침』.

민간위탁기관의 추진 체계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운영기관의 선정 및 체결과 관련된 과정이 추가되었을 뿐, 세부적인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 내용은 지방노동관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림 3-2] 민간위탁기관 추진 체계



자료: 노동부(2008. 12),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 지침』.

3) 관련 법규

고용정책기본법의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와 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 지침 등의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4)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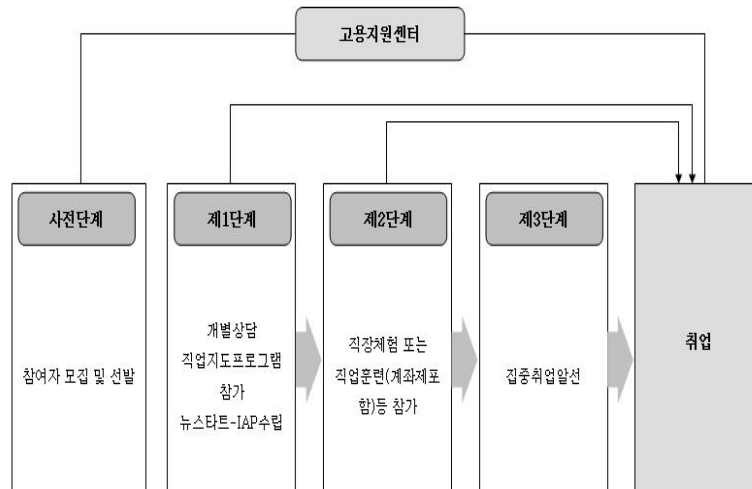
2009년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실업급여 비수급 청년층(만 15~29세) 중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실업 청년, 니트족, 위기청소년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으로 2009년 정부의 목표

인원은 약 10,000명이다.

5) 추진 내용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 내용은 다음의 [그림 3-3]과 같다. 즉, 사전 단계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하여, 제1단계에서는 개별 상담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가 이루어진다. 제2단계에서는 직장체험과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참가가 이루어지고 제3단계에서 집중취업 알선이 진행된다.

[그림 3-3] 단계별 진행 내용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단계별 세부 내용

단계(기간)	세부 내용
사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상담 예약 ※ 본격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사전 접수 및 등록을 하는 단계
제1단계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기초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 · 2차 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해석, 구직효율성 검사 실시 · 3차 상담, 구직효율성 검사 해석, 뉴스타트-IAP 수립,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 상담 · 4차 상담, 직업가치관 검사 실시와 해석 · 5차 상담,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 및 2단계(또는 3단계) 연계 준비 · 6차 상담, 뉴스타트-IAP 수립, 만족도 조사 ※ 6차에 걸친(약 4주 소요)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참가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모색
제2단계 (1~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에서 수립된 취업계획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체험을,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직업훈련을 제공 ※ 참가자의 특성과 희망에 따라 적합한 직장체험이나 직업훈련이 있을 경우, 연계서비스 제공
제3단계 (최대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를 통해 파악된 적성·능력을 고려하여 집중 취업알선 · 기업탐방 또는 동행면접, 적합한 구인처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 취업 지원 · 구직기술 클리닉 서비스 및 취업알선 ※ 참가자가 적합한 곳에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동행면접이나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관련 정보의 제공, 기업탐방 등의 기회를 상황에 따라 제공하며, 구직기술 클리닉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에 집중하는 단계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재구성.

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 추진 배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추진 배경은 경기부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시행계획, 2008.12).

2) 관련부처 추진 체계

노동부(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지방노동관서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 그 후 지방관서는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운영주체별 상세한 역할과 업무는 다음 <표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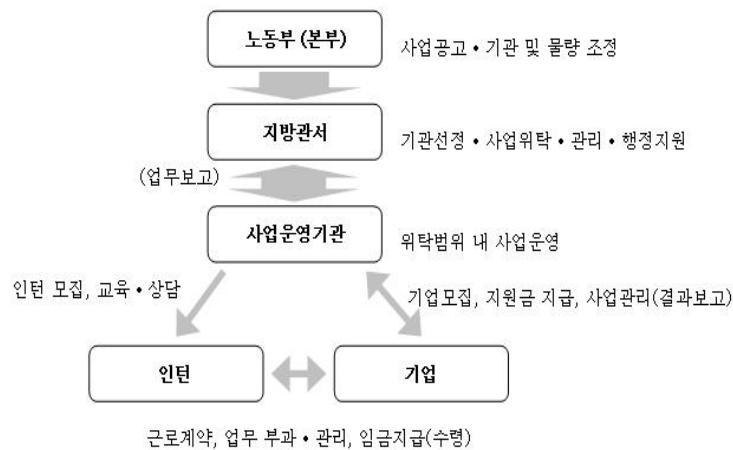
<표 3-3>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운영주체		역할 및 업무
노동부	노동부 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지방 노동관서 (이하 '지방관서')	· 운영기관 참여신청 접수(지청) 및 심의·선정 (지방노동청) · 운영기관과 인턴 위탁운영계약 체결 ·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교부 정산 ·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의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전반적 인턴 시행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 실태 지도·점검 · 인턴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결정 취소·반환에 관한 처분
운영기관		· 적절한 방법으로 미취업청년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희망 인턴 및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희망자 모집 및 알선 · 인턴희망자에 대한 개별상담·사전직무교육 실시 · 인턴 희망자와 실시 기업 간 인턴약정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후 진행 지도 · 관리 인턴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및 정규직 채용 후 지방노동관서에의 지원금 신청 지원

자료: 노동부(2009.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재구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기관별 역할·추진 체계는 다음의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추진 체계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2008. 1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시행계획』, p.2.

3) 관련 법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 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의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4) 지원 대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한다(다만, 학교 휴학 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대상 인원은 25,000명 정도 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및 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자는 최우선 선발·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사람,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DB로 조회 가능한 유사 취지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사람,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 중인 사람,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하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진 내용

운영기관은 인턴 개시 이전에 인턴 참여자에게 3일(또는 15~18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전직무교육은 인턴 개시 전후에 인턴(희망자)을 대상으로 인턴과정(중소기업 이해, 직장매너, 직업과 삶, 면접특강,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며, 교육시간은 15~18시간 정도이다. 사전직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중소기업인력개발원,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인턴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근로기준법 상의 통상 임금)의 50%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저 월 50만 원 최고 월 80만 원 한도 내로 하며,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인턴 기간은 약정으로 정한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 기간 중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6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인턴 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의 잔여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당해

연도 인턴을 추가로 허용한다.

인턴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그 기관장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인턴 근무경험이 유사직종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노동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제도 내용을 크게 개선,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동부 보도자료, 2009. 5. 25).

가) 유급훈련제도 및 멘토링 시스템 도입

인턴제가 본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인턴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 및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절차를 거쳐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나)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 강화

취업애로를 겪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즉,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¹⁾한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 기간 중 임금의 70%(60만 원~96만 원 한도)를 지원하였다.

다) 인턴 채용 실시대상 기업 및 인턴 참여자 요건 개선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5인 이상)의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도 인턴제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인턴 참여요건으로서 미취업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비자발적 실직자나 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불

1) 고용지원센터나 민간 위탁기관에서 실시중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1단계 수료자로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완전 취업자는 미취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연령도 군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만 30세 미만의 요건을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추첨을 통해 사업예산이 346억 원 늘어남으로써 전체 대상 인원도 기존 25천 명에서 32천 명으로 늘어났다.

다. 청년 직장체험 사업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직장체험·연수 프로그램은 1997년 이후 청년실업대책 정부 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직장체험·연수 프로그램인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근거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1999년 '정부지원인턴제'로 처음 시작된 이래, 2002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후, '취업지원제'는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과 사업효과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폐지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수지원제'만 실시되고 있다(박가열 외, 2009).

2) 관련 부처 및 추진 체계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크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운영·연수 실시기관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부와 연수진행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 실제 연수를 진행하는 연수 실시기관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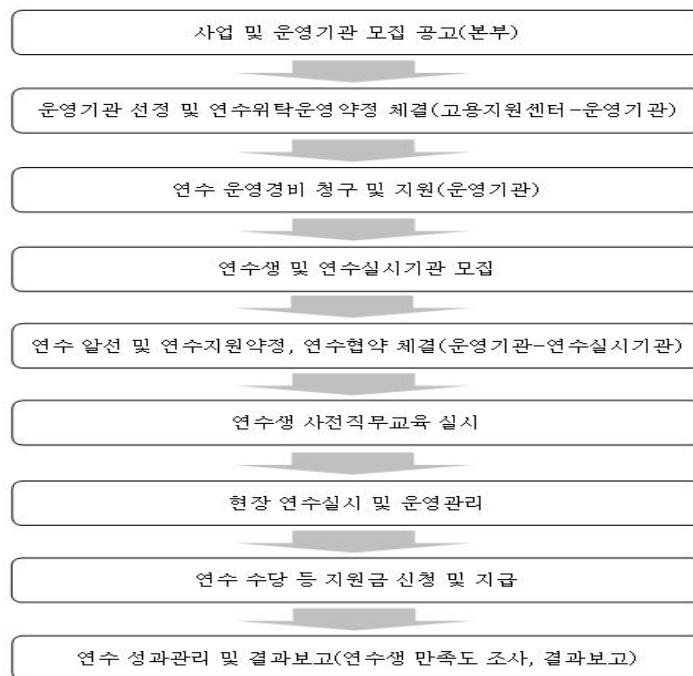
<표 3-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운영주체		역할 및 업무
노동부	노동부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지방노동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 연수 희망자 및 연수 실시기관의 신청서 접수 및 알선 - 운영기관의 모집 및 선정, 연수지원 규모 결정 - 운영기관 및 연수 실시기관과 위탁운영약정 및 연수지원약정 체결 - 지원금의 지급 결정·지급 및 Work-Net 입력·관리 -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 운영기관 및 연수 실시기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센터와 연수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연수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 수행 - 위탁연수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청구·확보,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 연수생을 적격 연수 실시기관에 알선, 선발된 연수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연수생·연수 실시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Work-Net 입력·관리 - 연수 실시기관의 연수 상황을 확인·지도 및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연수실시 결과 및 성과 보고
연수 실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침, 연수협약서, 연수지원약정서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수생에 대한 사전직무교육, 특별 업무과제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연수체 운영

자료: 노동부(2008. 12).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시행지침 주요 내용』, 재구성.

한편, 청년직장체험사업의 추진 체계는 다음의 [그림 3-5]와 같다. 즉, 본부에서 사업 및 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연수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운영기관에 연수운영경비 청구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운영기관은 연수생 및 연수 실시기관을 모집하여 연수 실시기관과 연수협약을 체결한 후, 연수생의 사전직무교육과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이의 결과는 연수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하게 된다.

[그림 3-5] 청년직장체험사업 추진 체계



자료: 노동부(2008. 12).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시행지침 주요 내용』.

3) 관련 법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 사업의 실시) 등의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4) 지원 대상

연수 실시 시작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졸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1개월 이상인 사람,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사람,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사람,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진 내용

가) 사전직무교육의 개념

연수 실시 전후에 연수 참가희망자 또는 개시자를 대상으로 연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본 연수를 실시하기 전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연수 실시 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나) 사전직무교육 실시기관

운영기관은 연수 실시 전 직무교육을 최소 1일(4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수생이 연수 실시기관에 배치된 후, 연수 실시기관은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운영기관 및 연수 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기준에 의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사전직무교육은 지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변경 가능하다.

다) 사전직무교육 내용

직업의 현실, 직장매너, 직업과 삶, 프리젠테이션 기법, 면접 특강, 자기주장 훈련, 이미지 메이킹, 개인 컨설팅, 발표력 실습,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장직무교육은 주로 현장 오리엔테이션, 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연수 실시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라) 참여자 지원내용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월 4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연수 실시기관은 여건에 따라 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연수수당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연수생에게 매 월단위로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연수 출석일수 산정 방법에 의해 출석일을 계산하여 출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수생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는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학점(또는 단위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지원센터는 연수 참가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수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기업 입사 등 직업선택 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이력사항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인증서 발급 신청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6) 추진 결과

연수지원제는 1999년 정부지원인턴제로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 이를 확대하여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중 연수지원제는 2002년 총 381.3억 원 규모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제도홍보의 미흡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은 예산의 약 61.5%인 234.4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2003년부터 활용기업이 급증하기 시작해 2003년의 경우 지출액(458.8억 원)이 무려 전년 대비 95.7%가 증가하였다.

2006년은 33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수지원제만 시행되는 제도변경의 영향도 있다. 2007년은 다시 전년 대비 18.0% 증가하여 392.2억 원이며, 2008년은 41.1% 감소하여 230.9억 원(10월 현재) 지출되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2006년도 총 397.8억 원(10.2% 감소), 2007년도 347.2억 원(12.7% 증가), 2008년도 220.1억 원(36.6% 감소)으로 예산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박가열 외, 2009).

<표 3-5>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본예산)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이월	전용					
'02	계	60,000	21,169		81,169	61,089	15,775	4,305
	취업지원제	21,870	21,169		43,039	37,643	4,790	
	연수지원제	38,130			38,130	23,446	10,985	
'03	계	64,293	15,775		80,068	59,147 (44,410)	19,523	1,398 (340)
	취업지원제	31,870	4,790		36,660	13,262 (9,618)	7,337	
	연수지원제	32,423	10,985		43,408	45,885 (34,792)	12,186	
'04	계	84,627	19,523	1,016	105,166	105,149	6	11
	취업지원제	29,160	7,337		36,497	28,082		
	연수지원제	55,467	12,186	1,016	68,669	77,067	6	11
'05	계	62,453	6		14,400	76,859	69,678	6,834
	취업지원제	18,144				18,144	22,110	
	연수지원제	44,309	6		14,400	58,715	47,568	
'06	연수지원제	39,781	6,834		46,615	33,247 (26,467)	11,046	2,069 (2,015)
'07	연수지원제	34,718	11,046		45,764	39,215 (28,511)	5,682	867 (525)
'08.10	연수지원제	22,011	5,682	▲277	27,415	23,090		

주: 1999년 1월에 도입된 정부지원인턴제가 2002년부터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부터 취업지원제는 폐지하고 연수지원제만 시행.
 자료: 박가열(2009),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 추적조사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430천 명의 청소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사업규모는 축소하되, 대학 및 경제단체 활용 등 사업시행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2009년 예결위 심의 당시 정책대상에 따른 사업 명칭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에서 '청년 직장체험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대학재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사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바. 청소년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Job School)

1) 추진 배경

노동부 소속인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 및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을 실시하고 있다.

잡스쿨은 청소년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스스로 직장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현장직업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조기 직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을 통한 공공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2) 관련 부처 추진 체계

잡스쿨은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선택을 도와주고, 직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직업특강, 대학전공 체험, 기업체 견학 및 현장직업인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3) 지원 대상

각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한해 총 5회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 회당 신청인원은 4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중식 및 차량을 제공한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관내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청소년 및 학부모 그룹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편부모 자녀, 소외지역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청그룹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4) 추진 내용

잡스쿨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일정은 직업정보 및 진로탐색 강의가 이루어지면, 대학교수의 강의를 통한 전공 체험과 기업체 직업체험 및 현장 직업 강의로 진행된다.

<표 3-6> 잡스쿨의 일정

일정		내용	
1일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정 및 주의사항 등 안내	
	직업정보 및 진로탐색 강의	직업의 이해, 직업정보 탐색방법 및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동향 등에 대한 강의	
2일차	08:00	집합 · 이동	전세버스를 이용해 대학교로 이동
	1시간	학과 교수강의	체험 분야의 직업세계 및 고용동향, 산업전망, 기술 동향, 건전한 직업관 등에 대한 강의 (대학교수)
	3시간	직업체험	체험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체험 실습 및 전공실습 (대학조교 및 현장 직업인)
	1시간	중 식	대학 구내식당 및 학교 근처 식당
	3시간	기업체 견학	기업체의 실무현장(산업현장)을 견학하고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 (현장 직업인 강의 및 직업체험)
	17:00	수 료	수료식, 기념촬영, 귀교

자료: 노동부(2009).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안내』, p.3.

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1) (고등학생용 CAP+/대학생용 CAP+)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청년층 대상자가 자신의 직업가치관과 흥미, 선호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청년층 대상자가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고 경험을 거듭해 나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은 서울청(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청(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청(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경인청(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광주청(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의 5개청 15개 종합고용지원센터이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참가자 10~15명 정도가 한 반으로 구성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6시간씩, 금요일은 3시간씩 진행되어 총 4.5일간(27시간 수료) 진행된다. 참여자에 대한 훈련수당은 없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구직자 등 청년은 누구나 가능하며 특별히 정해진 참가자격은 없다.

고등학생 직업지도 프로그램(만 15세~18세 권장)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진학을 포함해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학생용 직업지도 프로그램(만 19세~29세 권장)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및 구직기술 향상으로 취업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일정 등을 담당자와 협의한 뒤 프

로그래에 참여할 수 있다. 단체신청 시에는 모듈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 또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와 협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진행자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업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표 3-7>, <표 3-8>과 같다.

<표 3-7> 고등학생용 CAP+ 주요 내용

훈련일	주요내용	사례소개
첫째날	A. 나를 만나러 가는 길	1. 진행자 및 전체 활동 소개 2. 별칭짓기 공통점 찾기 3. want-have list 작성 4. 내 꿈의 변천사
	B. 내안의 나를 찾아서 I	1. 팬찮은 나, 발견하기 2. 나의 직업가치관 탐색기 3. 간편 흥미검사 실시 4. Holland 흥미유형 해석기 5. 흥미유형 탐색 활동 6. 기타 진로검사 안내마무리
둘째날	C. 내안의 나를 찾아서 II	1. 나의 학습 특성 알아보기 2. 학업과 직업능력과의 관계 이해
	D. 커리어 네비게이션 I	1. 직업에 대한 이해 2. 직업에 대한 이해 다지기(OX 퀴즈 게임) 3. 학과와 진로 관련성 이해 4. 나의 전공 나의 진로
셋째날	E. 커리어 네비게이션 II	1. 이런 직업이?(동영상) 2. 진로정보 길라잡이 3. 정보전쟁 길라잡이
	F. 결정은 내가 한다	1. 우주 타임캡슐 2. 의사결정 유형, 그 실체와 진실 3.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실습
넷째날	G-1. 올라가자, 내 꿈의 사다리	1. 꿈의 사다리 작성하기 2. CAP과 한 나의 역사, CAP 종합장 작성하기 3. 자기 PR 스크립트 만들기
	G-2. 올라가자, 내 꿈의 사다리	1. 꿈의 사다리 작성하기 2. CAP과 한 나의 역사, CAP 종합장 작성하기 3. 세 명의 석공이야기(만화컷)

<표 계속>

훈련일	주요내용	사례소개
	H-1. 나를 표현하자	1. 모듈 활동 내용 소개 2. 자기 PR UCC 만들기 3. 가상추천서 쓰기
다섯째날	H-2. 진학면접 길라잡이	1. 대학 진학 면접의 기초 이해 2. 모의 대학 진학 면접 실시 3. 모의 면접 피드백
	I. 꿈의 무지개를 찾아서	1. 그려 보자! 나의 진로무지개 2. 기분 좋은 폭격: 장점폭격 3. 과정정리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재구성.

<표 3-8> 대학생용 CAP+ 주요 내용

훈련일	주요내용	사례소개
첫째날	A. 나를 만나러 가는 길	1. 진행자 및 전체 활동 소개 2. 별칭짓기 공통점 찾기 3. want-have list 작성 4. 내 꿈의 변천사
	B. 내안의 나를 찾아서	1. 과거로 떠나는 여행 2. 직업선호도검사 실시기 3. 현재 나의 모습은? 4. 직업선호도검사 해석기
둘째날	C. 커리어 내비게이션	1. 직업의 가치, 개념, 특성 이해(사례분석) 2. 직업인의 삶 이해(동영상) 3. 취업성공담을 통한 성공요인 파악
	D. 기업정보여행	1. 기업의 원리 이해 2. 기업정보 탐색
셋째날	E. 결정은 내가 한다	1. 우주 타임캡슐 2. 의사결정 유형, 그 실체와 진실 3.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실습
	F. 나를 표현하자 I	1. 이력서 작성법 2. 자기소개서 작성법
넷째날	G. 나를 표현하자 II	1. 이미지메이킹 이해 2. 면접전략 이해
	H. 모의면접	1. 모의면접 실시 2. 모의면접 피드백 공유
다섯째날	I. 나를 넘어서	1. 비즈니스 매너 2. 기분 좋은 폭격: 장점폭격 3. 과정정리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재구성.

2) 취업 희망 프로그램

취업 희망 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희망으로 인간관계 향상과 취업 및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희망 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은 서울청(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청(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청(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경인청(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광주청(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의 5청 15개 종합고용지원센터이다.

취업 희망 프로그램은 참가자 8~12명 내외로 구성되며, 4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 대한 훈련수당은 없다.

참가자격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접수상담 후 참가 가능)이며, ① 자신감을 증진하고 싶은 사람, ② 회사 취업 후 인간관계 적응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 ③ 취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및 취업과 회사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 ⑤ 나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희망을 하고 싶은 사람, ⑥ 대인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취업 희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지원센터에 전화접수를 하거나 인터넷 접수(www.work.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취업 희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취업 희망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훈련일	목적	목적과 큰 제목	소제목과 구체적인 활동
첫째날	심리적 취약계층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1. 빗장열기	· 특파원 게임 · 소감나누기 · 레크리에이션 · 집단규칙 알려주기
		2. 나와의 만남 I	· 작품으로 한 컷
		3. 나와의 만남 II - 교류분석	· 활동소개 · 활동 및 교류
		4. 나와의 만남 III	· 역경을 통해 발견한 나의 힘
		5. 새롭게 알게 된 나	· 자아의 외침
둘째날	첫째날 활동을 통해 다루어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초 소양과 기술을 익힌다.	1. 우리는 한 운명	· 우리는 한 운명
		2. 건강한 만남의 조건	· 자존감과 일치적 대화방법 소개 · 일치적 대화방법 검사실시와 해석
		3. 효과적인 대화 방법	· 내 마음 헤아리고 전달하기 · 방해요소 인지하고 극복하기 · 상대방 마음 헤아리고 전달하기 · 신체언어 인지하고 표현하기 · 일치적 대화하기 역할연습
셋째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일)을 결정하고, 결정한 직업(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구직의 노력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1. 내 삶의 버팀목	· 활동소개 · 보충자료 작성 · 나누기
		2. 나의 특성 살펴보기	· 활동소개 · 나에게 중요한 것-가치 · 내가 잘하는 것-강점과 능력 · 내가 좋아하는 것-흥미
		3. 동영상 시청 및 감상나누기	· 동영상 감상 및 소감 나누기
		4. 안성맞춤 직업 찾기	· 나의 희망 직업 · 대차대조표를 활용한 안성맞춤 직업 선택
		5. 직업정보 찾기	· 정보 탐색

<표 계속>

훈련일	목적	목적과 큰 제목	소제목과 구체적인 활동
넷째날	셋째날까지의 활동을 통해 갖게 된 변화 의지가 실생활에 이어지도록 장기적인 목표 및 프로그램 수료 후 2주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1. 꿈을 현실로 : 계획 세우기	· 장기목표 및 단계별 계획세우기 · 2주간의 계획 세우기
		2. 프로그램 마무리	· 전체 소감나누기 · 동아리 구성 및 카페 소개 · 노동부 프로그램 안내 · 사랑의 선물 · 수료증 수여 및 축하파티
다시 만나는 날	넷째날(희망으로 가는 날) 수립했던 2주간의 실천 계획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애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 프로그램 소개 및 실천계획 돌아보기	· 환영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실천 계획 돌아보기 및 소감 나누기
		2. 개별 상담 및 수정 계획 수립하기	· 개별상담 및 수정 계획 수립하기
		3. 취업희망 소원 빌어주기 및 마무리	· 취업희망 소원 빌어주기 및 마무리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재구성.

3) 성취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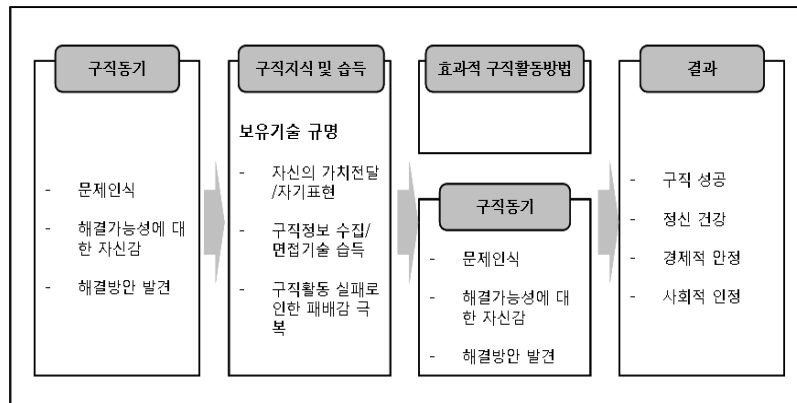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자 고민하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해 노동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성취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고 연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실직기간 중에 경험하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강한 재취업 의욕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며, 취업정보의 탐색 및 인성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 직장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인 만족도를 증진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성취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은 다음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성취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재구성.

성취 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은 서울청(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청(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청(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경인청(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광주청(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5청 12개 종합고용지원센터이다.

성취 프로그램은 2~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1회 5일간 여섯 시간씩 진행되며, 진행자와 참가자 간의 밀접한 의식 교류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참여자에 대한 훈련수당은 없다.

참가자격은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고졸 이상, 나이 무관)이며, ①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와 이직 및 전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② 취업 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이 없는 구직자, ③ 잦은 취업알선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빈번히 떨어지는 구직자, ④ 신규구직자 중 구직기술의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등에게 적합하다.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① 구직동기 부여와 구직기술 향상에 따른 장기실업의 가능성 예방, ② 상실된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한 재취업을 제고, ③ 재취업 후 새 직장에 대한 경제적, 질적 증진과 생활만족의 향상으로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성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전화접수를 하거나 인터넷 접수(www.work.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성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성취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훈련일	개요	주요 내용
1. 여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이력서 비교하기 · 생각다듬기(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 면접사례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동안 함께 활동하게 될 참여자들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소개를 통해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게 해준다. 이제까지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해왔으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구인자 입장에서 여러 장의 이력서를 비교해 보고, 면접사례도 살펴봄으로써 구직기술 습득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구직 활동시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생각 가다듬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도 확인한다.
2. 알리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업무능력과 기술(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 재취업을 방해하는 걸림돌 극복방법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기술 상의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직기술을 연습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취업의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는 개인적 배경, 예를 들어 경력 부족, 연령, 외모, 신체적 상황 등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연습해 본다.
3. 찾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다양한 방법 연습하기(구직망 구축, 사전탐방, 일자리 정보제공자와의 전화접촉)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광고, 신문, 인터넷 등의 공개된 일자리 정보 외에 숨겨진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즉, 구직망을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업체에 대한 사전탐방, 구직망을 통해 알게 된 일자리 정보제공자와 효과적으로 전화 접촉하는 기술을 익혀 빠른 재취업을 도모한다. 또한 성공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표 계속>

훈련일	개요	주요 내용
4. 만나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구인자 입장에서 면접 준비하기 · 면접에서 흔히 나오는 어려운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 효과적인 면접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작성해 보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면접에서 빈번히 나오는 질문들에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방법과 구인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면접 마무리 기술을 익힘으로써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최대화시킨다.
5. 다지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면접과정 연습하기 · 일자리 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걸림돌 극복하기 · 서로 도와 다함께 (취업동아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동안 연습한 모든 기술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져보는 시간을 갖고, 완전한 면접을 연습해 본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구직 걸림돌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배운다. 피참가 구직자들 간에 스스로 취업동아리를 구성하여 구직활동 시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고, 서로 간의 구직정보를 교환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구직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시킨다.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재구성.

2. 교육과학기술부

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Project

1) 추진배경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에는 빈곤, 이혼,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은 가족적 위기와 학습부진, 학업중단과 같은 교육적 위기, 범죄, 가출, 성경험, 폭력, 흡연 등 개인적 위기에 놓인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에 따르면, 전국단위 빈곤아동 수가 1997년 기준 239,860명에서 2004년 기준 93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단위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도 2005년 기

준 6,121명에서 2007년 기준 13,44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위기 학생 중 교육적 위기와 개인적 위기에 놓여 있는 위기학생이 약 3,05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단위 학업 중단학생도 2004년 기준 54,995명에서 2006년 70,79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위기상황에 중복 노출된 학생이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선도 및 치유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의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전문 컨설팅 등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선도하거나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에 대해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역사회 지원망을 통해 '진단-상담-치료' 전문컨설팅 기능 강화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접목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 학부모가 전국 어디에서나 브랜드만 보고도 찾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표준화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Wee Project의 목적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중의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2009년부터 실시 중에 있다.

2) 관련 부처 추진 체계

사업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사업운영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이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Wee Project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는 대안교실인 Wee Class를 운영하고, 교육청은 학생생활지원단인 Wee Center를 설치 및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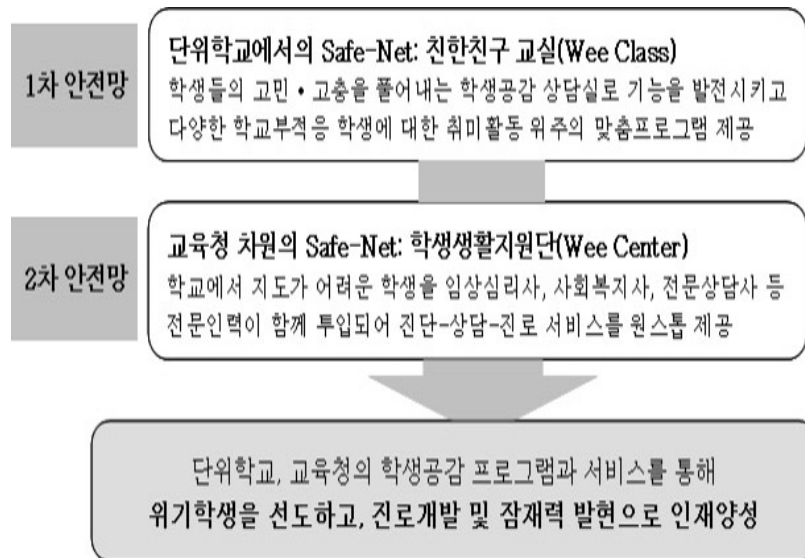
3) 지원 대상

Wee Project의 주요 지원 대상은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위기학생이며, 보조 지원 대상은 일반학생으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이다.

4) 추진 내용

‘Wee’는 ‘We + Education’과 ‘We + Emotion’의 줄임말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종합안전망으로 크게 1~3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7] Wee Project 구축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2009).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표 3-11>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강화 계획

단계	주요 사업	2008	2009	2010	2011
1차 안전망 (Wee Class)	단위학교 내 학생상담 및 학교 적응력 프로그램	530개	1,530개	2,530개	3,530개
2차 안전망 (Wee Center)	교육청 내 전문가 배치로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	31개소	80개소	130개소	180개소
3차 안전망 (Wee School)	교육청 차원 장기치료	-	-	2개기관	10개기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2009),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1차 안전망은 단위학교의 부적응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것으로 대상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인 'Wee Class'를 의미한다. 'Wee Class'는 전문상담교사나 인턴교사(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곳)가 개별(진로탐색, 소질계발 프로그램 등), 집단별(사랑나눔 등), 체험(스포츠, 현장체험 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도하는 것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 500명 이상인 5,775개 학교에 약 50%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Wee Class는 단위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지도를 위해 친한 친구 교실(Wee Clas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생의 감성과 문화에 걸맞는 학생공감 상담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Wee Class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 내 학생상담실을 학생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상담실에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의 문화를 다져가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Wee Class에서는 정서불안, 대인관계미숙, 학습무기력, 따돌림, 비행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영 학교는 학생 상담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며, 부적응 학생 대상 활동 위주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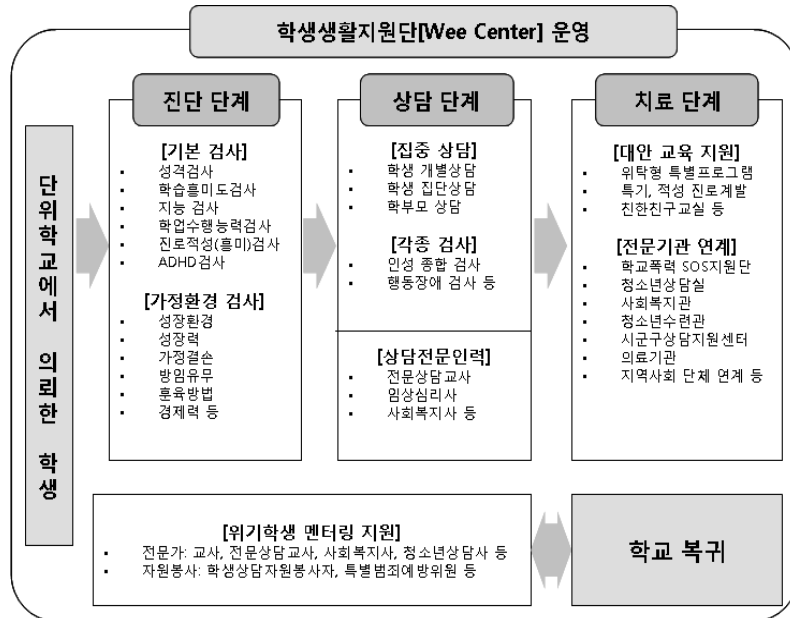
교사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차 안전망은 교육청 단위의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학교 차원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We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Wee Center'에서는 상담전문가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상담프로그램(학교적응, 가정문제해결, 정신건강, 약물오남용, 성관련 문제 등)과 심리검사(지능, 정서, 성격, 진로, 학습 등)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 학생 수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2009년 80개소, 2010년 130개소, 2011년 18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Wee Center는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렵거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평생교육사, 법률가 등으로 구축하여 부적응 학생에 대한 선도나 치유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청소년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국가단위 서비스를 지원하며, 그 밖에 고충 상담을 원하는 일반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림 3-8] Wee Center 체계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2009).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3차 안전망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것으로 진학과 취업 등의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위탁교육센터(Wee School) 운영을 의미한다. 'Wee School'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중단학생 및 위기학생들의 감성(심성교육, 특별활동프로그램 등)과 잠재력을 개발(복교, 직업교육, 사회적응력 향상프로그램 등)해 주는 통합 서비스이다. 현재 충남, 충북 교육청 주관 2개 기관을 시범 운영 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나. 학력향상 중점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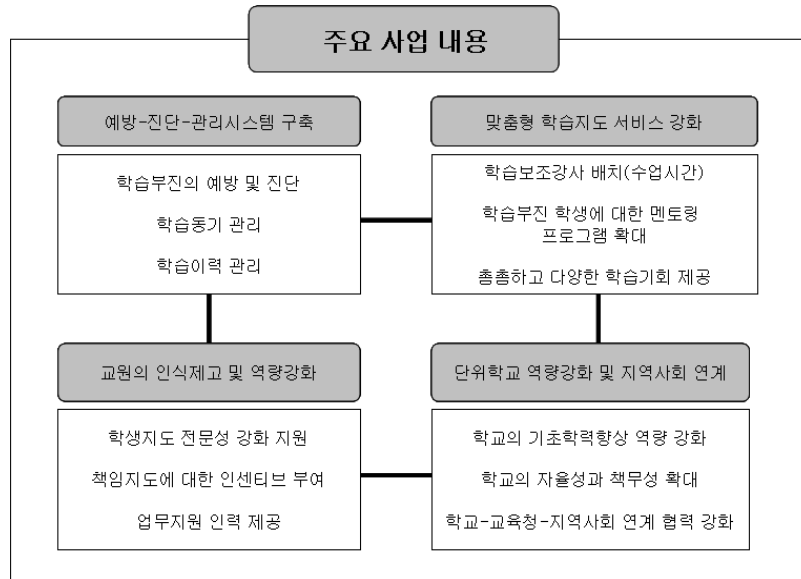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시·도 교육청의 현장실사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한 초·중·고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교과부가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8년 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평가·실시한 후, 2009년 초에 학업성취도 평가점검을 발표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과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도 교육청이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미달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총 1,140개 학교)를 선별하였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내에 학습부진에 대한 총체적 예방-진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에서 소외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결집을 지원함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력향상을 위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거시적인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9]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 내용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 p.2

2) 관련 부처 추진 체계

사업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사업운영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이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는 학교실정에 맞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학교경영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 지원 대상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지정 기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로서 2009년 현재 초·중·일반계고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5.4%, 중학교 20%, 일반계고 20% 이상(학교급별 평균의 약 2배)인 학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첫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50명 이상 둘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40% 미만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지정 규모는 전국 총 1,440개교로 교육청의 현장실사를 거쳐 시·도별 대상 학교로 파악된 초등학교 733교, 중학교 305교, 일반계고 223교, 전문계 고등학교 179교이다.

재정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력향상 중점학교에는 1차 연도(2009.7~2010.6)에 총 8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학교별로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교육청은 시·도별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점학교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배분 예산액을 결정한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은 학교 규모와 학교별 지원현황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학교별 배분 예산은 총액 형태로 지원하여 각 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게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급, 보조인력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들의 학습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때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가 효율적인 학력향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나, 2~3차 연도에는 연차별로 차등지원하며, 시·도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하여 기초학력향상에 대한 시·도의 자생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4)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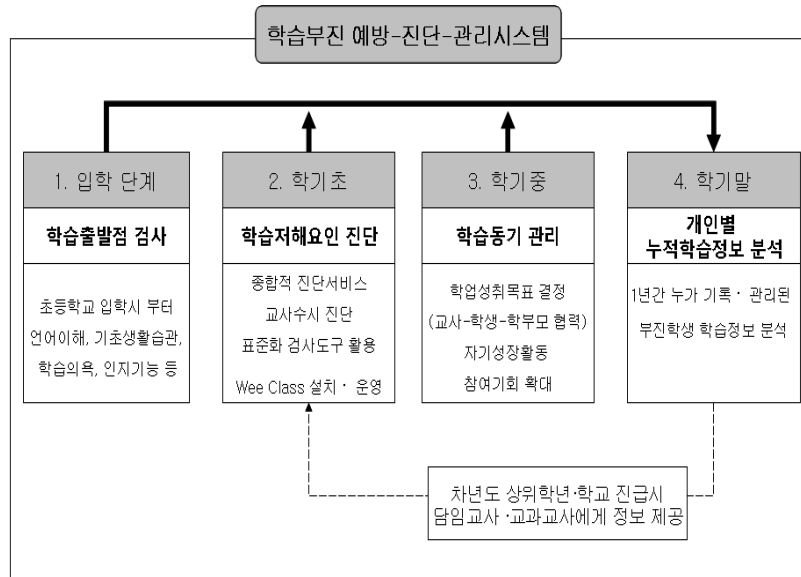
장기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별로 ① 단위학교의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실시, ② 학력향상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계획 수립, ③ 학력향상 지원 서비스 구축·운영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유도하여 교육과정 자율 운영 및 학교장의 교원인사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율학

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로 지정하며, 자율학교 지정은 5년 이내로 하여 지속적인 학력향상 추진을 유도한다.

첫째로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학습부진에 대한 예방-진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실제로 한번 뒤쳐진 학습부진 학생은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없으면 웬만해선 학교 수업을 다시 따라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공부와 함께 가정문제, 정서 및 행동 장애 등 비학습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치유될 수 있다. 실제로 결손가정, 저소득층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입학 전 학습 기회 부족이 입학 후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부진 예방을 위해 초등 입학단계부터 학습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입학단계에서부터 학생의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학년 및 학급의 변동 시에도 부진학생의 학습 이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내 학습부진을 예방→진단→관리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그림 3-10] 참조).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 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수업관찰, 상담, 평가 등 교사의 수시 진단과 기초학력검사, 학습유형검사, 학습동기검사 등 전문 검사 도구를 활용하고, 학생의 정서·부적응 문제 파악을 위한 Wee Class를 설치·운영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림 3-10]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 p.6

둘째로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촘촘한 지원망으로 학교역량은 향상시키고, 부진학생은 낮추어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먼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력향상 운영계획 수립과 학력향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을 권고하여,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교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중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특히, 예비교사(학습보조 인턴교사 포함), 퇴직교원 등 지역사회인력을 '학습보조강사'로 활용하여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에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9월~12월 까지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4,793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단위학교와 인근 대학이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멘토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함께 봉사학점 인정, 교생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장학금 지급 등 참여 대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봉사학점 인정, 교생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장학금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학습지도 및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또래학습도우미, 상급학생도우미, 지역인사 및 운동선수 멘토링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개인교사제를 운영하며, 부진학생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사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과 후, 야간, 주말, 방학 기간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지도와 함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학습방법 지도, 진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9~12월까지 학습저해요인분석 및 학습컨설팅을 위한 전문상담인턴교사 1,614명이 투입되었다.

또한 지역교육청 Wee Center 학습클리닉을 운영하며, 전국 31개소('08) → 80개소('09)로 확대하여 학교 내에서 진단 및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교원,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다. 교원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문성 강화(부진학생지도, 학생 평가, 학습상담 등)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 담당교사 등의 학생 책임지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학습지도보조인력과 행정보조인력 배치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학습치료사 등 전문인력 활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에서는 학교경영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학교의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문과 연수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에 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교과부는 매년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개선 정도를 점검하여, 시·도별로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교원들이 부진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 보건복지가족부

가. 두드림존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종 범죄, 학업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된 한국의 위기청소년의 수가 170만 명에 이르렀고, 이 중 가출, 학업중단, 학대, 방임 등 복합적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 청소년이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기청소년이 대부분 정규교육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부모의 보호와 정규교육을 전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대상 사업도 일반청소년 위주의 구성과 단기적·단편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조절하여 자발적인 진로·직업탐색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응과 독립적 생활기술, 자아향상과 자립심 강화를 위한 프로

그램의 실시를 통한 실제적 진로직업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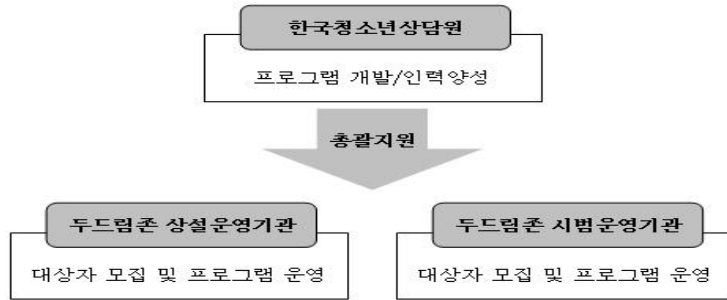
이에 2006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를 구축하여 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전 Screening → 동기화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체험 중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 사회 진출 지원'의 단계에 걸친 입체적인 프로그램인 '두드림존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2) 관련 부처 추진 체계

사업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사업주관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맡아 운영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 프로젝트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 및 지원하며, 두드림존 상설운영기관과 시범운영기관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3-11] 참조).

[그림 3-11] 두드림존 프로젝트 운영 체계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3) 관련 법규

두드림존 프로젝트는 헌법 제34조 4항,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2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각 법적 근거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34조 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 훈련, 청소년 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4) 지원 대상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위기청소년이며, 연령대는 16~21세까지의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학교 등과 같은 1차 안전망에서 이탈하였거나 이탈할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말한다. 즉, 가출청소년,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학교 부적응 상태에 있는 청소년,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청소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퇴소 예정인 청소년,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다문화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등의 자녀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3-12>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대상

대상	내용
가출청소년	해체가정이나 갈등가정에서 벗어나 가출한 청소년. 즉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심각한 학교 부적응으로 정규 학교에서 자퇴 혹은 휴학을 하여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
심각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	현재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심각한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학습능력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교정시설 입소 청소년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서 퇴소를 앞두고 사회복지를 준비 중에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정규 학교 재학 중이라도 범죄 등의 이유로 현재 보호관찰 대상 중인 청소년
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중장기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그룹홈, 여성지원시설, 미혼모시설 등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 중에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청소년보육시설 등에서 퇴소하였거나 퇴소 예정인 청소년
한국사회 부적응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등의 자녀로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5) 추진내용

프로그램은 크게 사전 단계, 1~3단계로 구성된다(〈표 3-13〉 참조). 사전 단계에는 사전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요인과 진로효능감,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조사한다. 1단계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1일차에는 ‘드림 빌딩’, 2일차에는 ‘경제야 놀자’, 3일차에는 ‘직업의 바다로’, ‘신입직원 선발의 날’, 4일차에는 ‘독립만세’, ‘이 세상 최고의 밥상’ 등으로 구성된다. 2단계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 소·풍’, ‘경제체험 뽀뽀비즈’, ‘두드림존 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3단계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단계로 취업이나 인턴십, 직업훈련으로의 복교 등을 지원한다.

〈표 3-13〉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단계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사전 단계	사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조사 진로효능감 및 프로그램 참여도 사전검사
1단계 교육프로그램	1일차 드림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의 꿈과 비전,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2일차 경제야 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자킹 게임, 동물원 만들기 게임 등을 통한 경제 상식 및 금융원리 교육
	3일차 직업의 바다로 신입직원 선발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만의 직업컬러링을 통해 직업 세계 탐구 구직기술, 적응기술, 근로권 교육
	4일차 독립만세 이 세상 최고의 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 구하기, 신분증 만들기 등 자립준비를 위한 일상 생활기술 목표관리, 시간관리 등의 자기관리 교육
2단계 체험프로그램	직업체험 ‘소·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소그룹, 대그룹별 적합한 맞춤형 직업체험
	경제체험 「뽀뽀비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아이템 선정, 마케팅 등 모의 창업을 통한 경제 체험
	두드림존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단계 프로그램 Review 자립동기 및 의지확립을 위한 동기고취
3단계 사회진출 지원	사회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인턴십), 직업훈련 복교 및 검정고시 지원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6) 추진 결과

2008년 두드림존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상설운영기간 운영 지원, 사업추진 평가 및 컨설팅, 목표관리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개선 작업 수행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드림존 프로그램 운영자를 양성하고, 운영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등의 사업 추진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실적은 1단계 1,436명, 2단계 1,644명, 3단계 382명으로 참여인원은 줄어들고 있다.

<표 3-14> 2008년 두드림존 프로젝트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프로그램 참여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1,436명 •2단계: 1,644명 •3단계: 382명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두드림존 프로그램 운영자 94명
상설운영기간 운영 지원	•상설운영기관 2개소 운영
시험운영기관 운영 지원	•시험운영기관 7개소 운영
프로그램보급기관 운영 지원	•프로그램 보급기관 6개소 운영
온라인 관리 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존 홈페이지(www.dodream.or.kr) •CYS-NET 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시스템 구성 •Daum Cafe를 이용한 두드림존 실무자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추진 평가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존 추진 평가회의 2회 실시 •전국 시험운영센터 컨설팅 실시(15차)
목표관리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존 추진 현황표 제작 •두드림존 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실적구축 보조
프로그램 개선 작업 수행	•두드림존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매뉴얼 개정 연구
워크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존 프로그램 개정안 평가 워크숍 •두드림존 평가 워크숍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pp.41-42.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자 94명의 교육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특히, 교육목표에 부합한 프로그램 편성과 시설물 비용의 편리성에서 100%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e-mail을 통한 정보전달의 용이성(70%), 회기 시연(71%), 교육장의 접근성(74%)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3-15〉 참조).

〈표 3-15〉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이수자 만족도

구분		만족도*
교육과정 편성	교육목표에 부합한 프로그램 편성	100%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76%
	최근 동향을 반영한 내용	91%
교육운영 및 진행	기자재 등 프로그램 준비도	97%
	교육시간 준수	97%
	관계자의 친절성	99%
	요구전달의 용이성	90%
시설 및 환경	교육장의 접근성	74%
	교육장의 쾌적성	98%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100%
교육정보 서비스	교육 관련 정보의 적시 제공	97%
	인터넷을 통한 교육신청의 용이성	89%
	e-mail을 통한 정보전달 용이성	70%
강의만족도	두드림존 오리엔테이션	95%
	드림빌딩	97%
	경제야 놀자	88%
	직업의 바다로	79%
	실물경제체험 뽀뽀비즈	87%
	신입직원 선발의 날	95%
	독립만세	96%
	이 세상 최고의 밥상	87%
	소풍	81%
	조별 회기 연습	77%
	회기 시연	71%
	스크리닝 도구소개	81%
	CYS-NET 종합정보망 두드림존 교육	87%

〈표 계속〉

구분		만족도*
강사 전문성 및 교수능력 만족도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	93%
	교재의 적절성	96%
	강의 준비도	97%
	교과 내용의 적절성	97%
	질문에 대한 대처 및 성실성	97%

*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만족 이상(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한편, 두드림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830명(학교부적응 집단 135명, 대안교육 집단 102명, 비행청소년 201명, 직업훈련 집단 123명, 가출청소년 52명, 소년원 집단 110명, 사회복지시설 집단 11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수 후 프로그램 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프로그램 성취도 사전 점수에서 비전설정, 자립기술, 구직기술 영역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마인드, 직업이해, 실천의지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후 점수에서는 비전설정, 자립기술, 직업이해, 실천의지, 경제마인드, 구직기술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사전 점수보다 사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자립 및 사회진출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었고, 기본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경제 가치관 형성,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다양한 직업세계 탐색능력 제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근로상식,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16>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프로그램별 성취도 사전-사후 점수 비교

영역	사전 점수 평균(표준편차)	사후 점수 평균(표준편차)	t
비전설정	17.61(4.37)	20.34(3.91)	17.40***
경제마인드	14.94(4.20)	18.97(4.07)	23.56***
직업이해	14.82(4.13)	19.16(3.92)	17.40***
구직기술	16.00(3.94)	16.47(4.03)	4.02***
자립기술	16.26(4.12)	19.71(3.98)	20.61***
실천의지	14.77(3.95)	19.06(4.41)	24.70***
총점	93.99(19.89)	113.63(19.65)	27.15***

*** p<.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p.110.

또한 두드림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사전 점수에서 미래계획, 자기평가, 문제해결 영역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목표설정, 직업정보 영역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사후 점수에서는 미래계획, 자기평가, 문제해결, 직업정보, 목표설정 순으로 나타나 사전 점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아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비교

영역	사전 점수 평균(표준편차)	사후 점수 평균(표준편차)	t
자기평가	16.71(3.87)	19.95(3.76)	20.69***
직업정보	12.81(3.09)	15.53(3.18)	20.93***
목표설정	13.11(3.32)	15.88(3.15)	20.23***
미래계획	19.58(4.62)	23.56(4.65)	20.46***
문제해결	15.48(3.64)	19.23(3.91)	23.99***
총점	77.77(16.65)	94.42(17.37)	24.02***

*** p<.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p.116.

나. 자활인큐베이팅사업

1) 추진 배경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의 빈곤 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미취업 등으로 힘들어 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 자활사업 추경예산 460억 원을 투자하여 1만여 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자활근로예산은 2009년 초에 2,600억 원으로 4만 8천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9년 중반 후 3,060억 원으로 5만 8천 명을 지원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도자료).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본인의 적성과 욕구에 맞는 자활·자립 경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계 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립역량 강화 및 맞춤형 자활경로 설

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및 인문학강좌를 실시하는 등 자활사업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09 하반기 추경사업(청년벤처사업단)으로 지역의 대학과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 예로 미국의 노숙자 대상 클레멘트 코스, 서울시의 취약계층 대상 희망의 인문학 강좌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자활사업프로세스에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정식으로 도입, 전국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도자료).

2) 관련 부처 추진 체계

자활사업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공공부조 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을 받게 되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역량이 향상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활산업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18〉 참조).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7만 명(수급자 49천 명, 차상위 21천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에 2,749개, 41,339명이 참여하여 사업단별로 15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자활사업의 종류는 간병·청소·집수리 등 사회서비스업, 도시락, 영농사업단(농촌) 등으로 나타났고, 자활산업의 인프라는 중앙자활센터('08.7 설립), 광역자활센터(6개소) 및 지역자활센터(242개소) 등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3-18> 자활사업 추진 현황('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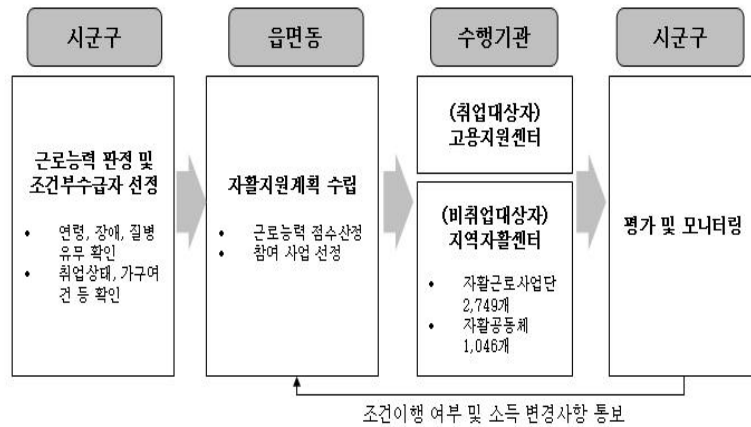
(단위: 천명)

총계	복지부					노동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소계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70천명	68	6	35	23	4	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6월 15일 보도자료.

이와 같은 자활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 자활사업의 추진절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6월 15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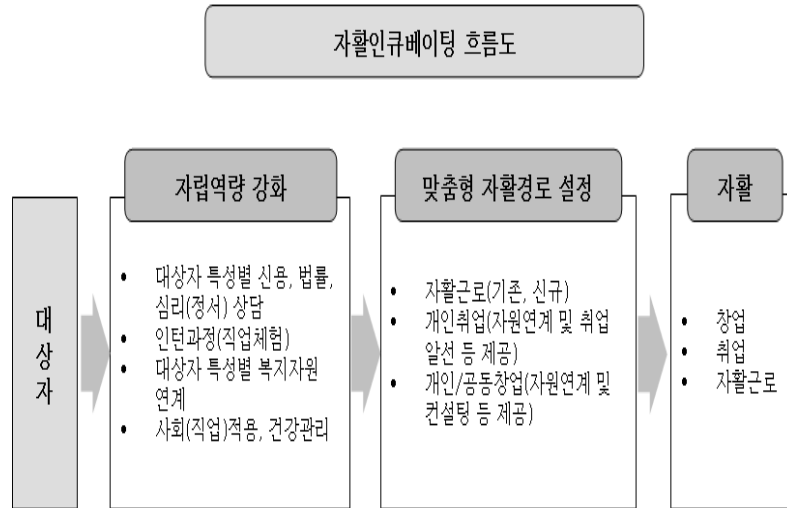
3) 지원 대상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인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 내용은 참여자에게 별도의 급여(1일 28,000원)를 지급하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또는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참여자와의 초기상담을 통해 직업능력, 자활의지, 적성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자립계획을 참여자와 함께 수립한다. 창업인 경우 자활사업 수행기관과 참여자가 함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유사업종 파견근무 등을 통해 참여자의 창업능력을 확인토록 지원해주는 한편, 구체적인 창업계획서를 작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도자료).

취업인 경우 타 기관 취업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세부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자격증취득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취업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한, 기존에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턴과정을 두루 거치면서 본인의 적성 및 특성에 맞는 사업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평가 등을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아정체성 회복 및 자립에 대한 정신적 동기 부여를 위해 인문학 강좌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도자료).

[그림 3-13] 자활인큐베이팅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6월 15일 보도자료.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의 지원 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가 원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4. 운영사례

가.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적응교육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심성순화 프로그램', '복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보호관찰소에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1회성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많은 프로그램이 1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단심리치료’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은 4~5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이 장기간으로 제공된다. 프로그램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외부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주로 사회복지관, 공공기관, 직업학교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는 보호관찰소 기관이라서 외부 자원과 연계를 하거든요. 관내 수련관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동반자를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예산이 많이 증원이 되어서 인원들이 전체 해당사항이 600명 중에서 10~20명 정도만 배정이 됐는데, 한 시즌이 지원이 돼서 100명 가까이 결연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에 1:1로 주 1회 정도 면담을 하니까 정서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위기청소년 관계자)

<표 3-19>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준법운전특강	경찰서 교통관리 담당관을 통해 준법운전에 대한 내용을 교육	1일	자체
	약물예방특강	사회복지관 담당자를 통해 무분별한 약물오남용 방지 교육	1일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사이버범죄 예방 특강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담당자를 통해 사이버 문화 및 범죄예방 교육	1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심성순화 프로그램	공연문화체험 프로그램	클래식 공연 문화체험 기회를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계기 마련	1일	자체
	전통 성년식	성년을 맞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함	1일	범죄예방위원 서울 북부지역협의회
	집단심리치료	창작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의 기회를 마련	4일	나사랑심리상담센터

<표 계속>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심성순화 프로그램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	전문상담사와 1:1 결연 지도	6개월	각당 복지재단, 창동·노원청소년수련관
	삼각산우이령 마라톤대회	지역사회의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및 연대감을 느껴보는 계기 마련	1일	강북구청 범죄예방위원 강북지구
복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복학 설명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를 통해 복학 설명회 개최	1일	서울시 교육청
	직업훈련 설명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직업훈련 설명회 개최	1일	상계직업학교 등 5개 학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 능력 및 사회기술훈련 기회 제공	8주	노원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 프로그램	푸드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의 의미를 깨닫고 체험해 보는 기회 제공	5일	꿈틀학교

자료: 고양보호관찰소 내부자료(2009).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고양보호관찰소의 경우 1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업 전문학교와 연계해서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률이 높은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성과도 있고 하니까 이젠 이 학생들을 안 받으려고 해요. 또,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참여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우리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표 3-20> A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의 개념 및 예방 방법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교육	3회	자체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예방 방법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	3회 (1일 2시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	폐활량 검사, 가상음주체험 등을 통해 금연, 금주 교육	3회 (1일 4시간)	보건소
심성 순화 프로그램	생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생태, 숲 체험 등을 통해 자기 효능감 증진	5회 (1일 4~6시간)	민간단체
	미술치료 프로그램	나의 모습, 협동화 그리기 등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향상	8회 (1일 2시간)	자체
복합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설명회	SK, 한국폴리텍대학교 연계하여 진로 탐색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연2회 (1일 4시간)	SK, 한국폴리텍 대학
	취약계층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Job School)	파티쉐의 전망과 진로, 제과제빵 실습 등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 부여, 건전한 직업의식 고취	2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고양보호관찰소 내부자료(2009).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을 위한 민간단체에서는 교칙위반, 범죄 등으로 인하여 학교 또는 법원에서 의뢰된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적응 및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 보조금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사업, 교육청 위탁 운영(대안교실, Wee Center), 보건복지가족부 보조금 및 용역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 특성 및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별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위기나 문제의 결론은 항상 애들이 심리적으로 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자기를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를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저희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선생님의 인내심과 열정이죠. 학교에서 애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은 뻔하죠. 계속 꾸지람만 받았던 애들이라서 여기 사무실에 왔을 때,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지만, 참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위기청소년 관계자)

<표 3-21>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학교적응 프로그램	대안교실	자아 탐색, 진로 탐색 등을 통해 학교 적응을 지원	5~10일	교육청
재범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실	서울시와 학교의 지원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및 관리제고	5~10일	학교, 서울시
	사회복귀 프로그램	법원의 지원으로 자기관리를 통한 재범 예방	20시간 (주2시간)	법원

자료: 고양보호관찰소 내부자료(2009).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그룹홈을 통해 장기 보호하고, 이들에게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아를 탐색하고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자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준비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과업계획 및 수행, 규칙적 생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아리, 작업장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또는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자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복지단체의 후원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표 3-22> A 대안학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기초학습 능력향상 프로그램	검정고시반	검정고시 교육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및 학력 취득	연중	자체
	자립기술훈련	그룹홈을 통해 일상생활 기술 능력 향상	연중	사랑의 열매
진로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심리, 진로 검사 및 이력서 작성 등 실제 사례 경험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학기	자체
	자립체험	자립홈 내 자립체험관을 통해 자립을 체험하여 자신의 자립 능력 점검	4박5일	자체
	자격증 취득	연계된 학원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 시까지	사랑의 열매
	인턴십 활동	연계된 기업에서 직장체험 활동	3~6개월	자체

자료: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2008),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저소득 계층의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진로교육,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진로탐색, 검정고시 준비, 취업준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자아를 탐색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향후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진로 장벽을 완화해주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

공된다. 검정고시는 최소한의 학력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또는 외부 지원 강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외부복지 지원 등을 통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민간 차원에서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3 진학지원 사업’의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고3 진학지원 사업’

1) 추진 배경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보나 탐색이 없거나 불충분한 가운데 대학이 결정되거나 불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3 진학반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진학을 도모한다. 아울러 대학진학이 진학 여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정적인 자립준비도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생활 및 학업 적응을 높이기 위해 진로개발에 대한 동기화 및 장기적인 목표수립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2) 추진목표

고3 진학사업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최선의 대학진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대학진학을 최종 결정한 참여 청소년의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진로 사정함으로써 진학(및 취업) 가능 및 희망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진로 탐색 집단상담을 6회 실시하여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과/직업 선택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와 함께 고3 진학반을 자치모임의 성격으로 구성, 학교와 입시계획 관련 정보

수집 및 결정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하에 원서접수에서부터 등록금 납부에 이르는 단계적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대학진학 및 뚜렷한 목표수립 과정이 동기화되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따른 과정으로는 글쓰기 특강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또한 모의면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대학탐방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해 자신감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회의 work & play day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및 멤버십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3) 지원 대상

이 사업의 대상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다. 이때, 전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문계 고등학생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수시로 의뢰되는 경우에 있어 학교 진학상담이 용이하지 않아서 진학반모임 참여를 원할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지원인원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신규 대상은 5명 이내로 충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기간은 2009년 3월 4일~2009년 12월 31일로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4) 추진 내용

수행 방법 및 내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고3 진학지원 사업

목표	세부 사업명	수행 방법 및 내용	시행 횟수/시간
1.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최선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대학 진학을 최종 결정한 참여 청소년의 80% 이상이 대학 진학을 이룰 수 있게 한다.	1)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진로 사정함으로써 진학(및 취업) 가능 및 희망 여부를 확정한다.	· 장소: 기관 상담실 · 내용: 진로사정을 통해 진학(및 취업) 의사 확인, 진학과 관련해 원하는 해결목표 확인 · 준비물: 진로사정지, 학교 생활 기록부, 부모동의서	1회 (60분 내외 /인)
	2) 진로탐색집단상담을 6회기 실시하여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과/직업 선택이 이루어지게 한다.	· 장소: 기관 컴퓨터실 · 내용: 원하는 직업 및 관련학과 정리, 집단상담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개별상담을 통해 보충 가능 · 준비물: 집단상담 진행안, 진로 관련검사 포함	총 6회기 (90분 내외 /회당)
	3) 고3 진학반을 자치모임의 성격으로 구성, 학교와 입시계획 관련 정보수집 및 결정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오리엔테이션 · 장소: 기관 강당 · 내용: 진학반 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와 조율, 참여신청 및 부모동의 · 준비물: 안내PPT물, 참여신청서, 가정통신문, 부모동의서, 사전검사지(진로결정-준비-진로장벽도/자립준비도)	1회(90분) /집단으로 진행
		· 진학반 자치모임 · 장소: 기관 컴퓨터실 · 내용: 학교, 입시계획 관련자료 수집 및 공유, 이를 통한 개별 입시계획 수립 · 준비물: 자치모임 일지/회의록	월 1회 (60분 내외)
4)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하에 원서접수에서부터 등록금납부에 이르는 단계적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게 한다.	· 부모님 참여시키기 · 장소: 서면으로 진행 · 내용: 학과/대학 선택 후 부모님 동의, 원서접수/합격 여부 확인/등록금납부 시 부모님의 점검을 이끌어냄	1회 이상 /인	

<표 계속>

목표	세부 사업명	수행 방법 및 내용	시행 횟수/시간
2. 대학진학 및 뚜렷한 목표수립에 대해 동기화되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글쓰기특강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글쓰기 특강 · 진행자: 강사 (인문학 강좌) · 장소: 기관 혹은 외부 · 내용: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강점), 대학진학을 가로막는 개인적인 장벽, 현재나 과거에 겪은 어려움, 인생의 목표 등을 주제로 함.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 부여, 자존감 회복, 보여주는 글쓰기를 통한 효과적인 자기소개서/자기추천서 준비	(집단상담 종료 후) 5월 셋째 주부터~ 6월 둘째 주 주1회 /총4회 (회당 90분 내외)
	2) 모의면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한다.	모의 면접 · 진행자: 회사 인사팀, 면접 이미지메이킹 특강강사 · 장소: 모 회사(미정) · 내용: 면접 이미지메이킹 특강, 동영상 면접모니터링, 모의면접 · 준비물: 강사 및 인사팀 섭외, 캠코더	총3회 (회당 90분 내외)
	3) 대학탐방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해 자신감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탐방 · 진행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 장소: 전문대, 4년제대 · 내용: 대학생활, 학업적응, 졸업후 향방 등에 대해 대학생을 통해 들음으로써 사전 대학정보를 통한 자신감있는 계획수립을 도모한다. · 준비물: 자원봉사자 섭외(캠코더)	총2회 (회당 90분 내외)
	4) 4회의 work & play day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및 멤버십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work & play day · 내용: 자치모임 내에서 주제별 work & play day 기획, 진행, 평가. 이를 통한 자기주도성 및 의사소통력 향상	총 4회 (회당 2시간 내외)

자료: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2008),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라. 장기실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취업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취업과 관련된 상담,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진로설계, 심리검사, 적성파악, 기업체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저희는 취업이 목적이라고 처음부터 박고, 오리엔테이션도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뉴스타트가 아니라고 해서 목적이 없는 애들은 오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다음에 올 때는 목적을 갖고 오게 하라고 해요. 저희는 안 올 친구는 신청은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때 거의 빠지고 안 오고, 첫 번째 오고 나서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안 오기 때문에…”(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표 3-24> 전국실업극복단체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진로 탐색 및 설계	잡스쿨	진로수업, 대학강의, 기업견학을 통해 올바른 진로 설계	2일	노동부
	진로 및 직업선택	심리검사, 진로설계, 집단상담	4.5일	노동부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업체 현장실습	1개월 (주20시간)	자체
	직업심리검사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흥미 파악	30~90분	노동부

자료: 노동부(2009).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안내.

또한 장기실업 청소년을 위한 민간단체에서는 노동부의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 및 복학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직장 내 의사소통, 관계 형성 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소통 훈련, 예절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의 예절, 관계형성,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마지막에는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면접관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실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직장체험을 위해 경과적 일자리를 연결시켜준다.

“기초학력 수준을 개발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고 상담과정에서 직업지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부분을 특성에 맞게 대졸자와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룹을 나눠서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따로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학업복귀 친구들한테는 검정고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검정고시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렇게는 상담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 없어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이미지나 예절교육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인사는 어떻게 하고 상사한테 직장에서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거를 하죠.”(실업극복단체 담당자)

<표 3-25> A 실업극복단체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지도 프로그램	학업복귀, 취업 등 진로상담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교육	-	-
	이미지, 예절 교육	이미지 강사를 통해 직장내 의사소통, 매너, 관계 형성 교육	-	-

자료: 안산 들꽃마을(2009), 내부자료.

<표 3-26> A 청소년 자활복지관 프로그램 1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진로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로상담, 검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기업현장 방문, 학습지도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1년	정부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재단
	진로·문화 지원	공연관람, 진로박람회, 청소년캠프 및 축제,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문화체험 및 사회성 함양	연중	정부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족역량강화	부모상담, 교육, 부모간담회, 가족문화지원, 가족캠프 등을 통해 가족의 기능 강화 및 가족의 건전한 자립 지원	연중	정부보조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인턴십 연계, 사회진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직업능력 및 사회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연중	정부보조금, 노동부	

자료: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2008),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표 3-27> A 청소년 자활복지관 프로그램 2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젝트	자립동기강화, 체험활동,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	1단계 : 5일 2단계 : 1~3일	보건복지가족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뉴스타트 프로젝트	진단·경로 결정, 직업훈련, 직장체험, 취업을 통해 취업애로 청소년의 취업 지원	1단계 : 1개월 2단계 : 1~8개월 3단계 : 3개월	노동부

자료: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2008),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마. 청소년 니트족

청소년 니트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담 프로그램, 검정고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이 기관에 오면 우선, 면접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프로그램 및 치료를 제공하며,

면담·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학력 단절 기간이 오래되어 기초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 향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체험 및 취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장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의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 니트족은 기관에 온 이후 곧바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 후에 점차 기관에 제 시간에 오는 일상생활 훈련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단계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멘토를 붙여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처음에는 폭력이든 뭐든 전문기관이나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가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 부분을 설득하고 달래는 작업이 길게는 6개월도 가고요.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까지요. 짧게는 한두 달 가고요. 짧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뉴스타트 때문에 야학이 생겼는데, 저희는 학습지원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2단계로 보내고 나면, 2단계에서 아이들의 유지율이 있어야 하고 취업까지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인턴십을 하겠다고 하면 국졸이라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선택해서 검정고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뉴스타트를 소개하거나 기관설명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뭐 하고 싶으냐고 해서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하면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하게 하고 가기 전에 내려와서 갈 때 얘기하고 가라고 해요. 어느 정도 게임 하는데 지겹지 않냐, 다른

것도 해 봐라. 점심 같이 먹고 가라 해서 점심 먹고 가기 이런 거 하고, 시간 내에 오는 거, 그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는 거를 해요. 어느 정도 되면 프로그램 설명을 해요. 어떤 것이 하고 싶으냐?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포인트가 멘토를 붙여서 그림자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거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표 3-28> A 청소년 자활복지관 프로그램 3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진로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로상담, 검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기업현장 방문, 학습지도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1년	정부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재단
	진로·문화 지원	공연관람, 진로박람회, 청소년캠프 및 축제,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문화체험 및 사회성 함양	연중	정부보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족역량 강화	부모상담, 교육, 부모간담회, 가족문화지원, 가족캠프 등을 통해 가족의 기능 강화 및 가족의 건전한 자립 지원	연중	정부보조금
취업 지원	직업훈련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인턴십 연계, 사회진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직업능력 및 사회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연중	정부보조금, 노동부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과목 수업 제공	주 5일	자체	

자료: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2009),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바. 새터민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입국 직후 12주의 하나원 교육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의 개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한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한국사회 이해 증진,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진로·진학 탐색 및 설계 등이 주된 것들이다.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내가 해야 하는 과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메모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연습하고 발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새터민 청소년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진로상담 및 학습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모여서 공통의 주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형태로 취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는 굳이 기준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하나원 교사)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내가 해야 하는 과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메모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연습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이고요.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게 진로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초반에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하고, 하나원 나갈 때쯤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건드려주고 다져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하나원 교사)

“새터민 청소년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과 재작년에 진로상담 프로그램 한 꼭지와 2008년에 학습기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의 요구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하나원 교사)

<표 3-29> 하나원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지원
정서 안정 및 정체성 확립	청소년자아성장	긍정적 자기상 확립을 위한 집단 상담	1일 7시간	자체
	청소년적응력증진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1일 7시간	자체
	청소년 심리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및 탈북 청소년의 특징에 대한 교육	3시간	자체
	심리상담	심리문제 해결	수시	자체
진로· 진학 탐색 및 설계	진로지도프로그램	자기이해, 진로정보, 대처기술, 계획수립	1일 7시간	자체
	학습기술향상프로그램	학습적응	1일 7시간	자체
	직업흥미적성탐색	자기이해	1일 7시간	자체

자료: 하나원(2009). 청소년진로지도 프로그램.

5. 시사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약청소년 취업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와 취약청소년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프로그램의 운영사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와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약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각 정부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노동부이다. 이는 국민의 노동과 관련된 종합적 서비스를 관리하는 곳이 노동부라는 측면과 연결지를

때 당연한 결과이다. 노동부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노동부는 현재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청년직장체험(만 15~29세의 대학 재학생 이상의 청년 대상),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등을 취약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① 대부분의 대상자가 중복되거나(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청년직장체험은 만 15~29세의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함), 너무 포괄적(취업희망자/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원하는 자 등)이다. 또한, 청년직장체험의 경우 만 15~29세의 청년이라고 대상 범위를 정하고 세부지침에 있어 대학 재학생으로 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 15세라는 연령은 왜 포함되어 있는가? 대상의 명확성이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그 특성이 다양하고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경우 더욱더 이들에게 특화된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② 현재 청소년 대상의 취업지원책들은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사전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위해 개별상담 또는 직장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이 주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의 내용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수박겉핥기 수준이다. 예를 들어, 청년직장체험의 사전직무교육은 네 시간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의 내용이 직업의 현실, 직장매너, 직업과 삶, 프리젠테이션 기법, 면접특강, 자기 주장훈련, 이미지 메이킹, 개인 컨설팅, 발표력 실습,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과연 이의 내용이 네 시간 또는 1일의 교육으로 가능한 내용인가가 의문시된다. ③ 대부분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취업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구체적인 운영지침 없이 실무 역량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는 문제점이 내포되

어 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1박 2일 동안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의 주 내용은 직업특강, 대학전공체험, 기업체 견학, 현장직업인 특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의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그의 영역에 포함된 대학전공체험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가 역시 의문시된다. ④ 취약청소년별로 사전에 실시된 상담결과를 고려하여 이들의 취업에 있어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사전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마련과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 총 6회의 개별상담과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참가가 이루어진다. 6회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취약점이 파악되어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팍팍한 프로그램의 과정 상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취업으로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기초한 정서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종합적인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위기상황에 중복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진단-상담-치료를 제공하는 학교안전 통합시스템인 Wee Project를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상담과 교육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이나, 노동부 등의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차이점은 관계부처의 주무 담당자 외에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긴밀한 연계망 속에 포함되어 단순상담을 넘어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가장 밀접한 학부모 상담도 병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취약청소년의 문제가 대상자만을 위한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된 사항이다. 또한, 충남과 충북 교육청 주관의 시범 서비스 제공 중인 Wee School의 경우는 감성치료와 함께 잠재력을 개발하여 복교와 직업교육,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망 종합 서비스가 제공 중이다. 아직 지원 초기로 운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나, 취약청소년의 문제를

가족 등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복교와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통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축지원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인력으로 기존의 업무 내에서 이 업무까지를 병행하게 된다. 별도의 지원인력이 편성되지 않는 한 제한된 인력으로는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주 대상은 아직 학교 범위 내에 있는 위기 청소년에 한하고 있어, 이미 탈학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로 '두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16~21세의 위기청소년 사전 스크린을 통해 동기화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 중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참여자 만족도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편성 등에는 만족도가 높으나, 정보전달이나 교육장 접근의 용이성에서 70%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 성취도에 있어서도 경제마인드나 직업 이해, 실천의지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고, 올바른 경제관 형성 및 직업의 중요성 인식, 다양한 직업세계 탐구, 대인관계 기술 향상,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 습득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이에,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생활 습관과 직업기초능력 관련 지식과 기술의 보완이 프로그램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빈곤층 자활을 위한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은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청소년 역시 이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부분이 취약하며,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시 해당기관의 지원 연계의 어려움이 프로그램 시작 초기부터 대두되고 있어 이의 성공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끈기와 추진력이 부족한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6월에서 1년 가까이 실시되는 맞춤형 자활 경로 설정의 2단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넷째,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약청소년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인 보호관찰에서는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범죄를 예방하는 선도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즉,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심성순화 프로그램, 복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그 예로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연계기관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관찰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력이 100명 가까이 되어 이들을 1:1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은 전혀 가능한 상황이 아니며, 그나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계기관을 찾고 이를 수행하는 업무 또한 벅찬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연계기관의 협조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②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의 청소년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과 대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와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체험하는 진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③ 장기실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노동부 등의 국가 지원프로그램이 그대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일부 실업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장기실업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재정적 문제로 지속적 지원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았다. ④ 청소년 니트족을 지원하는 사례에서 가장 기본은 상담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해 청소년 니트족이 사회 속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청소년 니트족에게 가장 많이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인데, 청소년 니트족의 특성 상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상인과 같은 참여 실적을 얻기 위

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다. 이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이 요구된다. ⑤ 새터민 청소년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부의 하나원으로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의 개별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새터민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국외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외국(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HRSDC)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청소년 관련사업의 예산 규모는 작지만,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큰 편이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고용지원이 꽤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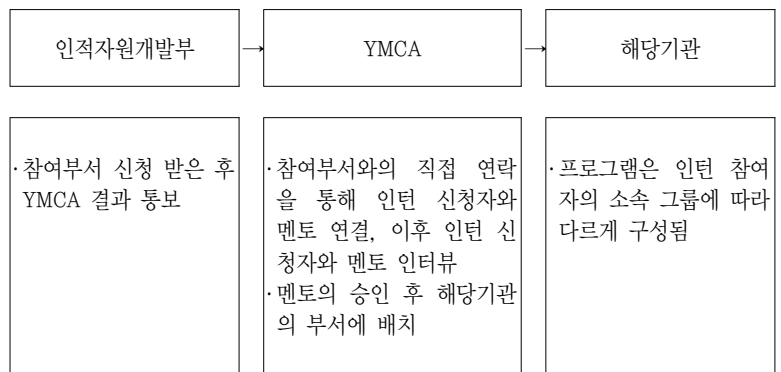
가. 캐나다의 일반 청년 프로그램

1) FPSYI 프로그램(Federal Public Sector Youth Internship Program)의 개요
캐나다 정부의 청소년 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YES)의 일환인 Federal Public Sector Youth Internship Program(FPSYI)은 15~30세 사이의 실업 청소년에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 이후 3년간의 시험 시행기간을 거쳐,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인 직장체험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 산하,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의 주관으로 하며, 연방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체험 직장이 되고 인턴 참여자와 멘토의 관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부는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연방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의 멘토 참여를 증진시킨다. 그 외에 프로그램을 신청한 인턴 참여자에 대한 평가와 승인을 관장한다. YMCA Canada는 청소년 지원기관이며, 인턴 참여자의 직장 배치, 인턴 참여자와 멘토와의 관계 형성 및 증진, 프로그램 시행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관리와 평가 등의 역할을 한다. 인턴 참여자는 크게 고교 중퇴 그룹(50%), 고졸 그룹(30%), 대졸 이상 그룹(20%)으로 나뉜다. 이들은 그룹별로 각기 다른 지원을 받는데, 그 중 고교 중퇴자 그룹은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으로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youth-at-risk)으로 분류된다. 멘토는 참여기관과 부서의 고용인으로서 자발적 멘토링을 원칙으로 한다. 인턴 참여자에 대해 주 1회 1시간 이상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며, 인턴 참여자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YMCA에 제출한다(박가열 외, 2009).

2) FPSYI 프로그램의 구성 및 특징

FPSYI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4] FPSYI 프로그램의 구성



자료: 박가열 외(2009).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 추적조사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재판집.

인턴 참여자가 고교 중퇴 그룹과 고졸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 3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설명회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홍보 및 사전 선별적격 심사(pre-screening)가 이루어진다. 이후, 1주일 간의 진단 과정을 거쳐 고졸 그룹은 직장을 배치받으며, 고교 중퇴 그룹은 YMCA에서 주관하는 1개월의 사전 직무훈련(pre-internship)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사전 직무훈련 과정은 인턴십에 대한 책임감, 정확성과 신뢰성 등의 기본 소양을 훈련시키며, 이러한 훈련 과정과 10개월의 프로그램 참여 동안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고졸 그룹의 경우 6개월의 참여 기간 동안 \$9,800(이하 캐나다 달러) 혹은 격주 \$753을 지급받는다. 대졸 이상 그룹의 경우 인턴 참여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참여 기관과 직접 연락하여 채용되며, 6개월 참여 기간 동안 \$10,890 혹은 격주 \$837을 지급받는다. 이 외에도 멘토를 대상으로 YMCA상담사가 멘토링에 관한 개별 혹은 그룹별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는 멘토링, 사전 교육훈련, YMCA의 지원과 상담 역할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조직화된 학습 경험과 멘토에 의한 코칭을 인턴십의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인턴 참여자가 경력 목표를 가시화하고 이를 성취하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에 의한 멘토링을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둘째, YMCA에 의해 프로그램 전, 고교 중퇴자 그룹에 한해 제공되는 한 달 간의 교육 훈련이 인턴 참여자의 준비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YMCA의 인턴 참여자와 멘토의 연결 및 배치, 지원과 상담 역할은 프로그램의 효과적 전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박가열 외, 2009).

나. 캐나다의 취약청소년 프로그램

1) 청소년 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YES)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청소년 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YES)'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캐나다 청소년들의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래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청소년 고용전략에 있어서 취업지원 대상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생, 가출·약물·중퇴 등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youth-at-risk)', '중등 후 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 지역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등 고교졸업 후 다니는 상급학교 교육)을 받는 청소년' 등으로 구분한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학교 이후 교육을 받는 청소년은 학교를 다닌다는 점과 스스로 취업할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중점적인 지원 대상은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이다.

YES 프로그램은 Skills Link(직업능력 향상), Career Focus(경력 증진), Summer Work Experience(하계직업경험) 등 주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고용전략의 대상자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에 법적 제한이 없는 15세부터 30세까지의 사람이지만 주로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려면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위의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는 민간기업, 협회, 위원회, 지방정부 등이 있다. 또한 농림부, 주택부, 식품안전청, 외교통상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자연자원부 등 캐나다 중앙정부의 14개 부처가 이에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임금보조는 하계직업(summer jobs), 장기실업자(the long-term unemployed), 취약계층(high-risk groups)에게 주어진다. YES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직업경험을 갖게 도와주는 사업이며,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캐나다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C)는 기존의 청소년 프로그램들 - YSC(Youth Service Canada), YIC(Youth Internship Canada), SSJA(Summer Student Job Action)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 YI(Youth International), IST(Internships in Science and Technology, YES - 을 만들어냈다(이영현 외, 2008).

2) YES 프로그램 중 직업능력 향상(skills link) 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조직에 재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 특히 편부모가정 자녀, 원주민, 장애자, 이민자, 농어촌 청소년, 중퇴생들을 돕는 것이다. Skills Link는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직업훈련, 직업경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 고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공

한다. 이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자녀를 가진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장애 청소년, 최근에 이민 온 청소년, 시골이나 산간벽지의 청소년,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 등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퇴생은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된다. 중퇴생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를 지니는 것은 복교지원이지만, 복교의사가 없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Skills Link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Skills Link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6개월 내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필요 시 총 3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참여 청소년들이 각 단계 모두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마지막 단계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기도 한다(이영현 외, 2008).

[그림 3-15] 캐나다의 Skills Link Program 개요

단계	주요 내용	임금
1단계 employable skills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능력훈련 생활능력(life skill)과 기본능력(basic skil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8CAD\$ 용돈 형태의 수당
2단계 employable skills with communit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봉사를 통한 고용능력 배양 공익사업을 통한 일과 인간관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임금 종료 후 500~2,000 CAD\$ 보너스
3단계 employable skills with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을 통한 고용능력 배양 회사 등에 실제 취업 직업훈련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형태의 급여
4단계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경험 일정회사에 직접 취업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 급여

자료: 이영현 외(2008). 『청소년직장체험 관련사업의 국내·외 운영조사·연구를 통한 연계방안 모색』, p. 15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단계는 ‘취업능력훈련(employable skills training)’으로서 생활능력(life skill)과 기초능력(basic skill)을 교육받는다. 1주 30시간 정도씩 24주간 교육을 받는데 이는 full time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는 대가로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돈(British Columbia 주의 경우 시간당 8 CAD\$)을 참가 청소년들에게 지급한다. 이 돈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센티브인 동시에,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청소년들의 생활비로 쓰인다. 임금(wage)이 아닌 용돈(allowance)이므로 세금이나 보험료, 연금 등을 공제하지 않는다.

2단계는 '사회봉사를 통한 취업능력 배양(employable skills with community services)'인데 1단계의 교육 이수 후, 혹은 1단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을 경우 참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사업 등을 통해 일의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2단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거리 청소, 공공장소 청소, 공공기관에서의 단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단계의 참가자에게도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며 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500~2,000 CAD\$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 보너스는 복교 시의 책 값, 취업 시의 옷값 등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이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3단계는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employable skills with work experience)'이다. 3단계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 기관을 Sponsor라고 하는데, 이러한 Sponsor의 협조를 얻어 실제적으로 일을 하며 경험을 쌓는다. Sponsor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회사이기보다 비영리단체인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배우고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지만, 임금 형태로 돈을 받게 된다. 임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앞의 1, 2단계의 용돈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3단계부터는 실업의 경우 실업수당을 받으며, 연금 수혜를 위한 적립 기간으로 간주된다.

4단계는 '직업체험(work experience)'인데 일정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청소년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즉, 신입직원 훈련비용, 각종 행정비용, 추가 장소 임대비용이나 컴퓨터 등 사무용기 조달 비용, 해당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직장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한편 보조금의 지급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최대 지급 기간은 1년까지이다.

3) 경력 증진(Career Focus) 프로그램

경력 증진(Career Focus)은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도로 숙련된 청소년과 미래의 고용주들을 연결하는 것이며, 정부가 사업주들과 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커리어와 관련된 일 경험, 혁신적인 직업능력 향상 및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한다. 둘째, 고도로 숙련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전공 심화학습의 혜택을 촉진한다. 넷째, 지식경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경력증진 프로그램에는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를 비롯한 9개의 정부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다. 캐나다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개선 방안

FPSYI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 인턴 참여자의 높은 취업률과 복학률, 임금 수준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긍정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례로 인턴 참여자와 멘토가 각각 인턴십과 멘토십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산 삭감에 따른 프로그램의 인턴십 참여자와 인턴십 기간 감축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의 성인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프로그램의 2001년 예산이 삭감되어 참여 가능한 인턴십 수가 줄고, 이상적으로 간주된 12개월의 인턴십 기간이 6~10개월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차후 추가 삭감에 대비해 고교 중퇴 그룹과 고졸 그룹으로만 인턴 참여자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도가 부족해 상당수의 인턴 참여자가 프로그램 수행 후 참여 공공기관에 취업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멘토 확보와 참여 기관

장의 프로그램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원부의 인터넷 메일링 리스트 등을 통해 폭넓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도모하고, 멘토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강화하며, 참여 기관장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절차의 체계성에 대해, YMCA 상담사를 통한 인턴 참여자와 멘토 연결 및 배치 절차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기관 내 부서의 협조에 의해 인턴이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전 교육 훈련 면에 있어서는, YMCA에 의해 제공되는 1개월의 사전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이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직업윤리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박가열 외, 2009).

2. 영국

영국 청소년 복지정책은 아동 및 가족정책과의 연관성에서 청소년 복지문제를 취급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구빈법 이후 2000년도까지 영국은 아동 및 청소년 대책을 대부분 가정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0년 Victoria Climbié라는 소녀가 자신의 이모와 이모의 동거남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은 진전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2003년 'Every Child Matters'라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를 발간하였고, 주요 내용들은 2004년의 개정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으로 시행하였다(박가열 외, 2007).

가. 영국의 일반 청년 프로그램

1) 뉴딜 프로그램(New Deal Program)의 배경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1998년 3월 발표한 복지개혁 그린 페이퍼(Green Paper)에서 '새로운 복지계약'을 선언하면서, 실업 해소를 위한 정

책으로서 1998년 4월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뉴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가장 빈곤한 취약계층에게 연금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를,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보장하지는 취지로 어떠한 형태이던 근로를 해야 급여를 준다는 국가와 시민 간의 쌍방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제도화하였다.

뉴딜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자에게 훈련, 교육, 업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배양시킨 후, 구인·구직의 고용 요구와 수급 균형을 맞추어 장기 고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뉴딜 프로그램은 정부 사회복지 급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몇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프로그램 그룹은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장기 실업자를 위한 뉴딜(New Deal 25 Plus), 준 고령층 뉴딜(New Deal 50 Plus), 편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장애자에 대한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 파트너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Partners), 음악가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Musicians) 등으로 구분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세부 목표, 참여 기준, 가능한 지급의 범위와 형태를 차별하여 적용한다(김승택, 2002).

이 중 청년을 위한 뉴딜은 18세 이상 24세 이하 그룹을 핵심 대상으로 삼고, 청년 실업자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얻도록 조언하고, 구직을 위한 기술을 배양하도록 도우며, 이후 교육 훈련이나 업무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뉴딜 프로그램 참여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모든 노력의 결과, 참여자의 경우 비 참여자보다 11% 높은 구직률을 나타내고 있다(Jobcentre Plus, 2008). Jobcentre Plus는 이러한 프로그램 종료 후, 고용 유지와 향상(the Employment Retention and Advancement: ERA) 등의 후속 프로그램 과정 등을 통해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다(박가열 외, 2009).

2)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청년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24세 이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 정부 최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직과 장기고용, 창업을 위해 기존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참여자에게는 Jobcentre Plus의 개별상담자가 배정되고, 이 개별상담자와 프로그램의 단계별 과정을 상의한 다음 이후의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은 약 45주가 소요되며, 3단계로 나눈다(박가열 외, 2009).

① 1단계 : 'Gateway(성공으로 가는 길)'- 최대 16주 과정

매주 개별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업무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상담자는 참여자의 구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원하는 업무와 직장을 파악하며, 이력서와 원서 작성을 도우며, 진로 상담을 진행한다.

② 2단계: 'Option(취사선택)'- 최소 13주 이상 과정

1단계를 마칠 때까지 구직에 실패한 경우는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 참여자와 개별 상담자는 참여자가 구직을 위해 필요로 하는 훈련과 업무경험을 결정하게 된다.

③ 3단계 : 'Follow-through(일의 완수)'- 마지막 단계로 26주까지 소요

이 단계에서는 구직을 위한 특별 도움과 지원이 제공된다. 참여자의 성실한 구직 노력과 실행 계획 완수가 요구되며, 개별상담자는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의 수행을 평가, 관리하여 참여자의 정부 복지혜택을 결정한다.

뉴딜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상담 및 인터뷰이다. 청소년들은 뉴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상담가와 여러 번의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 특히 뉴딜 개별 상담가와 인터뷰는 강제적이다. 그 이유는 뉴딜 참여자가 참석하지 않는 적합한 이유를 보이지 않는다면 직업을 찾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전문적 기관의 위탁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며, 특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2주에서 4

주까지 구직급여 중지를 받게 된다.

두 번째, 효과적인 직업탐색을 할 수 있게 직업탐색을 위한 시간이 허락된다. 이러한 직업탐색의 시간을 주는 것은 지속적인 구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를 만드는 것이며 고용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뉴딜 프로그램에서 직업탐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뉴딜 참여자는 뉴딜 Action plan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Action plan은 구직급여 자격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이러한 뉴딜 프로그램의 가장 효과적인 장점은 위기청소년이 겪어야 하는 진로에 대해 직업탐색을 강화시킨 프로그램이며, 뉴딜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구직을 지원할 뿐 아니라 개별 위기 청소년에 관한 고용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 틈새 메우기(Bridging the gap) 프로그램

1999년 7월에 교육, 훈련, 고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6세에서 18세의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틈새 메우기(Bridging the gap)를 발표하고 같은 해 9월에 중도탈락의 위험이 있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14세에서 17세까지의 취약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입문과정(Learning Gateway)’을 마련하였다.

학습입문과정은 문제해결, 기초직업훈련, 교육 및 훈련 등이 뉴딜처럼 패키지로 되어 개별 상담가의 지속적 관리 하에 진로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훈련기업 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전문치료기관 등이 연계되어 각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게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취약청소년 및 위기청소년들은 문제를 갖고 있거나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직업훈련 전에 관련전문기관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생활기술(Life Skill)’을 통해 기초능력을 습득하고 일과 훈련에 대한 과정 등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고용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훈련의 준비가 되지 않은 취약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기술을 익히고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천년 봉사활동(Millennium Volunteer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박가열 외, 2007).

나. 영국 커넥션즈 사업

영국 커넥션즈(Connexions) 사업은 13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16세에서 19세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하여 '학생 신분을 벗어나 직업도 갖지 않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이다(박가열 외, 2007).

1) 추진배경

영국은 199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과 성문제, 가출, 퇴학이나 자퇴 등의 청소년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영국 사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 탈락과 실업의 비율이 1994년 이후 약 9%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1990년대 말 커넥션즈 사업의 추진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이는 영국 교육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개혁 중의 하나로 꼽힌다.

커넥션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지침이고, 그에 따라 10개의 기초 필수과목이 선정된 것과 더불어 전문 평가기관(Ofsted)이 설립되었다. 국가 교육과정 가운데 개별 사회적 건강교육, 종교교육, 성교육, 시민교육 영역들은 최근 영국의 청소년보호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은 청소년보

호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16세 이후가 되면 정규교육의 기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므로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취업도 하지 않게 되면 범죄나 위협에 노출되어 사회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되기 때문이다.

커넥션즈 사업은 청소년이 처한 문제 상황 파악,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한 조언과 안내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전달과정 그리고 서비스 후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물남용, 가출, 미혼부모, 범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치료나 발달과업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나 예술 활동, 자원 활동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위해 개개인에 관한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공유되지만, 개인 정보의 노출을 막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업 시행지역

커넥션즈는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 47개의 파트너십 지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학습기술자치협의회(Learning and skill Council)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커넥션즈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구체적이고 폭넓게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커넥션즈 사업의 목적은 '모든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 요보호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게 함으로써 첫째,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하는 것, 둘째,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셋째,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배움과 고용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넷째,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인 동기를 부여, 다섯째, 커넥션즈 사업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13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상이지만 위기청소년의 경우 보호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은 특히 16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을 가장 핵심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나 이미 전과가 있는 청소년, 10대 미혼부모인 청소년, 요보호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노숙생활을 하는 청소년, 퇴학을 당한 청소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3-30>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특징

필요의 정도 (우선순위: Priority)	특징
최소(Minimum)집단 (우선순위 3)	·높은 학업성취도 ·일반적인 조언과 지도 필요 ·진로지도 필요 ·이미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와 조언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Supported)집단 (우선순위 2)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GCSE)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 ·16세 이후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가이드와 지원 필요 ·능력/현실과는 무관한 꿈을 가짐 ·학교 출석률이 저조 ·학습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을 확률이 큼 ·학업성적이 매우 낮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감을 느낌 ·위의 모든 특징들은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개인적 문제가 존재
중점(Intensive)집단 (우선순위 1)	·많은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의 신속한 지도 필요 ·자격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 지식능력이 거의 없음 ·문제 능력과 산수능력이 떨어짐 ·퇴학이나 저조한 학교 출석률로 이미 중요한 교육의 시기를 놓침 ·대인관계,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음 ·도발적인 행동양식을 갖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 함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도움 필요

자료: 박가열 외(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잡으로: To the Job) 개발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다. 영국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개선 방안

뉴딜 프로그램은 초기 실행 단계에서부터 평가가 지속되어 왔으며, 주로 실태조사와 사례 연구, 거시모형에 근거한 연구 분석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시험 기간을 포함한 1999년 말까지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다양한 집단을 평가한 결과, 청소년을 위한 뉴딜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참가가 고용회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시 변수들도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 실업자를 위한 뉴딜과는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장기 실업자를 위한 뉴딜의 경우 유사한 긍정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정적 측면의 의견도 수렴되었다. 즉, 프로그램에 기대하지 않았던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에는 도움이 된 반면, 활동적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부족이나 그 제도 및 과정의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참여자들 중 일부는 프로그램 중간에 탈퇴했다 다시 참가하는 등의 비지속성을 보였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장기 실업자를 위한 뉴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 프로그램이 고용촉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실제로 고용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7월에서 2000년 6월까지 12개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4년 동안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박가열 외, 2009).

먼저, 프로그램의 장기 영향력 파악을 위해 본 프로그램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대상자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고용촉진 수당 수혜자를 비교 그룹으로 하여 그 차이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가의 영향력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 후, 4년의 기간 동안 참여자는 비교 그룹에 비해 64일 적은 기간 동안 적극적 노동 시장 급여(Active Labour Market Benefit)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4년의 기간에 걸쳐 서서

히 줄어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최선의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 프로그램 2단계 참여자를 전일제 교육 훈련자,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환경 프로젝트 팀(environment task force)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참가 후 4년간 장기 고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상대적 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가 종료 후, 전일제 교육을 위한 입학과 구직을 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장기 결과가 가장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을 한 경우가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단기 결과를 통해 거의 정확히 장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즉, 프로그램 종료 직후 복지급여 신청자나 고용촉진수당 신청자는 그 이후 계속 복지급여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높은 자격 요건과 프로그램 시작 전 상대적으로 단기간 고용촉진수당 신청자의 경우, 장기 결과가 성공적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특성도 지역사회 경제사정과 맞물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용 유지와 향상(the Employment Retention and Advancement: ERA)의 후속 프로그램 장기 실업자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2년 후 참여자와 비참여자 통제집단을 고용, 수입과 복지 급여 면에서 비교한 결과, 참여자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고용, 수입과 복지 급여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비록 일부 지역에 한해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ERA의 효과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참가 2년 후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복지급여 수혜가 줄어들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ERA의 장기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박가열 외, 2009).

3. 미국

가. 연방 청소년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미국의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은 다수가 있으며 그 중 중퇴청소년 관련 대표적 프로그램은 직업봉사단(Job Corps) 활동과 노동력투자법(WIA)에 의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다(이영현 외, 2008).

<표 3-31> 미국의 중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Job Corps (직업봉사단활동)	·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과 숙련도 제고를 목적 · 주요 대상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16~24세의 저소득 및 중퇴청소년
노동력투자법 (WIA)에 의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숙련노동력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14~21세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퇴, 가출, 임시가정에서의 기거, 임신, 자녀 기르기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실시

자료: 이영현 외(2008), 『청소년직장체험 관련사업의 국내·외 운영조사·연구를 통한 연계방안 모색』, p.13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은 중퇴 및 저소득 청소년의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중퇴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주로 중퇴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나. 미국의 School-to-work (STW) Transition Program

1) 프로그램의 개요

School-to-work Transition(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STW)는 교육과 고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학교교육을 마친 후 직업세계로 이동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장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장원섭 외, 1999). 1990년대 초부터 존재해 온 산학협동교육(Co-op Education), 학교-직장도제(School-to-Apprenticeship) 프로그램, 청소년도제(Youth Apprenticeship) 프로그램, 계약제 산업체 도제(Apprenticeship) 프로그램, 학교기업(School-based-Enterprise),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Tech Prep/준학사학위 프로그램(Tech Prep/Associated Degree) 등과 같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면서 School-to-work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박가열 외, 2009).

미국의 SWT는 근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 간의 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994년 제정된 산학연계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STWOA)을 토대로 학교와 직업 현장의 협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들에게 취업능력을 준비시켜, 졸업 후 산업체의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산학연계(School-to-Work Opportunities)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TWOA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일에 기초한 학습(Work-Based Learning), 학교에 기반을 둔 학습(School-Based Learning), 연계활동들(Connection Activities) 등의 영역들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STW 프로그램 중 청소년도제(Youth Apprenticeship) 프로그램

청소년도제 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등단계학교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도제 프로그램은 16세 이상의 학생들

이 참가할 수 있으며, 성인 대상의 도제 프로그램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기존의 도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도제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에게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School-to-Work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프로그램의 수준과 규모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의 청소년도제 제도는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도제 제도 프로그램의 사례로 1991년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 시에서 시작된 2+2 모델인 Protech를 들 수 있다. Protech는 Boston Private Industry Council(PIC)과 기업의 임원, 교육자, 노동계, 공무원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훈련,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며, 파트너십, 일을 통한 학습, 학교 수업과 일의 통합,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후의 훈련 단일화, 효과적 비용설계 등이 특징이다(박가열 외, 2009).

다. 청소년 직업봉사단(Job Corps)

청소년 직업봉사단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직업 훈련과 숙련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노동력 투자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통합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16~24세의 저소득, 중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2007년 조사 결과 46개 주에 110여 개의 센터를 갖고 있다.

2000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의 75%가 고용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10만 명이 참여하여 2007년까지 15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지도하여 왔으며, 청소년들이 빈곤, 실업, 범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 직업봉사단은 연방정부에 의해 시설과 장비 등이 제공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2~4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이후 개별능력 테스트와 직업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주요 프로그램은 참가자 선발(outreach and admissions), 센터운영(center service), 취업알선(placement) 등이다. 참가자 모집 및 선발은 영리·비영리 민간기업, 주립 고용기관 및 센터를 포함하는 선발기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기관에서는 현장 홍보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배치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심사하며, 자격이 되는 경우 센터로 갈 준비를 한다.

청소년 직업봉사단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 내에서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읽기와 수학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과교육, 일반 학력인증서(GED)와 같은 고등학교 수료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지역사회대학과의 연계 하에 인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비취학 청소년들에게 다시 교육체계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교육, 운전교육, 직업세계교육, 가정생활교육, 보건교육, 비영어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주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증서 수여가 가능하다.

직업훈련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개별화되어 있고,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75개 분야 이상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통 한 센터에서 10~11개의 직업 분야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 훈련의 종류로는 컴퓨터, 사무직, 간호, 자동화 기계 및 수리, 그리고 건축 등을 포함하는 직종의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센터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 직종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다른 훈련기관과 계약을 통해 훈련생을 의뢰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훈련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입주생활을 한다. 입주생활의 취지는 직업훈련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집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주거 등에 신경 쓰지 않고 교육 및 직업훈련에 몰입함으로써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또 모든 학생들은 공식적인 사회기능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입주생활에는 식사, 기숙사생활, 오락,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유지, 기타 관련 활동이 포함된다. 건강관리 및 교육 서비스에는 의료 검사 및 처치, 마약·성병 및 임신검사, 면역, 치과 검사 및 치료, 정신건강 문제 상담, 기본 위생 및 의료 교육 등이 포함되며, 상담 및 기타 서비스에는 자문 및 상담가를 두어 직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한 지지를 해준다. 직업훈련원 참가자들에게 훈련 동안 2주마다 한 번씩 수당(최근에 \$25-\$34)을 주는데 직업훈련원 프로그램을 마친 후 6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한 번(\$250), 직업훈련원에서 배운 직업에 취업했을 때 한 번(\$100), 프로그램 중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은 데 대해서, 그리고 훈련을 마친 데 대한 보너스(\$250)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박가열 외, 2007).

라. 직업훈련 파트너십(Job Training partnership Act)

청소년 직업훈련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노동부가 주관하며, 저소득 청소년에게 직업획득을 위해 임금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16~21세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청소년, 임신·출산을 한 청소년, 장애 청소년, 가출, 노숙,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중점으로 한다. 이와 비슷한 직업훈련 파트너십에 의한 하계 청소년고용 및 훈련의 경우는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박가열 외, 2007).

마. 미국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개선 방안

2004년 미국 대학과 기업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의 Job Outlook(직업 전망) 설문조사 결과, 산학 협동으로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대학 졸업생이 인턴십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 졸업생에 비해 졸업 직후 더 나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당수의 인턴십 경험자는 인턴 참가업체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은 경험을 통한 교육은 학생과 고용주가 동시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인턴십 참여자는 자신이 특정 직업이나 기관의 업무에 적합하지 시험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업무 현장과 기업 문화 내에서 학생의 수행 정도를 진단, 평가하고, 만족한 경우 졸업과 함께 인턴 참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턴십을 지원하는 진로 센터(Career center) 수가 증가하면서 진로 센터에서도 인턴십이나 협동교육 배치, 기타 경험학습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턴십 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진로 센터가 대학생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인턴십을 비롯한 대학 내 협동 과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기업체 고용주는 정규 직원 채용 시 인턴에게 먼저 구직의 기회를 주고자 하며, 지원자의 이력에서 인턴십 여부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협동교육 중 인턴십 제도는 국내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의 연수 지원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수지원제의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 재학생이며, 상당수의 참여자가 지원제를 통해 일정 기간의 연수 경험과 함께 학점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인턴십과 같이 대학과 산업체, 학생 및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La Guardia 지역사회 학교의 인턴십의 경우, 개별 협동 교육 상담자가 배정되고, 8, 9단계에 걸친 구체적이고 명료한 절차에 의해 인턴십 과정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 연수제의 경우, 연수자의 전공과 연수 직종이 관련 없다는 응답자가 62.2%로 조사되어 더욱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턴십에는 미국의 경우 다양한 규모와 분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의 연수제도 참여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

해 폭넓은 분야의 참여 업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수 제도가 인턴십과 같이 실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박가열 외, 2009).

4. 일본

일본은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의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서 청년실업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청년실업의 구체적인 문제로 실업자의 증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 증대, 이직·전직률의 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청년 실업의 특징인 프리타(Freeter) 현상과 무직자(NEET)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프리타(freeter)란 free(자유롭다) + arbeit(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가 합쳐진 말로 15~34세의 아르바이트나 계약 파견사원 등 저임금으로 단기간의 취업상태를 반복하는 청년 근로자(남성의 경우는 계속 취업 연수가 1년부터 5년 미만의 사람, 여성은 미혼으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혹은 현재 무직으로 아르바이트나 계약 파견사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의 특징은 파트타임으로 적당히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거나 정말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려는 경향이 많다(정인수 외, 2006). 실제 프리터는 중학교 및 고교 중퇴자를 비롯한 저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프리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사회가 저학력자들에게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킬 것인가가 과제인 만큼 일본 저학력자들의 진학 및 취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책화하고 있다. 무직자(NEET, 니트)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서 재학, 근로, 직업훈련 중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영국의 노동

정책 용어이지만, 일본에서는 15~34세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노동력 인구 등을 의미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니트 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비슷하게 증가하였다(정인수 외, 2006). 이러한 프리타 및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청년 중 상당수가 스스로 사회와의 교류를 단절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고용 또는 사회복지가 어려워진다.

가. 시행고용제도

시행고용제도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층의 취업의식을 고취하려는 시도로 고안되었다. 2001년 말 3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적정 취업 연령을 넘어선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2008년 4월, 그 연령대를 30대 후반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조선일보, 2008년 4월 24일). 따라서 2008년 8월에 그 참가 대상자는 구직을 희망하는 45세 이상의 준고령자, 35세 미만의 청년층, 편모가정의 어머니, 계절노동자, 장애인, 일용노동자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공공직업 안정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되었다(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소 Hello Work, 2008).

이 프로그램은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국 산하 Hello Work(공공직업안정소)가 본 기관에 구직 등록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참여업체 사업주와 중개하여 단기간 시행 고용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참여자나 업체의 상황에 따라 1, 2개월의 단축 혹은 3개월 이후 연장 실시가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직업 경험을 고려하여 자신의 Hello Work에서 상담자와 상담 후, 관련된 산업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업체에 소개된다. 그 이후 참여업체는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용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참여업체의 사업주와 참여자 간에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프로그램 중 특히 35세 미만의 실업청년층, 즉 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

만 하면서 취업의 기회를 놓친 자, 또는 취업을 원하는 희망 직종은 있지만 경력이 없는 청년층들에게는 시행 고용기간 동안 직무에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을 습득할 것이 강조된다. 시행기간 종료 시 참여업체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참여자는 정식 채용되는데, 이때 구직자와 직무와의 적합성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행고용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업체는 Hello Work 를 통해 소개받은 구직자를 단기간(원칙적으로 3개월) 고용함으로써 고용기간 동안 구직자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이후 정규 채용으로 전환의 계기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참여업체는 시행고용제도 중 구직자의 적성이나 업무수행 가능성 등을 실제로 파악한 후, 시행고용 종료 후 정식 채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장려금을 보조받아 고용에 따른 일종의 부담경감을 꾀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는 실제 업무를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적성이나 능력,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시행 고용 이후, 정규채용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박가열 외, 2009).

나. YES 프로그램

1) 추진 배경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4년 1월 29일에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고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취업기초능력지원사업'(YES Program: 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의 추진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발표 이후 4월에 '취업기초능력습득 목표, 강좌 및 시험인정기준'을 공표하고, 7월에는 인정강좌 및 인정시험과 취득 가능한 구체적인 자격종목을 공표하였다. 이와 함께 2004년 10월부터는 취업기초능력의 인정강좌수료 및 인정시험 합격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후생노동대신 명의의 '취업기초능력 취득증명서'를 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청년취업기초능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수 이상의 기업이 채용 시 중시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훈련으로 향상이 가능한 능력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사소통, 협조성, 자기표현력)', '직업인 의식(책임감, 향상심·탐구심, 직업의식·근로관)', '기초학력(읽기·쓰기, 계산·수학적 사고력, 사회인 상식)', '비즈니스 매너', '자격취득'을 선정하였다.

일본의 YES 프로그램의 직업기초 능력은 크게 커뮤니케이션능력, 직업인 의식, 기초학력, 비즈니스 매너, 자격취득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기주장과 경청의 균형을 맞추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협조성, 상황에 맞게 호소력 있고 쉬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기표현력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언행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기본자세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직업인 의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깨닫는 책임감, 일하는 것의 관심이나 의욕을 가지면서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향상심과 탐구심, 취업이나 근로에 대하여 광범위한 시야·사고방식을 가지고 의욕이나 태도에 필요한 직업의식과 근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인 의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주어진 일을 숙고하여 처리하는 주체성이 필요하다.

셋째로 기초학력은 사무·영업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지식의 읽기·쓰기, 사무·영업직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계산 및 수학적 사고력,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상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학력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며, 문서를 작성하고 읽는 능력과 함께 사회인에게 필요한 상식을 요구한다.

넷째로 비즈니스 매너는 근무 시에 필요한 인사와 말하는 방법, 전화 응대, 손님 접대하는 매너, 비즈니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매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취득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컴퓨터 기본기능 조작 및 정보처리 활용을 위한 정보기술관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경리, 회계, 재무관계, 어

학능력이 포함된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과 함께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포함하며, 기초 영어 실력을 요구한다.

<표 3-32> 일본의 YES 프로그램의 직업기초능력

구분	영역	세부내용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소통	· 경청하는 자세 · 쌍방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의견 집약 · 정보 전달 · 의견의 주장
	협조성	· 상대의 존중 · 조직·인간관계
	자기표현력	· 명확한 설명 · 도표 등을 이용한 표현
직업인 의식	책임감	· 사회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 조직 질서의 유지 · 주체성
	향상심·탐구심	· 달성 의향 · 목표 설정
	직업의식·근로관	· 취업관과 프로의식
기초학력	읽기·쓰기	·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 · 비즈니스 문서의 독해
	계산 및 수학적 사고력	· 계산 · 수학적 사고
	사회인 상식	·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상식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매너	· 인사와 말하는 법 · 전화 예절 · 방문 방법 · 손님 접대 · 이야기방법의 기본 단어 선택, 이야기 듣는 법, 지시 받는 방법
자격취득	정보기술관계	· 컴퓨터 조작 · 정보처리와 활용
	경리 재무관계	· 경리·재무의 기본
	어학능력	· 영어력

자료: <http://www.tecs.jp/yes/>.

2) 대학의 YES 프로그램 도입 사례

(주)tecs에서는, 2004년 10월 YES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된 이래, YES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수년 동안 YES 프로그램은 각 학교로 확대되었고, (주)tecs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대학·단기대학·전문학교도 속속 증가하고 있다. (주)tecs의 프로그램은 취직을 목표로 하는 고교생에게 적합한 실천적인 커리큘럼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사회인 기초력'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인턴십과 YES 프로그램에 의한 취직 지원이 도입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YES 프로그램 관련 강좌가 개설되기도 한다. 이를 도입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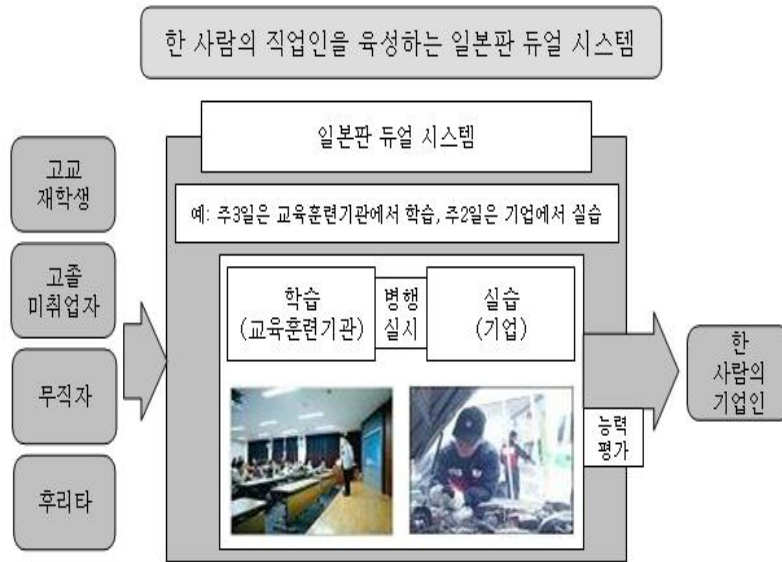
오쓰마여자대학(大妻女子大學)(다마(多摩) 캠퍼스)에서는 취직 지원센터 주최 프로그램으로서 2학년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여름방학(9월)에 집중 강좌에서 실시하고 있다. 매회 정원 50명을 모집하는데 하루에 정원이 충족될 만큼 학생들은 자신의 기술향상이나 커리어 플랜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야마무라학원(山村學園) 단기대학에서는 YES 프로그램을 전 과목에 도입하였다. 커뮤니케이션학과와 보육학과 두 가지 학과로 구분된 야마무라학원(山村學園)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YES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비서검정 등의 자격강좌를 함께 편성하면서 YE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YES 프로그램은 취직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서검정이나 비즈니스 능력검정, 비즈니스 문서검정 등의 자격과도 연계하고 있고, 학생들의 자격 강좌의 출석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 일본의 dual-system

일본의 듀얼 시스템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의 공동작업을 거쳐 2004년도부터 전국에 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제도이다.

[그림 3-16] 일본의 듀얼 시스템



자료: 일본 후생 노동성(2006). 「듀얼 시스템」.

듀얼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에서의 실습훈련과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학습을 병행하는 것으로 수료 시에는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청년 한 명을 하나의 직업인으로 기르는 것이 목적인 새로운 인재육성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주 3일은 전문학교 등에서接客 매너 등의 강습을 받고, 나머지의 주 2일은 실제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끔 함으로써 훈련생을 양성하는 것이다.

학습에 의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독립 행정법인인 고용·능력개발 기구 혹은 도(都), 도(道), 부(府), 현(顯)의 직업 능력개발 시설, 민간 전문 학교, 공인 훈련시설 등인데, 이들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갖춰진 기관이다.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받아들이는 기업과 협력해 훈련계획을 책정하게 되며, 1~3년 간에 걸쳐서 학습과 실

습(OJT도 포함한다)을 병행하게 된다(정인수 외, 2006).

듀얼 시스템의 기본 유형에는 첫째, 전문학교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주도하는 형태(교육훈련기관 주도형)와 둘째,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기업 주도형)가 있다. 두 가지 유형 사이의 구별은 훈련을 받는 자가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는지(교육훈련기관 주도형), 아니면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 들어가는지(기업 주도형)에 달려 있다. 교육훈련기관 주도형은 우선 청년을 훈련생으로 받아들인 후,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그 기업과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책정하게 되는데, 학습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실습은 기업에 위탁하는 구조이다. 기업 주도형은 교육훈련기관 주도형과는 반대로 청년을 파트타임의 종업원으로 우선 채용한 후, 기업이 교육훈련기관을 물색하여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책정, 학습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구조이다(정인수 외, 2006).

<표 3-33> 일본식 듀얼 시스템 훈련 과정의 종류

훈련 과정	훈련 실시 장소	수강료
2년 코스(전문과정 활용형)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유료
1년 코스(보통과정 활용형)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유료
5개월(표준) 코스 (위탁훈련 활용형)	민간 교육훈련기관 (창구는 도도부현 센터)	무료

자료: 정인수 외(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 파악 및 정책 과제』, p.79.

훈련은 35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은 훈련 내용 및 훈련 기간에 따라 전문과정을 활용하는 2년 코스, 보통과정을 활용하는 1년 코스, 위탁훈련인 5개월 표준 코스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정인수 외, 2006).

2년 코스는 높은 취직 실적을 보이는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등의 2년제 커리

클림으로서 실제로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업 실습을 조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기초부터 고도의 기능과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커리큘럼 내에서 실제로 일을 통하여 수입을 얻으며 부족한 능력을 확인해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년 코스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부터 실천적인 수준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취직에 유리하며, 훈련코스에 따라서는 공적인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다. 훈련기간은 12~15개월로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며, 학력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다.

마지막으로 5개월 표준 코스는 전국의 지역센터(일부의 현에 있는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가 민간 교육훈련관 등에 위탁해, 직업의식의 개발로부터 학습에 의한 지식 습득, 기업 등에 의한 실습 훈련까지 관리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훈련기간은 4~6개월이며, 다른 과정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며, 정원은 코스별로 다르지만 보통 20명 정도이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30세 미만의 구직자이지만, 30세 이상, 35세 이하의 구직자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취업을 반복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등의 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인수 외, 2006).

2005년 11월 29일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 주도형' 중 위탁훈련 활용형의 경우 2004년도의 취직률은 68.4%인데, 이는 일반의 청년위탁훈련 실적(60.5%)을 웃도는 결과이다. 하지만 취업 실태에 대한 샘플 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49.5%, 파견 노동자 15.8%, 파트타임·아르바이트가 34.7%이므로, 반드시 안정된 취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정인수 외, 2006).

다. 고교 중퇴생 현황과 진로지도 지원 정책

일본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급속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본의 청소년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비행과 자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은 학교를 중퇴하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고교 중퇴생 현황과 진로지도 지원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박가열, 2007).

첫째, 진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학교에 설치하고 있다. 둘째, 중퇴생과 1년간 정기적인 연락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지방공공단체에서 Hello Work와 연대한 취업상담 및 직업 능력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중퇴생이 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과거에 취득한 단위를 누적 가산할 수 있는 단위제 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무상의 자원봉사자로서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활용한다.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 청소년의 자립과 연결이 된다. 또 청소년이 독립할 수 있도록 복지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인턴사원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중퇴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직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먼저 인턴사원으로 기업, 상점, 농림업의 경영자에 협력을 의뢰한다. 일곱째, 대입자격검정의 활용 등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여덟째, 창업에 의한 사회 참여를 실행하고 있다. 이것을 폭넓게 활용하여 중퇴생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아홉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에 관한 체계적·지속적인 직업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종합정보 거점으로 청소년 직업의식의 계발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열번째, 2002년 현재 일본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근로 청소년 홈'은 전국에 약 530곳이며, 근로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지의 '근로 청소년 홈'은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인 직업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직업생활 충실을 위한 강좌 및 자원봉사에 관

한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 생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도 체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박가열, 2007).

라. 일본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개선 방안

일본의 시행고용제도는 국내 프로그램에 비해 그 대상자가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준고령자, 편모가정의 어머니, 계절노동자, 장애인, 일용노동자 및 노숙자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 실업정책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은 장애인과 일용노동자 및 노숙자를 제외한 참가 대상에 대해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업체에 의한 참여자의 정규채용 전환을 촉진하여 정규직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산하 Hello Work는 주도적 중개 역할을 한다. 또한, 일본의 프로그램은 Hello Work 중심으로 각 지방의 성격과 특색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실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히가시 오사카 시의 경우, 일인당 장려금이 3만 엔이 아닌 2만 엔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일괄적인 평가보다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역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평가에는 전 일본 고용 시장에 관한 거시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전국적·지방적으로 균형잡힌 실시와 평가를 모색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국내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정부 관련 부서 중심의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의 수행과 함께 지역의 유동적 상황이 균형적으로 반영된다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박가열 외, 2009).

5. 시사점

우리나라의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향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취약청소년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의 선진

외국 정책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정책과 프로그램은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국가적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 주안점과 국가별 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정책 대상자의 개념, 범위 등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저학력, 저연령을 대부분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4>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 대상자 선정 근거

국가	판단 근거
미국	① 저소득, ② 저학력, ③ 소수인종, ④ 거주지(도시빈민가, 침체지역, 주거부정 등), ⑤ 저연령 비진학, ⑥ 전과 경험, ⑦ 기초기술 부족, ⑧ 학교 실패 경험(중퇴, 퇴학 등), ⑨ 가족부양의무(미혼모)
영국	① 저연령(16-17), ② 신규학교 졸업자, ③ 장기실업자(미취업 기간), ④ 장애인, ⑤ 전과자, ⑥ 모국어가 영어 또는 웨일즈어가 아닌 사람, ⑦ 읽기·쓰기·셈하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일본	① 교육수준(저학력)이 적용되며, ② 구직활동의 경험 여부, ③ 직업훈련의 경험 여부, ④ 결혼여부, ⑤ 취업의지 등을 근거로 프리터와 니트 결정, ⑥ 신규학교졸업자

자료: 노경란 외(2008a),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재편집.

선진국 사례에서 제시된 취업취약 청년층을 구분하는 판단근거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수 제기되는 것이 ① ‘낮은 교육수준’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전되면서 사회 요구에 따라 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하면서 중등학력 이하의 저학력 청년층이 취업에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특히 과잉교육에 의한 하향취업의 정도가 20~30%에 달한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낮은 교육수준’은 우리 사회에서도 의미있는 취약성 판단근거라 할 수 있다. ② 청년층 내에서의 ‘저연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내 연령의 고저와 취업성공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엇갈리고 있

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9.6%에 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83.8%가 진학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즉, 청년층 내 저연령자의 대다수가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내의 연령고저의 문제는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③ ‘장기 미취업 기간’을 취업취약성의 판단 근거로 보는데 이는 미취업 기간의 장기화가 취업의 곤란도를 높인다(김안국·신동준, 2007; 안주엽·홍서연, 2002)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일본의 ‘청년층 자립 학원’ 서비스 대상으로 미취업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것 이외에는 ‘장기간’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선진국들의 경우 ‘전과 경험’을 거론하고 있는데 『범죄백서(2007)』에서 밝힌 갱생보호사업실적에 따르면 ‘취업알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8%에 지나지 않고, 출소자의 재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출소자의 취업 및 진로의 어려움’이 재범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홍봉선, 2002).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우리 사회에서도 취업취약 청년층의 대상 범위에 ‘전과 경험 유무’ 또는 이탈가능성이 높은 자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초기술(예: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부족을 들고 있다.

둘째, 선진 외국에서는 취약청소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심각한 학습결손이다. 이에, 이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이들이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어렵게 지원하는 현실에 비해 영국의 틈새 메우기(Bridging the gap) 프로그램이나, 미국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기초학습능력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성공적 이행을 강조한다. 학교로의 복귀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심리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발달적 과업을 고려한 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셋째, 취약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빠질 수 없다. 이에, 이들의 경제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의 지원은 참여자의 의지를 중요시하여 지원에 따른 강제적 참여와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지원 프로그램의 큰 틀 속에서 이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틈새 메우기'의 소규모 지원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멘토 프로그램, 잦은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취약청소년의 프로그램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있다.

제 4 장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 관련 문제점 및 요구

변숙영

제1절 직업능력 향상 관련 문제점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 및 취약청소년 집중면담 결과 도출된 취약청소년 유형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

가. 기본생활습관 미형성 및 낮은 기초학습능력

대다수의 위기청소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이들의 낮은 기초학습능력 보완과 관련된 내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주로 취업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정부나 민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내용과 관련된 전문용어 및 지식과 관련된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나, 위기청소년 중 탈학교 상태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발생되어 위기청소년

당사자 및 관계자 모두 우선적으로 중졸이나 고졸의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한 검정고시 등의 과정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의 대다수는 기본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기초학습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수업에 참여하는 등의 기본생활습관의 재형성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초학습부터 재학습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 검정고시 성공률은 낮은 실정이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생각을 넣어줘야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생활습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목표도 없고, 누구도 통제가 안 되고…”(위기청소년 관계자)

“인내심이 없는 애들에게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나와서 기초학력을 초등과정부터나 중학과정을 다시 가르쳐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이들의 특성상이요, 그 수업시간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기초학력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어떤 점에서는 기초학력을 포기해야할 것 같아요. 기초학력에 치중할수록 아이들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기청소년에게 기초학력을 찾아주는 것은 또 다른 학력주의를 낳게 하는 것이란 생각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데… 그 능력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답하기 어렵지만 국어, 수학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위기청소년 관계자)

나. 폭력성향 및 일탈행위 경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부족

위기청소년은 자기조절 효능감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낮고 폭력대처 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박영신·김의철, 2000). 나은영 외(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위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충동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청소년의 특성 관계자 FGI와 위기청소년 집중면담 결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들은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으로 1일씩 3일간의 특강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성순화를 위한 프로그램, 복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들의 폭력적 성향이 근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 상담과 적극적 치료를 병행한 대인관계 능력 및 조직이해 능력의 향상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기청소년 보호기관 현실상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을 1:1로 심도있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아이들은 쉽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이미 체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 방법과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쯤만 힘쓰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위기청소년 관계자)

다.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현재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정보 제공,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위기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하여 고용정보원, 직업학교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기간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위기청소년이 보호관찰소나 민간단체에 위탁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들이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단발성의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에게 직업에 대한 소개, 동

기부여 차원에만 그쳐 이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거나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연계 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참여한다 하더라도 심리적 치료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끈기가 부족한 위기청소년의 대다수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훈련 설명회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회적인 프로그램이라 전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습니다. 전에는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7~8월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과 6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들이 못 견디고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위기청소년 관계자)

“YES 프로그램이나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취업특강 등을 운영하고, 관내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관내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1박 2일로 사실상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그나마 3~4개월 정도 하고, 열심히 하면 자격증까지도 취득이 되고, 취업이 연계되어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오니까 쉽게 해볼까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올해 40명 정도 해서 25명은 1단계에서 탈락했는데, 아침 10시~5시까지 다녀야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만두고요, 지금 15명 정도가 2단계를 다니고 있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SK와 폴리텍 대학에서 행복날개라는 프로그램을 6개월 과정으로 운영

하고 이수 후에는 취업과 연계시켜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5명이 지원했는데, 현재 3명이 생활 부적응으로 탈락하고, 2명이 실습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잡아주고 옆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격려해주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위기청소년 관계자)

라. 위기청소년의 사후 지속적 관리 미흡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과 취업알선까지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제공 프로그램이 장기 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경우 취업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취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많고 이에 대한 조언 및 지원자가 필요한데, 지원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로 취업 이후의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취업률 및 유지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이런 프로그램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해결해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한편으로 그것과 더불어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여기까지만 다 집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제대로 안되고…”(위기청소년 관계자)

“보통 2년 정도 하는데 기간이 끝나면 추후관리가 힘들죠. 행안부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요.”(위기청소년 관계자)

마.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개인 상담 미비

위기청소년의 비행 등의 문제 근본에 피해의식이나 충동성 등의 심리적 요

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들의 특성파악을 통한 심리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전담하여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예로 A 보호관찰소에서는 2명의 담당관이 200~300명의 위기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100%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연계기관 담당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는 데에도 벽찬 실정이다.

“저희가 민간단체라서 일단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아무래도 교과부쪽, 교육청 이런 데랑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벅차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는데…”(위기청소년 관계자)

“보호관찰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별도로 봉사 말고, 판사님이 생각해서 상담 명령을 몇 십 시간씩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지도나 면담을 통해서 해요. 인력도 안 되니까 한 달에 적게 부르면 한 번, 많이 부르면 네 다섯 번 불러서 해요. 직원이 22명인데 현재 아이들은, 성인과 소년이 나뉘어 있는데 전체 1,400명 정도예요.”(위기청소년 관계자)

“한 명이 수십에서 수백 명을 관리하고 외부 연계기관 찾고… 애들하고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한 달에 네 번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냥 오라는 시간에 와서 몇 분 얘기하다가 가고 또 언제 오라고 하고요.”(위기청소년)

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계 체제의 문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은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관련 부처로는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눈에 띈다. 그러나, 이들 부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위기청소년이라는 같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중복적 측면이 많고 차이점도 명확치 않으며, 풍요 속의 빈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직 학교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학교제도권 밖의 위기청소년의 경우 그 지원의 폭이 제한적이다.

또한, 외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이나 성과 문제로 인하여 연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운영기관 간에 참여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개입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 학생들의 프로그램 중도탈락이 높은 편이다.

“직업 전문학교와 연계해서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중도탈락률이 높은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성과도 있고 하니까 이젠 이 학생들을 안 받으려고 해요. 또,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참여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우리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구심점에 대해서 전부 다 아우르는 관계이면 괜찮은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쪽이고, 청소년지원상담센터는 교과부랑 해서 Wee Center랑 연결해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하면 얼마 줄래?’ 같은 예산 문제도 해결이 필요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일반인은 자발적인 사람이라서 가는데, 이런 애들은 적절하게 개입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중도탈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2.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가. 기본생활습관 미형성 및 낮은 기초학습능력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은 탈학교 상태이면서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직업을 갖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본생활습관이 미형성되었다는 점과 저학력으로 인한 기초학습능력이 낮다는 점이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중 탈학교를 어린 연령에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직업기초능력 중 수리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관계자 FGI 및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집중면담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이에, 저학력으로 인한 기초학습능력 저하를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지원 민간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보니 그 질과 계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온전히 이에 투입되어 참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중 조직생활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거부한 경우 소극적 성향이 강하여, 비형식적이지만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대비반의 참여율도 낮고 조직이해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교사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다보니, 선생님도 들쭉날쭉 아이들도 왔다갔다 계속 지속되기 힘들어요. 또 아이들이 잘 잡히지

않는 아이들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 하고 이들의 수준이 매우 낮는데 적합한 교수법도 모르는 대학생 선생님들은 더욱 힘들어 하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잘 못 가요. 당장 돈이 없으면…”(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연령이 어릴 때 만나서 내부에서 일반적인 진로 탐색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급하게 뉴스타트나 청년인턴사업을 활용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둘 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 빈도는 후자가 높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같이 취업동아리를 구성해서 기술교육과 동시에 청소, 시간임수 등의 기초생활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아이들이 옷차림은 당연히 안 되고, 염색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볼 때 비호감 스타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면접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 하는 스킬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보면서 피드백해주고…”(청소년상담원 교사)

나.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충분한 상담시간 및 지원 프로그램 부족

정부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는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기관 담당자들의 판단과 권유로 진행되고 있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관계자 FGI 및 대상자 집중면담 결과 프로그램 참여 시 자신의 진로 설계에 참여하고 동기부여가 된 참여자일수록 참여도와 참여성도가 좋은 편이며,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도탈락하거나 취

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이 당장의 유인책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참여동기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일수록 올바른 직업관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 이에, 전문가에 의한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부터 교육받고 부족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의 바탕으로 상담을 통한 개인의 특성파악과 진로상담, 직업탐색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이유로 증대되고 있는 학교 밖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학교 밖의 비진학 미취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아이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찾고 이게 니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참여시킨다는 것은 꿈이에요. 현실은 아이에게 적합한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이 아이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도 이해시키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미 포기상태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최근에는 SK에서도 해피쿠킹스쿨이나 해피 뮤지컬 등 각 분야의 완비된 흐름을 가지고 복지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하는 과정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는 괜찮아요. 일정부분 나름대로 럭셔리해요. 어느 정도 진로가 확실한 부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이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자기가 뭘 하고 싶다는 게 분명히 있는 친구들은 이미 실습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요. 취업만 한다면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취업을 해서도 잘하더라고요.”(대안학교 교사)

“주위의 형 중에 직업훈련을 했는데요, 돈이 오니까 한데요.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갖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랑 반대인데 돈 때문에 가서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내가 왜 갔나, 시간이 아깝다고 했어요.”(대안 학교 학생)

“본인이 당장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조금 흔들어지는 거죠. 놀고 싶기도 하고, 특히 이번 8월 같은 경우에 5월달부터 마음을 잡고 있던 애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 노는 시간에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취업을 미루거나 공부를 미루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중도탈락이 많아요. 최종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15% 정도예요.”(청소년상담원 교사)

“꾸준히 연락하는 방법 말고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타트랑 매치를 했을 때, 삼십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아이들이 상담받고 교육받는 것까지는 꾸준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또 아이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개인상담 미흡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외부의 자원봉사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학습 외에 다양한 문제들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부족한 학습 능력을 보충해 주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참여 과정 내내 관리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담·연계·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제한된 내부 인력으로 충당하거나, 외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인력 충원은 도움

이 되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지속성 등의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기초학습이 안되어 있으면 취약계층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건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원봉사자의 한계는 지속성의 문제예요. 그분이 열정적으로 하다가 정리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요… 이쪽에 대한 투자는 학교를 보내라는 식의 접근인데, 이쪽이 성장해야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다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YC라고 해서 청소년동반자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사례관리가 좀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청소년상담원 교사)

라.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보조 부족

대다수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직업교육을 위한 시간을 배분하고, 상위학교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는 당장의 경제적 문제에 부딪치면서 무산되곤 한다. 이에,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의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저학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라 지원수당을 지급해요. 그런데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 오랜 시간 그렇게 해당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죠.”(청소년상담원 교사)

마. 직장체험 기회 제공 기업 및 고용주의 인식 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체험을 나가거나 취업을 할 경우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직장체험이 취소되거나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체험이 중단되어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고용주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업주는 이들이 저학력자라는 이유만으로도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체험자로서 지도하고자 하지 않는다. 사업주와의 갈등은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3살 친구가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안산 지역에서 인턴을 했는데, 빠지고 했는데 고용주가 그런 과정을 잘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자리 잡고 갔어요. 반대로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인생에서는 중요한 갈림길이에요.”(대안학교 교사)

“어떤 고용주는 이 친구 알고 보니 그런 친구였어? 그런 분도 계셔서... 고용주 입장에서 당연히 애가 정상적인 집안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온 애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청소년상담원 교사)

“기술교육과 기초생활능력을 맞물려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의 그런 업체를 바로 뚫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분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있잖아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바. 성과중심의 정부지원 사업 평가시스템

민간에서 정부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내용을 요구하거나, 성과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행정적 처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대상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간 내 참여율, 취업률 등 보이는 성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지원사업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성과가 문제예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야 해요.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에서는 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기관마다 해야 하는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인데, 이용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복지관, 수련관인데, 청소년 외에도 위험군의 아동이 먼저 있어요. 청소년을 대하는 애들이 없어요. 기관의 숙명도 그런 수급과정을 대상으로 한 거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예산은 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대안학교 교사)

“네트워크 조직하는 것은 기관이 다 할 수 없어요. 한 기관이 시범적으로 기관을 정하고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기존에 했던 일들이 있고, 새로운 일들을 수행하면서 충돌되는 면이 있어요. 한 기관 내에서 다 종합적으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보호에 강점이 있으면 보호, 교육에 강점이 있으면 교육, 취업에 강점이 있으면 취업에 강점이 있겠죠.”(대안학교 교사)

3. 장기실업 청소년

가. 청소년기 장기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지원 프로그램 부족

장기실업 청소년들은 대부분 위기청소년이었거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어 장기실업으로 이어진 청소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이를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실업 청소년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동부의 뉴스타트 프로젝트조차도 직접적인 직장체험에 투입되기 전 1단계 상담 횟수가 6회(대부분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로 한정되어 있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위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직활동 이전에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사례들이 있을 때, 전문가의 부재와 해당 프로그램의 미비로 이를 지원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기실업 청소년 관계자 FGI 및 장기실업 청소년 집중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실업으로 직업기초능력 중에서도 자존감이 낮고, 자립심과 사회적응 및 조직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나, 정부지원제도 안에서는 개인의 취업성향 등을 파악하는 심리상담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견되어도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업고 1학년인데,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진로상담 하면서 보니까 군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군대를 어떻게 가는지 자체를 모르는 친구였어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전혀 모르는구나’ 했어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상담이 어쨌건 5~6회로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것까지 잡고서 하기가 힘들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랑 본인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오는 애들을 끌어가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나. 장기실업 청소년의 특성 고려가 부족한 지원책

노동부 실업자지원책 중 훈련 계좌제 2단계의 경우 일반참여자는 20%가 자부담이다. 일반참여자의 경우 오전·오후 동시 선택해서 수강이 가능하나 100% 지원을 받는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는 하루에 2시간밖에 수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저희 참여자가 하루에 2시간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왔다갔다 교통비 하며 시간 낭비가 엄청 많잖아요. 자기는 오전·오후로 6시간을 듣고 싶은데 뉴스타트 참여자는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20%를 자비로 내서라도 참여해서 듣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대요.”(장기실업 청소년)

또한, 직장체험을 할 때 규정상 정해진 시간과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체험직장의 사정에 따라 단축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직장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을 학습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실질적 기회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경과적 일자리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서만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리스트에 있는 업체에만 의뢰를 할 수 있다. 이에 장기실업 청소년의 실거주지보다 먼 곳으로 직장체험을 가야 하는 문제점과 실제 장기실업 청소년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없는 업체에 일자리를 의뢰했을 때 장기실업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확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 일자리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과적 일자리는 NGO나 비영리단체들만 하지만, 직체는 일반 기업체도 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은 하려고 하면 한 달밖에 안된대요. 원래 3~5개월까지

가능한 건데요. 일반기업은 5개월까지이고 비영리기업은 3개월까지 인가 조건이 있어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7~8개 정도 되는데 아이들은 한 달밖에 못하잖아요. 시간도 8시간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4~5시간이라면, 한 달 해서 솔직히 뭐가 되겠어요. 안되죠. 그리고 업체도 피곤하고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경과적 일자리 업체는 많지 않아요. 아이를 돌보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원하는데, 리스트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면 지정알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무 입장에서 어려워요.”(실업극복단체 담당자)

다. 정부의 성과지향 평가시스템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본질 왜곡

애초의 지원 프로그램 취지와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기관별로 정부의 기간별 할당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 프로그램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기도 한다. 즉,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역에 따라 저학력 장기실업자가 많을 수도 있고, 고학력 장기실업자가 많을 수도 있으나, 저학력 장기실업자 위주의 성과달성이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맞는 이를 찾아 프로그램을 역지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지침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서 부처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노동부에서 민간위탁을 준 것은 좀 더 전문화하고 구별해서 제대로 하자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면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상담을 다니면서 민간위탁의 특성이 있으니까 선생님 애가 자활 쪽과 연결 되는 이런 위주로 어떻게 해 보라. 저쪽은 헤드헌팅회사는 똑똑한 애들을 모아 서 특성을 살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본부에서는 위기청소년 위주로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포커스를 맞춰 가고, 그쪽으로 똑똑한 애들을 취업시키라고 저희는 얘기했는데 위에서 갑자기 다 뭉개 버리니까. 저도 하면서 민간위탁을 얘기하면서도 참 민망해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요새는 (모집이) 정상적으로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빨리 모으면 담당자가 편하니까 모집 공고를 노동부 사이트가 아닌 알바사이트에도 올라 온대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당 30만 원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오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악용한 애들이 있었어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준비해야 할 게 많고 예산을 신경 많이 쓰시니까, 예산을 쓰고 적고 하는 것이 힘들고요.”(장기실업극복단체연대 교사)

4. 청소년 니트족

가. 기본생활습관 미형성 및 낮은 기초학습능력

20세 이하 청소년 니트족 대부분은 저학력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니트족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 니트족은 탈학교한 상태로 오랜 기간 가정 등에 방치된 경우여서 학력수준이 낮다.

직장체험이나 취업 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니트족 지원기관의 경우도 상위학력 졸업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탈학교하여 저학력 상태

로 오랜 기간 방치된 기간이 길수록 기초학습능력이 매우 낮아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그동안 몸에 밴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수업에도 꾸준히 참석하기를 힘들어 한다. 이로 인하여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제 참여율과 합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검정고시를 병행하죠... 가장 시급한 것이 졸업장이죠. 직장체험도 인턴을 나갈 수 없는 학력 이니까요... 직장체험도 대상이 안 된다고 다시 돌려보내셔서 어디 보낼 때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교육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는 졸업장 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들이 제대로 수업을 오지도 않고, 수업을 와도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1:1로 하고 그렇게 수준을 낮춰도 안 되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직장체험을 3개월 받고 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한테 연결시켜주는 것 자체도 돈을 줘도 웬만한 업체에서는 하기 힘들 거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좌제로 빠졌어요. 인턴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나. 청소년 니트족의 취업능력 강화를 지원할 전문인력 부족

은둔형 니트족의 경우 집 밖으로 나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단 학습을 하기까지 다른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에 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한 편이어서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의지 형성 및 동기 유발, 관계 형성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집 밖으로 나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문제 발생 이후에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 중도탈락이 높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 니트족이 위기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사전적 예방과 순환고리를 끊기 위한 전문인력의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처음 니트족이 발견되면 이들을 집 밖으로 이끄는 것부터가 숙제예요. 처음에는 집에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오고, 또 보고 오고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경계심을 낮추기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우리 기관에 놀러갈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끌고 나오는 거죠. 참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보람도 커요.”(청소년 상담원 교사)

“처음에는 폭력이든 뭐든 전문기관이나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가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 부분을 설득하고 달래는 작업이 길게는 6개월도 가고요.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까지요. 짧게는 한두 달 가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진로 목표를 세우더라도 속도가 더디거나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다지는 작업이 들어가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이 아이들에게는 모니터링 요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부분 위탁이지만 2단계 유지율이 너무 낮고 30만 원 받고 그만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단계 잘해서 3단계 취업까지 시키려는 건데... 끊임없이 학원을 발굴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부탁을 드리거나 아이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다. 청소년 니트족의 특성에 맞는 학습방법 부재 및 부적절한 학습시간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쉽지 않아 처음부터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에 단기간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그 참여 횟수와 기간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의 융통적 운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다른 취약청소년 집단에 비해 특히 사회성과 조직이해력 등이 매우 낮은 청소년 니트족은 충분히 프로그램 운영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후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집단 프로그램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힘들어 하는 것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집단 프로그램 형식으로 많이 개발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많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개별적인 루트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따로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어려웠어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고용지원센터에 보내면 집단 프로그램이 있는 날짜가 있어요. 매일 상시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겨우 나왔는데 기다리라고 간격을 주면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또한, 프로그램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이 아이들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힘들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도 어려운 편이다.

“진로 프로그램은 노동부에서 워낙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해서 활용도 하는데, 일단은 노동부 것은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들의 특성 때문이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몇 시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있는데, 그게 여러 아이한테 맞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게 특성이 다른 여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은둔형 아이들은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집단 시간이 48시간, 60시간을 1주 안에 취득하는 것은 힘들거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라. 학부모(가족) 병행 치료(지원) 프로그램 부족

청소년 니트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보내며 문제가 발생되면 부모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청소년 니트족으로 인해 가족 역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니트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지원하는 부모(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치료 및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니트족 중에는 매우 폭력적인 아이들도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가족이나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서 돈을 마련하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죠. 아이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부모님도 있고 오죽하면 이렇게 못살겠다고 부모가 아이를 신고하겠어요.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도 필요한데...”(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마. 직장체험 기회 제공 기업 및 고용주의 인식부족

은둔형 니트족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다른 취업의 취약한 청소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또한, 비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과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도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교육 및 지도해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에서 직장체험 및 인턴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청소년 니트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하여 더욱더 거부가 많은 편이다.

“멀쩡한 애들이 간다고 해도 웬만한 업체는 싫어해요... 직체 자체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쓰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고,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데도 싫다고 하세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지역에서 뚫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안 해주려고 하시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런 곳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5. 새터민 청소년

가. 직업관 차이 및 직업 정보 부족

현재 새터민 청소년은 하나원에서 지원되는 단편적인 진로상담 이외에 별도의 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새터민 청소년 관계자 FGI 및 새터민 청소년 집중면담 결과, 이들의 대다수가 남북한의 교육과정 수준차와 탈

북 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학력 결손이 심하며 입국 후 학력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정규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로 진학을 위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그동안 북한사회에서 또는 탈북 후 습득한 직업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통상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업개념 및 인식과 차이가 크고, 직업의 종류나 상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바로 직업을 찾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위주로 수업이 진행하고 있었고, 교사들도 학생들이 진학이 아닌 취업을 원할 경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체적으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 어떤 방법과 경로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도 알려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진학이 아닌 경우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지 않지만, 30세까지 반이 편성되니까 저희도 반 편성에 문제가 있는데,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대안학교를 갈 필요는 없어요. 학력의 결손을 보충하려고 대안학교로 가는 거지. 학력으로 보서는 일반 직업훈련학교로 가도 되고,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어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직업훈련제도나 교육제도를 알고 가서 훈련해야 한다고 강의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원 교사)

“노동부에서는 새터민 청소년 담당자로 하여금 노동부의 직업훈련학교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10% 미만이에요. 합리적인 직업선택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싶지도 않아요.”(하나원

교사)

“직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에 가치를 두고 직업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못하고 그냥 나오고… 그럴 바에는 직업의 좋고 나쁨이나 실질적인 정보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새터민 청소년)

“저희는 검정고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항상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하나원 교사)

나. 직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참여 의지 부족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한국의 사회·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직업적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관계자 FGI 및 대상자 집중면담 결과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새터민 청소년이 취업에 적극성이 떨어지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기초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 별도로 진행한다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 장의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및 내용에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 직업기초능력은 단순히 직업생활에만 국한된 능력이 아닌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이다. 이에, 새터민 청소년의 낮은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직업훈련은 해도 취업을 기피를 해요. 기관협약에 의해서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노출이 되고 생계비가 끊기니까,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은 실업자이고 구직활동 노력자이니까 직업훈련 투어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은 생계비, 수입과 다를 수는 있어요.”(하나원 교사)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있고 중퇴자도 있지만, 졸업한 애들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진로가 목표일 것 같아요. 취업과 관련된 기술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에는 혹하지 않을 것 같아요.”(하나원 교사)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취업으로 인해 정부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 교육을 받고 나서도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취업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차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 사람과 똑같은 근로조건 차에서 열심히 일 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보다는 뭔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보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하나원 교사)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족 중의 누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그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가족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죠, 의료보험 끊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나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총 수입 면에서는 높은 거죠.”(하나원 교사)

다. 새터민 청소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력 부족

탈북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고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설뿐 아니라 투입 인력이 부족하여 양질의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애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제한적이고…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하나원 교사)

“하나원에 들어온 애들이 500명인데 심리 상담사 한 분, 직업상담사 한 명이예요. 심리프로그램이 20개 되고, 직업프로그램이 40개 돼요. 또 개인 상담을 하는데, 수업 하고, 손님 오고, 인터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서비스가 어렵죠. 저희도 인력보강에 대한 것은 요구하지만 쉬운 거는 아니고요.”(하나원 교사)

라.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기업주의 이해 부족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경제·사회 체제가 상이한 국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이들의 사고방식 및 특징은 다른 이주노동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주들이 새터민 청소년이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실제 일을 하면서 사고방식, 일에 대한 개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생활해 온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견차에 대한 조정방법 등을 서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및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사람들은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유지하게 하려면 기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자에게 새터민 청소년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한다고 봐요. 새터민 청소년 중에서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거기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경력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 갈 거잖아요.”(하나원 교사)

“새터민 청소년이 만 명이 넘었는데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탈북자에 대해서요. 서울은 새터민 청소년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잘 몰라요.”(새터민 청소년)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 사람이 순수함이 남아 있고 성실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우리 사람을 쓰겠다는 것으로 쓰는데, 오히려 베트남인들은 갈구면서 막 부려도 되고, 조선족도 새터민 청소년 다음으로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은 벌거든요. 그러니까 동포애로 수용하기에는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실망의 정도가 크죠… 기업은 능력이 없음에도 뽑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하고, 태도가 이렇다고 하면서 통합이 안 되고 자꾸 주변인으로 남게 되는 경우의 문제가 많지요.”(하나원 교사)

제2절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 및 취약청소년 집중면담 결과 도출된 앞 장의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와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며, 기초학습능력이 부진한 경우가 많고, 학교 부적응 상태가 오래된 경우 정규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선

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가.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체계적인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위기청소년의 기본생활습관 미형성과 낮은 기초학력능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위기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교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의 검정고시반 등에 위기청소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기초학습능력을 맡겨놓기보다는 이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능력향상 측면에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지원 대안학교 등의 정규학교 이외의 별도의 교육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학교 복귀 또는 상위학력 습득을 체계적으로 돕고 빈곤이나 일탈에서 탈피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보조 수단으로 방송통신교과의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교재를 활용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습관부터 교정해야 돼요. 이게 돼야 제대로 된 졸업장도 딸 수 있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방치된 아이들이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위기청소년 담당자)

나.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위기청소년의 폭력성과 일탈성은 이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다른 취약청소년 적용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중에서도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점 지원이 요구된다.

“위기청소년 아이들은 워낙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 충동적이고 어쨌든 일탈 행위를 했다는 점이 공통적이죠.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능력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대인관계 능력이죠. 일단 사람을 안 믿고 또는 너무 쉽게 믿고 하는데서 문제가 시작되니, 뭐 대인관계 능력을 통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이해 능력 권위나 지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뭐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딱 맞는 교육은 없죠. 없습니다.”(청소년 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 관계자 및 위기청소년 집중면담 결과,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부실문제를 앞 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프로그램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지원인력의 확보와 보호관찰기간 이후에도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이런 프로그램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해줘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한편으로 그것과 더불어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여기까지만 다 집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성취한 것에 대한 수료증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위기청소년 관계자)

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복교,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연계가 요구된다. 즉, 위기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의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또래에게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다보면 어느 한 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구심점에 대해서 전부 다 아우르는 관계이면 괜찮은데...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쪽이고, 청소년지원상담센터는 교과부랑 해서 Wee Center랑 연결해서 되다가 안 되다가... 우리가 이거 지원하면 얼마 줄래? 이와 같은 예산 문제도 해결이 필요해요.”(위기청소년 관계자)

“현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 분야 개발, 주거지 인근 등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연계, 진로 설계에서 취업까지 체계적인 연계망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위기청소년 관계자)

2.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이미 탈학교의 상태로 불규칙적인 생활과 규제에서 벗어난 생활을 한 경험이 길 수 있다. 때문에 자기관리, 감정조절, 문제해결력, 인내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잘못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된 직업관의 형성으로 잠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취업 이후에도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가.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체계적인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취약청소년 중에서도 수리능력 등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집단은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었으며, 한편 상위학력 취득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집단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탈학교 기간이 길수록 기초학습능력 저하와 함께 기본생활습관 미형성이 이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시간관념 및 사회적 약속의 이행을 통해 소극적 성향을 변화시키고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과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필수교육과정의 이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위과정의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사실 학교를 그만둔지가 오래 돼서 (검정고시반 수업내용) 잘 몰라요. 그런데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고...”(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 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특성 상 규칙적이고 정해진 틀에 대한 거부감은 크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며, 역동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참여 정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참여활동을 늘리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미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재미가 없으면 애들이 쉽게 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나 편한 시간에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일주일 다녀봤는데 너무 재미없었어요. 아줌마, 아저씨만 있고...”
(대안학교 학생)

“외부로 연결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강좌 안에서 조금씩 배우거나 직업 인터뷰도 하고...”(대안학교 학생)

다. 전문적인 관리·운영 인력의 보완이 요구된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지원기관의 운영은 소수의 관리자와 다수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지원의 비체계성과 연관된다. 자원봉사자는 계속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된 질 높은 지원을 담보하지 못하기에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지원사업은 단발성으로 운영되곤 한다. 이에, 전문인력의 보강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 운영이 요구된다.

“실무자 몇 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이지, 사례관리가 되어야 실제 아이들이 자립도 하고 취업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대학생 멘토라든가 청소년동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와서 관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청소년상담원 교사)

“저희 기관에서도 1명이 몇 십 명을 관리해요. 아이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다루기 힘든 유형이 있으면 더 많이 인력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힘들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라.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대다수는 부모의 보살핌이나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생계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따라서,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참여기간 동안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연극 아카데미 지원해 주는데가 있어서 거기도 다녔어요. 나는 연극을 하고 싶지만 당장 핸드폰비랑 방세가 걱정이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먹고 살려니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거예요.”(대안학교 학생)

“청년인큐해요. 학원도 보내주고 돈도 주고 해서 좋아요... 제가 집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냥 전기세나 방세 같은 거 내라고 하면 내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마.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아이들을 사전에 발굴해내고 중간중간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저학력 비진학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미취업이라는 점에서는 노동부의, 비진학이 경제적 문제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렇듯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조와 체계적 연계시스템이 구축될 때 프로그램의 효과는 담보될 수 있다.

특히,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은 장기실업자 또는 청소년 니트족으로 발전하는 전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학교·지역사회·민간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이들의 조기 발견과 개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은 기관이 다 할 수 없어요. 보호, 교육, 취업 모두를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권역이든 지역이든 네트워크 조직을 하는 기관을 선정하건, 센터를 하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정하면, 사후 관리지만 그렇게 묶어내는 일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대안학교 교사)

“저희 아이들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김정고시를 안보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취업준비를 계속 하다가 취업이 쉽게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저소득 가정 청소년(대개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야 실업자 신분으로 취업준비가 가능한 실정이에요. 고등학교를 이미 자퇴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 상

태에 있고 나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업기술은 물론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능력이 이미 저하되고 나서 개인이 되는 형편이에요. 이미 학교 밖, 실업 상태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고서도, 당장의 생활고로 생계형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이 만성화되면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바.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 참여하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의 청소년 니트족이나 장기실업자로의 발전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드림도 한 해 하고는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도 한 달 쉬었는데 또 한 달 뒤에 한다고 하고… 특히 이런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평범한 애들에 비해서 개입기간이 길어요… 예산을 충분히 주고 그 사업을 단회성이 아니고 충분히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다 떨어져 나가요.”(청소년상담원 교사)

3. 장기실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의 대다수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발전된 형태이거나, 학력은 고졸 이상이지만 비진학 미취업인 경우로 나뉜다. 학력 수준에 따라 이들의 특성에 다소 차이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 등이 낮으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능력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래의 사항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및 치료의 선행이 요구된다.

장기실업 청소년 관계자 FGI 및 장기실업 청소년 집중면담 결과, 현재 뉴스타트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장기실업 청소년은 장기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직업상담 이전에 자신감 고취, 불안감 해소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향후 직업을 갖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로 상담 위주의 프로그램에 심리상담 및 치료 부분을 추가하거나, 다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의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뉴스타트가 진로상담 부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 가정 형편이 말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커버가 안 돼요. 심한 친구들은 관련 연결된 기관이 있어서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런 게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청소년상담원 교사)

“가끔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애가 와서 하는데, 그래도 안 그런 척하죠… 지금 직체하는 애는 엄마랑 통화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오는 것보다 병원 가라고 했는데…”(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장기실업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학습에 대한

의지가 낮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실업 청소년들이 2단계, 3단계를 진행 중일 때에도 참여 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희는 부분 위탁이지만 2단계 유지율이 너무 낮고, 30만 원 받고 그만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2단계 잘해서 3단계 취업까지 시키려는 건데… 끊임없이 학원을 발굴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 부탁을 드리거나 아이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2단계에서도 이 아이들을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아이들이 학원에 카드를 다 맡기더라고요. 분명히 집에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학원에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학원은 카드를 다 받아서 분실할 것을 우려해서 맡겨라 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청소년자활복지관 교사)

다. 낮은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2단계 직장체험과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다. 학력단절기간이 오래되어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한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 사비를 통해 검정고시반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실업 청소년 역시 사교육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실업 청소년 역시 낮은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장기실업 청소년의 경우, 다른 취약청소년에 비해 컴퓨터 사용능력이 뛰어나고 언어이해 능력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다는 FGI 결과를 반영할 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법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즉, 방송통신 등을 활용한 기초학습능력의 보완이나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제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간 동안 기초학습능력도 병행하여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2단계까지 보내면, 2단계에서 유지율이 있어야 취업까지 가는데, 문제는 인턴십을 하겠다면 국졸이라서 안 된다고 해요. 인턴을 할 수 없는 아이가 많아요. 이게 걸림돌이고 진로장벽이에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민간위탁에서 상담을 하는데 국졸을 하기는 하는데, 사업장에서 안 원해서 못가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라.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확보하고, 기업주의 마인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실업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업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 직업체험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지역별로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또한 직업 체험 기업주에게 인턴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인턴십 경험이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애들이 처음에 와서 직체를 하겠다고 왔는데, 직체를 하겠다는 애들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서는 아예 받지를 않아서 연결을 해 줄 수 없어요...”(노동부 청년실업 지원 담당자)

“저희는 경과적 일자리를 할 때는 동행면접을 같이 가요. 아이가 혼자 가서는 못하니까, 상황 설명하고 아이의 특성을 설명하고 동행면접을 가지요. 그게 너무 차이가 나요. 미성년자는 특히 못미더워 하시는 경우가 있고...”(실업극복단체 담당자)

4. 청소년 니트족

청소년 니트족은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은 위기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동적인 성향이 있고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 청소년 니트족은 은둔하려는 성격이 강한 편이어서 이 부분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가. 프로그램에 참여 이전 단계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은둔형의 경우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들의 무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상담, 직업의식 교육 등의 복지 개념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은둔형은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 부분을 설득하고 달라고 어르는 작업이 길게는 6개월도 가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또한, 청소년 니트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멘토를 붙여줌으로써 이들의 유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니트족은 무의지, 무능력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독려해줄 수 있는 멘토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서 써오라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좀 그랬죠. 선생님은 그냥 해오라고 하고… 그래서 포기하려고요.”
(청소년 자활복지관 학생)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취업패키지에 참여할 정도의 의지나 열정이 있는 애들은 뭐든 해 먹고 살죠. 연결을 해도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률이 높고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나. 점진적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청소년 니트족은 오랜 혼자생활로 비현실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갖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대인관계 능력과 타인의 이해를 통한 조직이해 능력 강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에,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실현을 통해 타인을 회피하는 성향을 줄이고, 비현실적 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니트족 아이들은 달팽이 같아요. 빼꼼하고 내밀었다가 얼른 숨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신뢰감을 주면 뭐 정신병 등이 동반된 아이가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을 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관심도 보여요. 그런데 은둔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주로 컴퓨터게임 등의 비현실적 세계만을 경험해서인지 대인관계가 매우 부족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에 무조건 겁내요. 이를 도와주는 프

로그랩이 있다면…”(자활센터 사회복지사)

다.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청소년 니트족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가정이나 특정 장소에서 은둔하며 지낸다. 이에, 이들이 접하는 사회생활은 가정생활이 전부일 수 있다. 이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도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청소년 니트족 본인뿐만이 아닌 가족 대상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니트족의 직업능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니트족은 가족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기도 해요. 집에만 있으면서 가족을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로 인해 대부분 저소득층인 가족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대처 방법을 몰라 니트족 아이들이 상태가 점점 심각하게 발전하게 된 경우가 많죠. 안타깝죠.”(자활센터 사회복지사)

라. 청소년 니트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업(기업가)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니트족의 경우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타인도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나갔을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실패의 경험에 더욱 크게 상처받거나 이로 인하여 좌절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니트족이 직업체험이나 인턴십을 하는 경우 이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청소년 니트족이 현장 체험 동안 직업적인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과 같은 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떨쩍한 애들이 간다고 해도 웬만한 업체는 싫어해요… 직체 자체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쓰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고,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데도 싫다고 하세요.”(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지역에서 뚫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안 해주려고 하시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런 곳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청소년 자활복지관 교사)

5. 새터민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은 사회체제가 다른 곳에서 중요한 학령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취약청소년의 다른 유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 및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직업교육 이전에 부족한 기초학습능력을 보충하고, 이는 학교교육내에서 멘토 등의 도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력결손이 심하지만 취약청소년의 다른 유형들과는 다르게 성공을 위해 부족한 학력수준을 보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하려 한다면 새터민임을 숨기고자 하는 새터민 청소년의 특성 상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멘토 등의 도움을 통해 기초학습능력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멘토는 학교 내의 방과 후 교사나 퇴직교사 등 지역사회 인력을 ‘학습보조강사’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려면, 그 대안학교별로 우리 아이들이 몇 십 명씩 가 있을 거고, 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넣는다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직업프로그램 속에 심리 프로그램을 잘 다져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학교 학습프로그램 속에 잘 설계가 되면 잘될 거예요.”
(하나원 교사)

“취업을 하겠다는 것이 반 정도이고 더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절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취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게 제공될 것 같아요.”(하나원 교사)

나.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전달한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제3국 체류 기간이 달라 학력단절 기간이 다르고 결손 정도가 연령과 상관없다. 이들을 연령이나 북한에서의 교육 정도로 집산화하여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학력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학력결손 상태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터민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새터민 청소년의 부끄러움 해소와 수치심을 낮추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북한 체제는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부모도 없는 곳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우려가 되는데 상황인데, 정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고등중학교를 나와도 기초학

습이 됐냐는 거죠.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학력의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하나원 교사)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지역별로 흩어지면 몇 명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모이지를 않아요.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려면 10~15명은 모여야 하는데, 지역단위에서 10명을 모으기는 아주 힘들어요.”(하나원 교사)

“새터민 청소년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속도가 빠른 편이죠. 컴퓨터 교육에 가장 참여가 잘되요. 컴퓨터를 한 사람당 한 대씩 사용하는 복지관이라면 그 교육에는 참여도가 높다고 합니다.”(하나원 교사)

다. 직업 정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홍보가 요구된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직업 탐색 및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하여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에 대한 홍보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직업 개념이 다르고 동일한 직업이더라도 실제 하는 일과 사회적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직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에 가치를 두고 직업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못하고 그냥 나오고… 그럴 바에는 직업의 좋고 나쁨이나 실질적인 정보를 알고 배울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새

터민 청소년)

“직업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 직업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단점은 이거다, 장점은 이거다’라고 듣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면이 좋고 나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힘들어요. 잠깐이라도 직접 직업체험을 하면 좋겠어요.”(새터민 청소년)

라. 새터민 청소년 직업훈련 후 사후지원 확대와 기업주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경제·사회 체제가 상이한 국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이들의 사고방식 및 특징은 다른 이주노동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주에게 새터민 청소년의 사고 및 생활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터민 청소년이 직업을 가진 이후에 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신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은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유지하게 하려면 기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자에게 새터민 청소년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한다고 봐요. 새터민 청소년 중에서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거기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경력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 갈 거잖아요.”(하나원 교사)

“그러니까 나는 북에서 왔고 자기는 한국에 있었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일하시는 분 중에서 그게 맞지 않아서

따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새터민 청소년)

제3절 시사점

지금까지 취약청소년의 유형별로 직업기초능력 관련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청소년의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생활습관이 미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낮은 기초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저학력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취약점으로 작용함을 깨닫고 상위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요구는 높으나, 기본생활습관의 미형성으로 강제성이 없고 체계적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민간단체의 검정고시반 등에서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교육과정과 내용을 추출하여 대안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의 통제 하에 취약청소년들이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취약청소년별 특성에 따라 시간과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위기청소년은 폭력성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심리치료와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청소년 니트족은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이해 능력의 강화가 요구되며, 장기실업 청소년은 자립능력과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의 강화와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자원활용 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새터민 청소년 역시 사회체

제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직업관의 형성에서부터 적극적인 태도와 협업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별화된 직업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각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도 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취약청소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전문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취약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고 심리적 문제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의 1회성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취약청소년의 특성 상 각기 다른 측면에서 또는 공통된 관점에서 정부의 많은 부처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나, 그의 효과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관 간 연계부족으로 지원의 종류는 많으나 지원내용이 심도 깊지 못하여 취약청소년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통일부-법무부-민간단체 등의 역할분담 체계의 구축과 이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진행상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중 취약청소년 취업관련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요즘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청소년 니트족이나, 장기실업 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부처에 따라 그 지원 내용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에서 장기실업 청소년이나 청소년 니트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조기 관심과 지원을 통한 이들의 근본적인 발전 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5장 취약청소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변숙영

지금까지 취약청소년의 특성,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취약청소년 관계자 FGI와 취약청소년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앞 장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기인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개인적·가정적·사회적·환경적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노동시장에 투입된 취약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 등 그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생활습관이 미형성되고, 기초학습능력에 심각한 결손이 우려되고 있었다.

특히,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기관리 능력 등이 포함된 기본생활습관과 수리능력이 포함된

기초학습능력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실업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사회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원과 기초학습능력 향상은 직업능력 향상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시간관리 및 자기통제 등 직업기초능력 중 자기관리와 자원활용 능력에 포함되는 기본생활습관과 언어능력 및 수리능력 등이 포함되는 기초학습능력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로, 시간관리와 학습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그동안 몸에 배인 습관을 버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을 취약청소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조금씩 그러나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 즉, 현재의 민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비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검정고시반 등의 운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잘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멘토로 투입되어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때, 정부가 2010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휴먼 네트워크산업'처럼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을 취약계층 청소년과 1:1로 연결하여 멘토링을 제공하는 지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기초학습능력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 복귀 및 성공적인 학력 취득, 노동시장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국의 틴새 메우기(Bridging the gap)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기초학습능력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멘토링제를 도입하여 멘토는 방과 후 교사나 퇴직교사 또는 예비교사 등의 지역사회인력을 '학습보조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멘토에게는 활동비 지급이나 예비교사일 경우 봉사학

점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약청소년들은 수치심을 낮추고, 부끄러움을 해소하면서 전문가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퇴직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취업준비 교원에게는 유용한 현장경험 기회 제공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취약청소년들이 컴퓨터 등의 첨단미디어 사용에 익숙한 세대임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방송과정과 이러닝 과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해서도 집체 학습 형태를 유지하되, 청소년 니트족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업내용의 보완 수단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과 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러닝 과정으로 제작·보급한 ‘직업능력향상’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학습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 배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약청소년 특성별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요구된다.

취약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은 단순히 직업능력관련 프로그램만의 도입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특성 및 취업 특성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진단·상담·치료의 과정을 거쳐 직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직업체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진단·상담·치료’⇒‘교육·훈련’⇒‘진로설계·직업체험’의 단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인 ‘진단·상담·치료’ 단계는 취약청소년들이 탈학교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이의

상담·치료를 통해 자기애의 형성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으로 진행되는 것이 직업능력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박동열 외(2008)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진단하는 도구의 7개 영역에 따라 살펴본 취약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FGI 조사 결과 취약청소년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생활습관의 미형성과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대인관계 능력이나 조직이해 능력,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문제해결 능력이 심각하게 결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 특성에 따라 그 활용능력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정보화 세대인지라 컴퓨터에 친숙하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서작성이나 정보 찾기 등의 전문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언어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이들의 언어적 파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단계인 '교육·훈련' 단계는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단계적·융통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는 기본습관형성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이라는 기본 전제와 함께 진행된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문제발생시 주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의 병행이 시급히 요구되며,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장기실업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의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습능력의 보완을 통한 상위 학력의 습득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청소년 니트족은 오랜 은둔 생활로 인한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 등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며 이를 위해 가족치료의 병행이 요구되었다. 새터민은 올바른 취업관의 형성을 통한 남한사회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위기청소년과 실업자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그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훈련 프로그램들도 있어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장·단점을 부각시켜 학습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차별적이며, 융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 자원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조직이해 능력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로 된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보다는 '익혀보자, 의사소통 능력', '활용하자, 주변자원', '친해보자, 대인관계', '관리하자, 나', '알아보자, 사칙연산', '풀수 있다, 문제해결', '배워보자, 직장예절' 등 취약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한 친숙한 용어와 내용을 선정하고 취약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취약 부분의 적용 시간을 늘리는 등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약청소년의 유형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이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나 니트족, 장기실업자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이의 고리를 끊는 프로그램의 순차적 적용이 요구된다.

한편,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은 취약청소년 관계자 및 취약청소년 집중면담 결과에서도 요구된 바와 같이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적인 시간의 적용과 다양한 교수매체와 교수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정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되,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시간적용과 내용 보완이 요구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개발한 직업기초능력 관련 이러닝 과정을 보조교재로 활용한다면 청소년 니트족 등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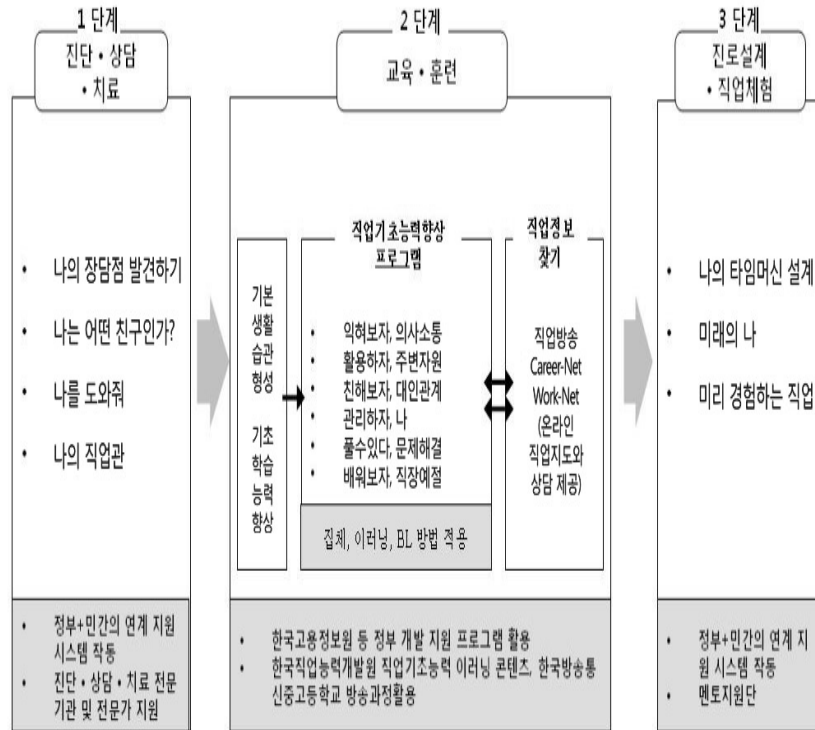
또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과 함께, 직업정보를 직접 찾는 과정을 통해 직업의 동향과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도 요구된다. 즉, 정보화세대로

컴퓨터 사용률이 높은 취약청소년의 장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직업정보 관련 Career-net이나 Work-net 등을 활용하여 취업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리고 게임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직업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직업지도와 상담이 가능한 Career-net의 활용은 취약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 소극성을 최소화하면서 올바른 직업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용,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직업방송'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인 '진로설계·직업체험'의 단계는 자신의 이해와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좀 더 현실의 직업 세계, 노동시장에 친근하게 접근하고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같은 처지였던 취약청소년 선배나 취약청소년이 근무하고자 하는 산업 현장의 전문가가 멘토로 이를 지원하고 돕는 체계적 연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의 상세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절차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취약청소년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모형



이는 정부에서 2010 추진 전략으로 밝힌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 취약청소년 관련 영역의 구체적 실천 내용과 단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인력의 보완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취약청소년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직업기초 능력과 함께 이들이 내면에 내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은 앞 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없다. 현재처럼, 정부에서 여러 측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의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되어 있고, 성과 위주로 평가하다 보니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인력의 확충만으로 그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취약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확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취약청소년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은 친밀감의 형성과 신뢰구축, 이를 통한 교육과 상담이 중요한 취약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취약청소년의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의 고리를 해결하고자 한 측면에서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완과 이들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즉, 국가적 차원의 취약청소년 상담 및 지원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통한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0년 정책보고에서 내실있는 취업상담을 위한 고용지원센터 인력 보강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전담 상담인력 배치를 밝히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의 확대와 현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에 큰 지원목이 될 것이다.

넷째,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위기청소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법무

부-지역사회단체 등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차별책으로 사각지대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같은 대상을 지원하는 경우, 연계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상호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 상의 문제로 쉽지 않다.

이는 비용적·시간적·인력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여기저기에서 지원해 주는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다행이다.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도 2010년 정책보고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 실시 등의 취업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취약청소년 관련 부처 간 연계를 통하여 인력지원과 비용지원, 프로그램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 계획을 큰 그림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대한 취약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각 부처별로 또는 민간단체별로 파악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공유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정부의 취약청소년 신상관련 정보, 교육정보, 취업정보, 진로상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보 관리 및 지원 통합 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적 정보 DB 구축 및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단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다섯째, 취약청소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약청소년 유형별로 공통점도 있으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이라는 범주 속에서 크게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

고, 실업자 또는 취약계층이라 틀 속에서 성인들과 차별 없이 지원되는 지원책으로는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취약청소년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이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나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으로 발전하거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이나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등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유형별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향후 추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취약청소년별 직업능력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인턴제와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정부차원의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제도의 개선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to Improve of the Vulnerable Adolescents' Vocational Competence

SOOK YOUNG, BYUN SOO KYOUNG, LEE JONG-BUM, LEE

1. Over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some effective ways that could make progress in vulnerable adolescents' vocational competence. To meet this aim, the present state of that group of adolescents' vocational ability, and their traits in vocational aspect were examined. Specifically, the concept of 'vulnerable adolescents' was first defined, and then their unique traits and decisive factors that are involved in their job seeking process were sought. Other crucial parts like the state of adolescents' basic vocational ability and their awareness about their ability were also examined. Methods such as expert panel, FGI(Focus Group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were applied.

Due to domestic social polarization and aggravation in economy, adolescents unemployment stands out to be the most serious issue here in South Korea. Especially, it is more prone to be unemployed for those who lost the chance to get educated in a rather early age or

who were not much prepared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this would cause them to face various difficulties when fulfilling the social role. The lack of thorough preparation in various abilities(including vocational competence) that are vital in knowledge-based-society through the schooling is the partial cause of the unemploy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dolescents(from twelve to twenty-four ages of people) who are difficult to be employed were identified as the subjects in this study and more specifically, we focused on adolescents at risk, low level of education and don't enter school and unemployment, long-term unemployment,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orth Korea defector.

2. Analysis on supportive programs and systems dealing vulnerable adolescents' employment

The discussions about the present supportive programs and systems dealing vulnerable adolescents' employment, operated in various departmen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problematic that recipients were receiving overlapping benefits from different programs and that the program contents were similar. Also there were too many things to do in a limited time. Even the long-termed programs like 6 months ones, found to be inappropriate to some of the adolescents. Second, the program organized a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urned out to be too near sighted, just to focus on vulnerable groups who are presently attending school. Third, the governmental undertaking to support the vulnerable class was insufficient in the sense of reinforcing their competence to stand on

their own. It was found that the contact with other related institutions to actually carry out the project is scarce as well.

3. Analysis on the status and needs of vulnerable adolescents' vocational competence

After the examination on the state of adolescents' vocational competence, we concluded that there were deficits in basic lifestyle and foundational learning skills which are crucial to get employed among the vulnerable adolescents. Some adolescents were suffering from monetary problems, consistent ignorance and neglects from their parents which caused damage on trusting others, social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There were also some adolescents who were not familiar with using word-processing or searching through the websites to get the proper information though they were familiar with the computer itself. In addition, because this generation is more exposed to the mass media and internet where all the indiscreet words overflow, it was found that their language was seriously harmed.

For these reasons, it is absolutely critical for the adolescents at risk to get psychological help and professional care in order to deal their violent and impulsive ways of solving problems. Adolescents who are low level of education and don't enter school and unemployment and long-term-unemployed need help to compensate their low basic learning skills so that they could get more safe and secure jobs, as well as to be treated well in the society. As for the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who were secluded for long, skills such as relating to others and being one of the social members seem

to be urgent. Family therapy should be involved for this group to make better progress. Finally, North Korea defector should be provided with proper career valu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possibility of successfully adjusting in South Korea.

4. Suggestions to improve the vulnerable adolescents' vocational competence

Ultimately, the specific suggestions to improve the vulnerable adolescents' vocational competence are as follows. First, services that are supposed to affect adolescents' basic lifestyle and learning skill are needed. For example, retired teachers' participation can be a great support (which is called 'mentoring', teaching their majors). Second, the program for the adolescents should be organized and applied in a stepwise approach. In other words, focusing just on improving the vocational skills is not enough. Prior tasks like diagnosis, counseling, and therapy on each adolescent according to one's status are necessary. After that, foundational training and teaching about basic vocational skills should follow.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eps should be used to plan each adolescent's career and to decide which field the adolescent should get the training experience. Hence, the ideal stages of the effective program should be 'Diagnosis, Counseling, and Treatment' ⇒ 'Training and Teaching' ⇒ 'Career planing and Actual training'. Third, more volunteers, personnels and professionals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to procure qualified professionals, the national level traineeships for the adolescent counselors and volunteers should be arranged. Fourth, systematic connection among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in this field is more than necessary. Through such coordination, it is possible to draw out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lan that covers the vulnerable adolescent group. Finally, it is equally critical to develop and actually introduce some effective programs that can affect and improve adolescents' vocational competence. This also means much in that such programs prevent the adolescents in danger degenerating into long-termed unemployers, and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참고문헌

- 강순희·노홍성(2001).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127~151쪽.
- 고양보호관찰소 내부자료(2009).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교육과학기술부(2006). 일본의 직업교육 우수사례 발굴 출장 수집자료.
- _____ (2008). 학교안전통합시스템 : Wee project 「친한친구교실」 및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계획. 2008년 10월 내부자료
- _____ (2009).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2009).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 권혜자·노현국(2008).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변화와 매출액 상위 기업의 일자리 동향」, 『고용이슈』, 제1권 제1호, 64쪽.
- 김경휘(2008). 「근로빈곤가구 청소년의 사회진출 유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9호, 129~156쪽.
- 김기현(2005). 「니트(NEET): 일본 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제3권 제5호, 55~63쪽.
- 김대일(2004).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2004년 한국노동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 김상대(1994). 「대졸실업자의 발생원인과 대책」,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2호, 55~87쪽.
- 김성연(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9.
- 김승곤(2008). 「대학 미진학 청년층의 재학 중 직업훈련의 임금 및 취업 효과」, 『사회과학논총』, 제23권 제1호, 27~44쪽.
- 김승택(2002). 『사회안전망체계의 국제비교연구(I)』, 한국노동연구원.

- 김안국·신동준(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125~147쪽.
- 김준호·노성호·곽대경(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207~234쪽.
- 나승일·장석민·서우석·김진모·이성(2003). 『기초직업능력 영역 설정 및 표준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
- 나영선·전재식·김봉환(2003). 『장기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은영·마동훈·김철규(2000).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와 문화: 대학생 PC통신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회와 문화』, 제12권.
- 남재량 외(2005). 『고용불안계층의 실태 및 고용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노경란 외(2008a).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_____ (2008b). 『취업취약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고용정보원.
- _____ (2008c). 『YES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업무역량편』, 한국고용정보원.
- 노동부(2007).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_____ (200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시행계획.
- _____ (2008. 12).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지침.
- _____ (2008. 12).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시행지침 주요 내용.
- _____ (2008. 1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시행계획.
- _____ (2008. 12). 청년 직장체험 사업 '09년 사업추진계획.
- _____ (2009).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안내.

- _____ (2009.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 _____ (2009.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 _____ (2009. 5. 2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제도 개선 보도자료.
- 노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생활 및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94~117쪽.
- 대검찰청(2000).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
- 대한민국국회(2009).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 들꽃피는학교 내부자료(2008).
- 류장수(2003a).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6권 제1호, 1~25쪽.
- _____ (2003b).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산업노동연구』, 제9권 제1호, 171~196쪽.
- _____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1~27쪽.
- 박가열 외(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잡으로: To the Job) 개발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_____ (2009).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 추적조사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가열·노경란(2005).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동열 외(2003). 『수원여자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양교과목 개발 및 활용 방안』, 수원여자대학.
- _____ (2005). 『생애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성재·반정호(2007). 「청년층의 하향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4호, 1~28쪽.
- 박성준(2005).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박영신·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8권 제2호, 109~147쪽.
- _____ (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5권 제2호, 25~52쪽.
- _____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권 제1호, 63~89쪽.
- _____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제1호, 81~114쪽.
- 박영신·김의철·김영희 (2004).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에 대한 중단 연구』.
- 박영신·김의철·정갑순·이상미·권혁호·양계민(2000). 「초·중·고등 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5권 제1호, 94~118쪽.
- 박은선(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 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4, 85~112쪽.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6월 16일 보도자료
- 비전2030 작업단(2006).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정책포럼 (2006년 9월호). 128쪽.
- 서울분류심사원(1997). 비행소년의 분류심사: 분류심사 통계 및 사례, 제18집.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안산 들꽃마을(2009). 내부자료.

- 안주엽·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47~74쪽.
- 양계민·정현희(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 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제2호, 91~104쪽.
- 연세대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2009).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 오민홍(2007). 『니트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 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제21권, 181~205쪽.
- 우원자. 일본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윤윤규·박성재(2008).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윤정희·이은경·한건우·이영준(2007). 「자료표현 학습에서 자기조절 학습시스템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제23권 제2호 (2007년 6월), 223~239쪽.
- 윤철경(2005).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청소년개발원·청소년상담원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 이동임 외(2000). 『직업능력인증제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조정윤·박동열(2007).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7)-국가자격체계(KQF)수준별 배치기준 및 제도시행 방안 연구(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무근·이용환·정철영·배진한·최애경·이종성·정태화·나승일(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부.
- 이병희 외(2005).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1999). 「실업구조의 변화: 고실업과 장기실업」, 『동향과 전망』,

41, 188~211쪽.

이상미(1997). 「비가출 가출경험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우·정권택(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CEO Information 395호』, 삼성경제연구소.

이상은(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제23, 5~28쪽.

이영현 외(200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관련사업 조사연구를 통한 연계방안모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교(2006). 「새터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8권 제1호, 51~67쪽.

이정우(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이정표(2005). 『주요국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례 비교 분석: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183~184쪽.

이정표·박윤희·홍선이·나승일·이병욱(2004).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종성·정향진(2002).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초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최동선(2005). 「초·중등 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343~380쪽.

이찬 외(2007). 「새터민의 기초직업능력 진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이희연(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383~420쪽.

- 임언·최동선·최지희·오은진(2004).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연구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천순·유진봉(2004).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4호, 311~332쪽.
- 장명희·변숙영·나현미(2006).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 사례 발굴·보급』,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서영·장원섭·안선영(2006).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고학력 경력차단 여성의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장석민 외(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0).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사정책팀 조사보고서(2009). 청년니트(NEET) 해부-청년니트족 현황과 대책-.
- 전병유·이상일(2003).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갑순·박영신·김의철(2002). 학업성취과정에 관한 종단적 분석: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2002년 연차학술대회 교육심리분과 발표자료, 1~19쪽.
- 정원오(1997).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0, 325~352쪽.
- 정인수·김기민(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철영(1998). 「직업기초능력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육월보』, 7월호(통권 199호).
- 정철영·나승일·서우석·송병국·이종성(1998).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규필·권해수·김범구·박가열(2008).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회 진출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두드림존프로그램 참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305~331쪽.
- 조궁호(1998). 청년기의 특징과 위기. 청소년 위기 상담체제와 상담개입 전략. 청소년 대화의 광장 청소년 위기상담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 조우현(1995).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실업확률의 결정 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8권 제1호, 107~128쪽.
- 조준모(2009).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노동부.
- 조현진·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4권 제1호, 55~72쪽.
- 중소기업중앙회(2009. 2. 3). 2009년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 중소기업청(2009. 1). 2009년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세부운영지침.
- 지승희·양미진(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진미석·손유미(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윤형한(2003). 『성인 진로개발지원체제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이수영·채창균·유한구·박천수·이성·최동선·옥준필(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옥준필(2006).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 외(2007). 『새터민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연구』, 교육부.

- 최애경(1997). 「직업능력표준 설정 및 평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지』.
- 탁수연·박영신(2004).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
- 통계개발원(2008). 2008 청소년 통계.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일부 정착지원과(2007.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 하나원(2009). 청소년진로지도 프로그램.
- 한국 청소년상담원(2008).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결과보고집.
- 한국고용정보원(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연구』.
- _____ (2008). 『2007 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_____ (2009. 5. 7). 보도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09. 1). 2009년도 관광분야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운영지침.
-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8 교육통계연보.
- 한국노동연구원(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 한상철·조아미·박성희(1997). 청소년심리학, 양서원.
- 행정안전부(2009. 1. 10). 지자체 청년인턴 채용 추진상황 보도자료.
- _____ (2009. 3). 행정인턴십 관련 매뉴얼.
- _____ (2009. 3. 13). 행정인턴 조사결과 보도자료.
- _____ (2009. 3. 18). 대전충남 행정지원 워크숍 보도자료.
- 홍봉선(2002). 「출소자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14.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양성. <http://www.gofuture.go.kr>
-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http://cyber.coti.go.kr>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http://www.nyc.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서울고용지원센터. <http://www.work.go.kr/seoul>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co.kr>
윙글리쉬닷컴. <http://www.winglish.com>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조선일보 2008년 4월 24일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채용 패키지. <http://job.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노동부 HRD Net. <http://www.hrd.go.kr>
규슈대학교. <http://www.kyushu-u.ac.jp>
통계설명자료 <http://www.kosis.kr/metadata>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http://koreatravel.or.kr>
한국노동연구원 OECD 홈페이지, 2008년 6월 23일자, 'Canada's youth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www.oecd.org> our market outperforms
most OECD countries but a small group is left behind'.
한국폴리텍대학. <http://www.kopo.ac.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Barnow, B. S.(1986). "The impact of CETA Programs on earning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2 No.2, pp. 157~193.

Baron, S. W. & Hartagel, T. F.(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5 No.2, pp. 166~192.

Bergmann, B.(1986). *The Economic Emergence of women*. NY:
Palgrave.

- Blau, P. & Duncan, O. D.(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Y: Wiley.
- Bowers, N., Sonnet, A., & Bardone, L.(1999). "Giving young people a good start: The Experience of OECD countries." OECD.
- Braverman, H.(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NY: Monthly Review Press.
- Business Week, November 17, 2003
- Corcoran, M.(1982). "The Employment and wage Consequences of teenage women's Nonemployment." in Freeman, R. B.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re, R.(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Ellwood, D.(1992).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temporary Blemishes." in Freeman, R. B.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Grubb, N. W.(1995). "Evaluation job training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and Explanations." CA: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Gueron, J. M.(1990). "Work and welfare: Lessons on Employment Program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4 No.1, pp. 79~98.
- Havighurst, R.(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Y: Longman.

- Kosugi, R.(2004).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Japan: Understanding th increase in freeter and jobless youth." *Japan labor Review*, Vol.1 No.1, pp. 52~67.
- Lynch, L. M. (1985). "State Dependency in youth Unemployment: A lost Gener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Vol.28 No.1, pp. 71~84.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UBrooks/Cole-Thomson Learning.
- Mech, E. V.(1994).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dge-building Perspec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Vol.16, pp. 141~145.
- Mincer, J.(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O'Higgins, N.(1989).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global Perspective*. Geneva: ILO.
- OECD(1999). The respons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 to Regional needs.
- Park, Y. S. (2000). "The impact of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 Fundtioning: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pp. 84. Paper Presented at th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olish Academy of Science, Pultusk, Poland.
- Piaget, J.(1929).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NY: Harcourt Brace.
- Piaget, J.(1977). *The Development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 NY: Viking Press.

- Quintini, G & Martin, S.(2006). “Starting well or losing their way? The Position of youth in the labour market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39, Paris.
-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Stationery office.
- Wolbers, M.(2003). “Job Mismatches and their labour-market Effects among school-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y review*, Vol.19 No.3, pp. 249~266.
- 古閑博美(2006). インターンシップ學文社.
- 谷内篤博(2006). 大學生の職業意識とキャリア教育, 勁草書房.
- 文部科學省(2007). 「大學における平成19年度インターンシップ實施狀況調査について」.
- 文部科學省. 「學校基本調査」各年度.
- 文部省(1999). 「インターンシップ・ガイドブック」, ぎょうせい.
- 産學連携教育日本フォーラム(2005). 「インターンシップ産學連携教育白書」.
- 石田宏之・太田和男・古閑博美・田中宣秀(2007). インターンシップとキャリア, 學文社.
- 小杉札子(2004). 若年無業者増加の實態と背景. 日本勞働研究雜誌, 533, 4-16.
- 奥津眞理 外(2007). 若年者就職支援の取り組みと方向. 東京: 勞働政策研究・研修 機構.
- 總務省. 「勞働力調査」各年度.
- インターンシップ推進支援センター(2007). 「インターンシップに關する學生の意思調査報告書」.

■ 저자 약력

· 변숙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이수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종범

-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 발행연월일	2009년 11월 29일 인쇄 2009년 11월 30일 발행
· 발행인	권대봉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인쇄처	(주)신전 (02)2264-7727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046-6 9333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9,000원>